금주의 법구-〈법구경〉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월 1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85호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불교계 항일인사 재조명 탄력 받나

3년 남은 3·1운동 100주년, 불교계는 어떤 준비를…

1919년 기미년, 일제강점 아래서 민족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3·1운동의 100주년이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광복 70주년을 기해 2019년까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을 편찬할 것을 밝혔다. 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이다. 30권 규모의 인명사전에는 1만3000여 명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성장과정·사상 및 이념·독립운동의 가치 등이 담길 예정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3·1절을 앞두고 잘 드러나지 않은 불교계 항일인사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불교계 항일인사로는 민족대표 33인이었던 한용운·백용성과 독립운동자금 모연에 앞장선 백초월, 항일 비밀결사체 만당(卍黨)을 조직한 김법린, 기관지를 발간하며 항일운동을 펼친 김성숙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표적인 불교계 항일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밀리에 긴박하게 활동하느라 근거자료를 잘 남기지 않았던 독립운동 성격으로 인해 현대에 사료(史料)로 적용할만한 것이 부족한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게다가 독립운동가 스님의 경우 문도나 제자들이 선양사업을 통해 활동상을 연구하는 일이 있지만 문도가 없는 스님이나 재가불자들에 대한 조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불교계에서 항일인사 재조명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대중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먼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3·1운동과 불교계의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불교계의 항일운동 역할과 연구동향, 향후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학술조사·전문연구자 육성 등
새로운 독립운동가 발굴 기대
증빙자료·연구자 부족은 여전
서훈 총괄할 중심축 마련 절실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토론회를 계기로 2년간 조사사업과 연구자 육성에 나선 뒤 지역별·인물별·분야별로 불교계 항일운동 역사를 정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역사에서 조명되지 못한 새로운 불교계 독립운동가 발굴도 포함된다. 이는 천도교가 추진하고 있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발맞춰 불교계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겠다는 종단 차원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해 말부터 연구소에 항일운동 관련 사업을 당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발기인대회를 마친 항일독립운동불교선양사업회(대표 조환기)는 올해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호국사찰 '고성 옥천사'에 대한 조명에 나선다. 옥천사는 일제강점기 경남지역 애국지사들의 주요 거점이었음에도 현충시설물로 지정됐다는 팻말만 있을 뿐 역사적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환기 대표는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취합해 옥천사 독립운동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후 스님을 비롯해 항일운동에 사력을 다한 재가불자 발굴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성월 스님의 독립운동가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 금정중 김화선 교사의 활동도 눈에 띈다. 1910년대 범어사 근대화에 일조한 오성월 스님은 일제 사찰령에 반대하는 임제종 운동을 주도하면서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화선 교사는 "개신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조명은 잘 돼 있지만 불교는 많이 부족하다"며 "최근 오성월 스님 속가에서 자료를 받았다. 다른 스님들의 서훈을 진행했던 경험에 미뤄볼 때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교계 독립유공자 서훈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옥고를 치른 사실이나 재판결과 등 객관적인 항일운동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조선불교의 일본불교화 주장에 일할을 날린 것으로 유명한 만공 스님의 독립운동 서훈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허·만공선양회(회장 옹산)는 증빙자료 부재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결사조직 만당에서 활동하며 비밀리에 독립군 자금조달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우봉 스님에 대한 서훈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그간의 관심 부족을 지적하면서 개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항일인사 재조명 사업을 총괄적으로 다룰 중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편찬위원인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된 인물은 어려움이 없지만 관련 논문이 없거나 행적이 불분명한 인물에 대한 정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최근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 발굴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환기 대표는 "불교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양사업들은 개별사찰이나 문도회, 속가 친인척 등 각각 지엽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며 "소임자가 바뀌면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고,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포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2015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공훈대상자는 총 1만4264명. 국가보훈처 분류는 연도와 공훈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 인물의 종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오롯이 해당 종교의 몫인 셈이다. 이제라도 역사서 잊힌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면면이 되새겨야 진정한 애국이 실현되지 않을까. 〈관련 기고 27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동안거 해제… 세상 속으로 2월 22일 동안거가 해제됐다. 조계종 선원수좌회에 따르면 이번 동안거에는 조계종 102개 선원에 2186명의 스님들이 방부를 들였다. 겨우내 정진한 수행자들은 이제 만행을 떠난다. 세상이라는 수행처에서 중생을 위한 교화행을 펼치기 위해서다. 만행에 나선 스님의 바랑에는 대중들을 위한 법(法)이 담겨 있다. 〈종정·총림 방장 스님 법어 11면〉

충주 석종사=노덕현 기자

아름다운 동행, 기부금 100억 원 '달성'

공익법인 82곳 중 불교계 유일… "지속적 관심 부탁"

아름다운동행이 불교계 공익기부재단 중 최초로 지난해 기부금 100억 원을 달성하며 전례 없는 성과를 이뤘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이하 동행)은 2015년 기부금 수입 100억 원을 달성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금 수입금액이 100억 원을 넘어선 공익법인은 82곳으로, 이중 불교계 단체는 동행이 유일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2008년 7월 설립 당시보다 10배 이상의 모금 성과를 이뤘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행은 불교계 최초 공익기부재단으로 출범하며 그해 기부금 수입 약 10억 원을 모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행 측은 "불교계 사찰 및 스님, 불자들의 자비행이 모여 이뤄진 의미 있는 성과"라며 "모연된 기부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네팔지진 구호, 아프리카 식량 및 의료지원, 교육 및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구호사업에 투명히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모인 기부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올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해는 참된 깨달음이 아니다"

혜국 스님, 동안거 해제 맞아 깨달음 논쟁에 일침

"오히려 중생의 아픔을 달래려면 자기 자신의 번뇌망상부터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생제도도 좋지만 가장 근본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번뇌가 끊긴 고요함은 결코 이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2월 22일 동안거 해제를 앞두고 대표적인 수좌인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사진〉이 깨달음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스님은 18일 충주 석종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깨달음 논쟁과 관련된 자신의 견해와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간화선에 대한 치열한 열기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간화선 대중화와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스님은 특히 깨달음이 자기 자신의 근본뿌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기에 이해를 통한 것은 참 깨달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스님은 "안거 전 깨달음의 이해를 가지고 많은 이들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비유해보자. 지금은 낮이다. 낮이라는 것은 밤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낮과 밤이라는 분별이 생긴다. 이해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은 무념이다"고 말했다.

혜국 스님은 13세에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득도 후 젊은 시절 10만 배 정진 후 손가락을 불태우는 소지공양을 결행해 불퇴전의 원력을 보여주었다. 또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 7개월간 솔잎과 쌀만 먹는 생식을 하고 장좌불와를 했다. 이럼에도 스님은 자기 자신에게 흡족하지 못하다며 수좌스님들의 각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스님은 "수좌들이 화두참구에 매진하면 하루에 12시간이 넘게 앉아있기도 하다. 잠과 싸우는 것 자체가 힘들다보니 중생 제도의 열의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간화선은 다른 수행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장점이 있기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간화선의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자기 내면을 파고들어 찾아낸 해답은 자기 인생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목각불
목각 천불전
만불전 건립
대공덕을
발원하시는 사찰
연락 요망
010-8617-5357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공단등
정품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하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18일 서울 송파구 도담하우스(원장 허진호)를 방문해 미혼모들을 위로했다. 2015년 개원한 도담하우스는 미혼모들이 머물며 의료와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가정시설이다.
이날 자승 스님은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담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깨달음과 나눔의 이매옥 이사장은 "불교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도담하우스에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홍보실

"소통과 화합으로 투명한 행정 펼칠 것"

총지종 제18대 통리원장 인선 정사 올해 사업 발표

"새종풍 운동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투명한 종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총지종 제 18대 통리원장에 선출된 인선 정사<사진>는 2월 17일 서울 통리원서 취임법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소감과 함께 올 한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인선 통리원장은 우선 소통을 위한 첫 시작을 '월간 종무회의 개최'를 통해 하겟다고 밝혔다. 매월 월초불공 다음 월요일에 전국 교구장이 임명직 원의원으로 집행부와 함께 종무 행정을 논의하고 그 시행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또한 4월 착공해 올해말까지 완공 예정인 서울 종로 관성사를 총지종 수행법과 밀교문화를 알리는 복합문화 교화도량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성 통리원장은 "총지종 사원중 유일하게 사대문 안에 조성된 관성사는 제가 주교를 맡고 있는 사찰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종로 돈의문지구 내의 종교용지 200여평에 건평 500여평의 사원을 신축해 수행문화도량으로 활용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종단의 정체성 강화와 생활 불교의 면모를 보여줄 스승들의 정복 평상복도 새로 제작할 예정이다.

인선 통리원장은 "총지종은 생활불교를 표방하지만, 그동안 정복은 생활복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특히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정복으로 착용하는 전수님들은 원불교 교무들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행생활에 맞는 정복과 평상복의 디자인을 연구해 올 10월경 새로 제정해 종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종도들의 소속감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발표중 눈길을 끄는 것은 법규집의 전면 재검토이다. 이와 관련 현재 중앙종회 산하 '종헌종법연구회'를 운영해 40여 년이 지난 법규를 현 시대에 맞게 용어와 규정 등의 정리를 할 계획이다.

인선 통리원장은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은 성직자의 자격요건이다. 현행 종단 법규에는 스승 자격에 '서자녀'나 '이혼자' 등은 스승이 될 수 없다."며 "이 점은 훌륭한 인재수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비합리적인 종헌종법의 조항들을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성 통리원장은 "재가 스승들도 예전에는 부부가 아니면 안됐는데 이제는 문을 넓혀 독신자들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정 자립과 관련해서도 인선 통리원장은 "현재 10~15% 정도인 자체 수익을 30~40%까지 끌어올릴 것이며, 교도들의 단시금으로는 더 많은 교화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총지종은 중앙교육원 주관으로 시행된 괴산 중원사 스승 집중 수련도 계속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선 통리원장은 "중원사는 서원당, 숙소동, 공양실, 운동장 등을 갖춘 종합수련센터로 지어진 도량"이라며 "스승들의 법계에 따른 교과과정과 수행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는 도량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경남 진양 출신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총지종 총무부장, 통리원장 직무대행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의제 및 법규 재개정
정복, 평상법 새로 통일 제작
'종헌종법연구회' 통해 재검토

복합문화교화도량 불사
관성사 4월 착공, 밀교 수행 포교

종회의원 3원 교역직 겸직 추진 논란

종헌종법특위, 3월 임시종회서 발의… "인사난 때문"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회의원이 총무원 등 3원의 교역직을 겸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이하 종헌종법특위)는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3월 임시종회에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조항을 개정한 종헌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중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총무원 호법부장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예외로 뒀다.

종헌종법 특위는 이번 종헌개정 추진에 대해 3원의 인사난을 이유로 들었다. 특위는 "소임자를 찾지 못해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행정 · 입법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권한이 독점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북한 핵포기, 대화 나서야" 논평

조계종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남북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2월 18일 논평을 통해 "남과 북은 영원히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할 한 민족이다"며 "조계종은 남북공존과 상생을 저해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깊은 우려를 가진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어 "한반도 평화는 곧 세계평화"라며 "핵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실현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끝으로 "대립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남과 북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 상생의 지혜를 모으고 한반도에 항구적으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며 우리 종단 역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 구족계 수계산림 단독 봉행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독자적인 구족계 수계산림을 진행한다. 선학원은 2월 18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4월 중 부산 금정사에서 수계산림을 봉행키로 결의했다.

선학원은 지난해 조계종과의 갈등 국면에서 선학원 소속 스님들의 교육과 수계권리 제한 조치에 4월 금정사에서 구족계 수계산림을 열고 비구 15명, 비구니 3명에게 전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100인 대중공사가 '화쟁원탁회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법인관리법 폐지 선행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 상반기 구성되는 장로원의 장로자격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예비분원을 분원으로 전환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노덕현 기자**

정우 스님, "JSA법당 연내 완공"… 25평 규모 무량수전

2월 16일, 국방부 원광사서 군종교구 신년계획 밝혀

지난해 말, 공동경비구역(JSA)에 신축법당 불사를 결의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연내에 법당을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 스님)는 2월 16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교구장 정우 스님<사진>은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교회와 성당은 별도의 건물이 있었지만 법당은 미군이 사용하던 막사를 개조해 법당으로 쓰고 있었다. 법회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문점에 지난해에만 16만여 명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법당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법당 불사 계기를 설명했다.

스님에 따르면 현재 JSA법당 불사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설계를 마치고, 군승인도 받아 행정조치 등 세부적인 부분만 남은 상황이다. 새로 지어질 법당은 약 25평 규모에 고려시대 건축양식을 반영한 무량수전이다. 이곳에 아미타삼존불을 봉안하고, 우리나라와 더불어 6 · 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 국군 위령비를 세워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바닥에 전돌을 깔아 누구나 법당을 편히 참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의 종'과 참배객을 위한 마루도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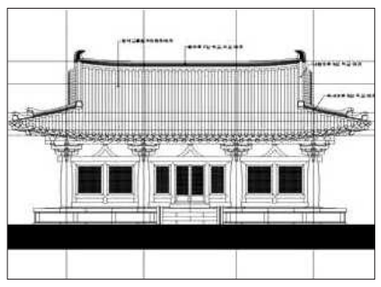
정우 스님은 "법당 부지는 외국인들이 판문점을 방문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전시관 인근이다. 법당이 마련되면 자연스레 발길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국민이 짊어지고 있는 선조들에 대한 무거운 짐을 불교가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인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군종교구의 요청을 받아 오는 3월 24일 오전 11시 일산 여래사에서 차기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버스를 타고 JSA법당 부지와 판문점을 돌아볼 예정이다.

군종교구는 올해 JSA법당 불사 외에도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구본사-군법당 자매결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자매결연 당시 24개 각 교구본사는 군 · 사단, 교육부대 등 지역 상급부대와 불사 및 법회 · 위문품 보내기 · 장병 위문 등을 지원키로 협의했다.



6 · 25 참전국 위령비 세워
참전용사들 넋 기릴 예정



JSA법당 정면도

간담회서 정우 스님은 2009년 삭제된 종헌 9조 2항(군법사에 한해 혼인 인정)에 따라 예편한 군승을 종단이 품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스님은 중앙종회 등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주장을 늘 펼쳐왔다. 정우 스님은 1960년대 화동승(和同僧,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통합종단에 소속된 대처승)을 예로 들며 예비역 군법사에 대한 종단적 차원의 존중을 강조했다.

정우 스님은 "군포교라는 미명 아래 결혼까지 허용하면서 장기복무를 장려했는데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종단을 떠나야 하는 군법사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이를 '용도폐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면서 "통합종단 형성 시기에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종단에 오신분들이 있다. 이처럼 종단이 예비역 군법사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해 다시 품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원불교문화대학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대 학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주간 • 야간 / 수 • 금요일)

동 · 서양 철학의 행복론 / 불교심리학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실습 / 긍정심리학 / 신체심리치료 / 삶과 죽음의 철학 / 철학과 심리 / 심리검사 및 평가 / 상담과 철학 / 상담면접기술 / 유식심리학 / 성격심리학 / 집단상담Ⅰ 등

◐ 명상학과 (주간 • 야간 / 수 • 목요일)

동 · 서양 철학의 행복론 / 불교심리학 / 명상과 치유 / 불교명상학 /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실습 / 불교와 마음치료 / 삶과 죽음의 철학 /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실습 / 심리검사 및 평가 / 불교수행과 실습 / 비교명상의 이해 / 유식심리학 / 철학과 심리 / 현대 명상의 이해와 실제 등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분

■ 강의시간 :
· 주간 : 제1교시 14:00 ~ 15:30 / 제 2교시 15:40 ~ 17:10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 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300,000원(학기당)

대학원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야간 / 수 • 목요일)

동 · 서양 철학의 행복론 / 불교심리학 / 상담심리치료 / 정신병리학 / 개인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 / 뇌과학과 심리치료 /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실습 / 삶과 죽음의 철학 / MBSR · 수용전념치료(ACT) / 개인상담 사례연구 및 실습 / 집단상담 Ⅱ / 부부 및 가족상담 / 유식심리학 / 철학과 심리 등

■ 입학자격 :
· 본 대학 또는 불교교양대학 불교심리상담 과정을 이수한 분
· 정규대학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 이상에서 상담 관련학 전공으로 졸업(예정)한 분

■ 강의시간 :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400,000원(학기당)

특전 : · 장학혜택 : 성적 우수자, 근로장학생 외
· 수업료 할인혜택 : 스님. 동반가족(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1인에 한해) 등록금의 50% 할인

원서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홈페이지 : www.kbpf.org
◐ 전 화 : (02)707-1072
◐ 팩 스 : (02)3273-1618
◐ 우 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BBS불교방송) 3층 대원불교문화대학

■ 접수 및 전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www.kbpf.org 양식 다운)
◐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년 2월 29일까지
◐ 개 강 : 2016년 3월 2일(수)
주간 : 오후 2시, 야간 : 오후 7시

■ 오시는 길 및 문의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문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02)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한평불 2016사업발표

남북관계 개선 골자

한평불이 올 한 해 난국에 처한 남북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불교계 역할을 찾아나선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단장 법응, 이하 한평불)은 2월 15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소회의실에서 '2015 결산 및 2016 사업보고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현재 극단적 갈등상황에 놓인 남북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교계 노력을 구상하는 사업안을 결의했다.

한평불의 2016 주요 사업은 △토론회- '최근 남북관계 급변에 따른 한반도 상황의 진단과 대안의 모색'(3월 21일) △토론회 및 유라시아 문화탐방- '한반도 및 유라시아 문화의 동질성을 찾아서'(8월 경) △한반도 평화 관련 한국 정부 및 미·중에 대한 정책제안(2~3회) 등이다.

한평불 측은 "암울한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의무"라며 "이것이 바로 한평불이 열심히 활동해야하는 이유다. 많은 불자들이 한평불 활동에 조언과 참여를 아끼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개성공단 폐쇄에 불교계 대북사업 '올스톱'

민추본·평불협 등 남북불교교류 '난항'

금강산 신계사 보수 작업 등
"상반기 사업 사실상 불가"
정세 따른 민간교류중단 한계
불교계 '중단 철회' 요청 잇달아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불교계의 대북 및 남북교류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월 1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포고했다. 개성공단 가동은 남북평화의 상징이자 경제교류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종교계 및 민간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극심하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올 상반기 예정된 금강산 신계사 보수작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민추본은 지난해 8·25남북공동합의문 발표 직후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남북 민간교류의 첫 출발을 알렸다. 이후 조선불교도연맹(연맹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과 함께 남북불교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신계사 훼손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본격적인 보수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박재산 민추본 사무국장은 "당초 올 상반기 신계사 보수공사 착수 및 3월 초 조불련과 연중 협력 사업을 의논키 위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라며 "향후 정세를 지켜보며 사업계획을 수정·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남북정세에 따라 급작스런 중단을 반복하는 민간교류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사무국장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남북 간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마저 잠정 폐쇄를 결정하며 모든 민간교류마저 활로를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는 8·25합의 직후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을 통해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며 2억 원 분량 양파 씨앗 보내기, 황해북도 금강국수공장 및 금강빵공장 재가동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신창수 평불협 상임이사는 "구체적인 대북지원사업을 구상하던 중 다시 상황이 악화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긴 어렵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의 대북지원 및 교류는 끊어져선 안 된다. 계속 정세에 따라 민간교류를 중단시킨다면 71년 분단의 역사가 700년이 될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난세에 불교계 재가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불교계 대북 및 남북교류단체들이 입은 피해는 물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붕괴', '남측 입주기업인 피해 속출' 등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 이하 불시넷)는 2월 14일 성명문을 통해 "남북 평화와 정부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해 온 입주기업인들은 갑작스런 정부 결정에 설비는 물론, 완성품마저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중단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시넷은 대북제재조치로써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배치로 이웃나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과 함께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남한)현실로, 경제침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드(THAAD)'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로, 이를 한반도 일대에 배치할 경우 레이더가 중국 동쪽 지역을 탐색할 수 있어 중국 측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도 "스스로 발에 도끼를 찍는 행위와 다름없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자해적인 조치"라고 일갈했다. 이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가 북한이 아닌 남한 측에 더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란 비판이다.

이어 대불청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통일대박론'을 거론하며 "공단 가동중단 시일이 길어질수록 남측 기업들의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은 물론, 북한과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민족화합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통일 대박'을 외치는 것은 대국민 기만행위이자 '쪽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의평화불교연대(공동대표 김광수·박병기·이도흠·최연·형난옥)는 2월 18일 성명문을 통해 "남북은 모두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남한만으로 한정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북한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더 확대해도 시원찮을 상황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124개 기업을 거의 부도 상황에 몰아넣는 것은 물론, 북한에 유입되는 1억 달러를 차단키 위해 5억 달러 손해를 보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아름 기자**

조계사 청춘학당 개설

65세 이상 불자 대상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65세 이상 불자 신도를 대상으로 '청춘 학당'을 개설한다. 현대무용을 비롯해 요가 등 활기찬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계사 안심당에서 열리는 이번 청춘학당은 3월 9일부터 매주 수·목·금요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다.

수요일에는 현대무용 강좌인 '룰루랄라 무용', 목요일 레크리에이션과 요가를 결합한 '레크요가', 금요일 '스님과 떠나는 마음여행'이 진행돼며 수강료는 1개월에 5만원이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신도들의 인문적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학당'과 조계종 종무원 및 조계사 종무원 등을 위한 '선재학당'도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일반시민들과 조계사 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당은 매주 금요일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붓다에게 길을 묻다-인생의 근본적 질문에 관한 불교적 답변들',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의 '논어를 통해 본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 등이 진행된다. (02)768-8580 **노덕현 기자**

선묵혜자스님, 53도량 순례 첫 발 내딛어

2월 18일~20일 도안사서 발대식 겸 첫 순례법회
4년여 일정으로 진행… 월 1회씩 천도재도 봉행



선묵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서 발대식을 겸한 첫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선묵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53기도도량 순례기도로 4년여간의 일정에 첫발을 내딛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서 발대식을 겸한 첫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53기도도량 순례는 전국 주요 기도도량을 삼보사찰, 적멸보궁, 미타, 미륵, 관음, 문수, 지장, 보현, 나한도량 등 아홉 개 성지로 구분해 53기도도량을 선정했다.

이는〈화엄경 입법계품〉서 선재동자가 구도순례의 길에 찾아가는 53선지식을 찾아 진리를 배우며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선묵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도량서 회주 선묵혜자 스님은 회원들에게 108염주를 만드는 염주를 보시하며 53기도도량 앨범을 함께 채운다. 이 앨범에는 기도도량에 가서 찍은 사진과 사찰 전경이 담긴 순금(純金) 호신불 카드(전면) 53선지식 그림과 광명진언(후면) 등이 담긴다.

또한 신행일기와 발원문을 써서 보관토록 해 53기도도량의 기도 추억을 고스란히 담도록 한다. 이외에도 별도로 기도 법요집도 만들었다. 기도 법요집에는 삼귀의, 천수경, 각 불보살 정근,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발원문, 반야심경, 각기도 발원문, 보현행원, 사홍서원, 53기도사찰 이름, 53선지식 등을 담았다.

특히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매월 53기도도량을 찾아 일심기도하고 도안사서 '선망부모 일가친척 조상영가와 유주무주고혼 천도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파견법, 자비·공동선 관점서 바라보다

3대 종교, 2월 18일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토론회 개최

3대 종교가 정부가 추진 중인 '파견법 개정안'을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2월 18일 천주교서울교구청 신관 502호(명동성당)서 '3개종단 토론회-종교가 바라본 파견법'을 개최했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를 시작으로, 각 종단 대표 토론자로 법상 스님, 정수용 신부, 최형묵 목사가 나섰다.

3개 종단 대표는 각각 '인식의 차이'(불교), '인간존엄성과 공동선'(가톨릭), '정의'(개신교)의 가치로 파견법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다.

법상 스님은 먼저 정부와 노동자들의 인식 차이를 거론하며 "고용자와 피고용자들 간에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땐 대화와 양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모두가 충족하는 충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불교의 자비로움은 어느 순간 적선이 아닌 약자의 아픈 입장을 헤아려야하는 것"이라며 "종교인들은 사회의 아픔이 생긴 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미리 연구·검토해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수용 신부는 파견법 개정안이 노동자들 우려하며 "인간은 결코 '도구'로 작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형묵 목사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종교간 연대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2월 18일 천주교서울교구청에서 '3개종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석가를 품은 53견 - 이 시대의 또 다른 안목,

또 다른 화두집.... 드디어 출판되다..

수행자라면 한 번은 참고해 볼만한 화두집



제1見 석가를 품다
제2見 평온 초대장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4見 차 한 잔
제5見 해인 삼매
제6見 창조와 표절
제7見 야부선사 웃다
제8見 요지경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11見 동시구족
제12見 법맥?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14見 윈드서핑
제15見 발효식품
제16見 한 맛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19見 참새집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22見 직거래 ?
제23見 묘혜(妙慧)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26見 고구마 부쳐?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31見 다음생
제32見 종(鐘)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36見 종교와 현실
제37見 자식인연
제38見 형제 인연
제39見 도반인연
제40見 부부인연
제41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42見 왕(대통령)
제43見 독각(獨覺)은?
제44見 〈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48見 보시(기부)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52見 화엄경_7행詩
제53見 평온 축제

회향게
이 〈석가를품은 53견〉의 출판으로 얻는 수익금은
〈세계의 고통받는 어린이〉를 위해 전액 기부합니다.
2016년 1월 11일 평온진귀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도서출판 왕산 문의 1899-9532



편저자
平溫 眞歸(평온.진귀)
화엄경강원 강주

일 주 문



법주사 울화통 캠프

현조 보은 법주사 주지 스님은 2월 20~21일 경내에서 '그냥 다 괜찮아! 법주사 울화통 캠프'를 개최했다.



수덕사 정월방생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3월 3일 영천 은해사와 거조암에서 '수덕사 정월방생'을 실시한다.



104위 신중탱화 점안

덕문 대구 동화사 주지 스님은 2월 12일 경내 대불전에서 104위 신중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휴정대선사 다례재

월우 전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대흥사 표충사에서 '제412주년 서산당 휴정대선사 다례재'를 봉행한다.



제19차 정기총회

퇴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스님은 2월 24일 오후 3시 서울 조계사 안심당 3층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안양교도소 설날 떡 보시

도서 서울 도선사 주지 스님은 2월 14일 안양교도소 전 재소자에게 설날 떡을 보시했다. 이날 보시된 떡은 총 560kg이다.

화촉 권재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임은 3월 12일 낮 12시 30분 신사동 수아비스 엘피스 홀에서 불교총지종 교무 조정아 씨와 화촉을 밝힌다.

"서울지하철 안전운행 기원합니다"

서울메트로법우회 올해 첫 특별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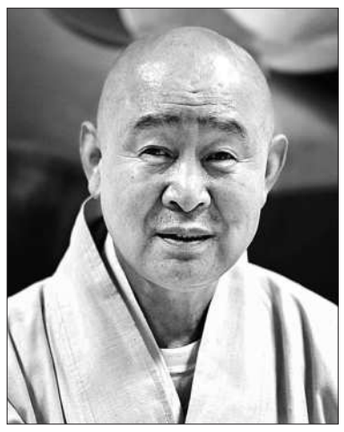


서울메트로법우회(회장 김영만)는 2월 16일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사 내 법당에서 '지하철 무사고 안전운행 기원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김영만 회장은 "지하철 안전은 곧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법회에서 모은 정성들로 모든 지하철이 크고 작은 사고 없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부산불교복지 안내자 될 터"

(사)부산불교복지협의회 초대 이사장 정여 스님



범불교종단 참여 이끌어내

지역복지 견인차 역할 담당

"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부산불교계 복지법인과 기관들을 아우르는 종합체이자 구심점으로서 부산 불교복지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부산불교복지협의회가 초대 이사장에 정여 스님〈사진〉을 선출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사장으로 추대된 정여 스님은 사단법인 설립을 계기로 부산불교계 복지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다함께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여 스님은 "1998년에 출범한 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 및 발전을 이룩했지만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임의단체라는 한계와 아쉬움이 있었다"며 "부산불교계 복지기관들의 참여와 결속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사단법인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었다. 앞으로 20년 동안 부산불교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해왔던 주요 사업을 강화하고 실천해 창립 당시 복지를 위한 이념 및 화합 정신을 일궈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부산불교복지협의회가 앞으로 강화할 주요 사업은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세미나 △빈곤 불교국가 지원을 위한 해외지원 사업 및 선진복지시설 견학 △불교행사 시 소외계층 위한 자비와 나눔 행사 △부산불교복지박람회 개최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연찬회 △불교복지자원 모금 △지원 및 정보교류 활동 등이다. 정여 스님은 이와 더불어 하나의 발전 과제로 불교복지법인 및 시설의 참여 확대를 꼽았다.

정여 스님은 "아직 모든 시설과 법인이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나머지 시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부산 복지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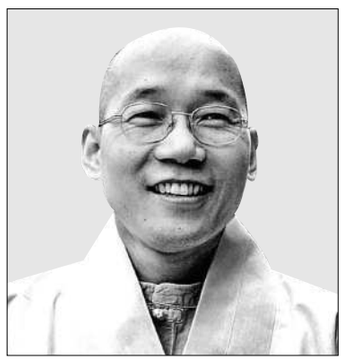
이번 사단법인 설립에 함께 동참한 사회복지법인은 14개로 공덕향(대표이사 명현) · 내원(대표이사 정련), 동주(대표이사 정현), 범어(대표이사 수불), 불국토(대표이사 범산), 혜원(대표이사 원허) 등이며 시설은 총 80여개에 이른다. 현재 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불교복지시설은 102개소가 있다. 또한 사단법인 설립과 함께 새롭게 등록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의 산하시설인 낙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범불교종단의 참여도 함께 이끌어내고 있다.

정여 스님은 "본 협의회는 부산 불교복지를 선도하는 안내자로 거듭날 것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창립법회 및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회'를 2월 25일 오후 4시 부산 코모도 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하성미 기자**

"명상 대중화 일조에 뜻 모았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상임이사 인경 스님



3월 9일 명상 대강좌 개강

전문명상지도사 과정 인정

"명상법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명상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릇된 명상법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확실히 인정받을만한 명상법을 대중에게 알려 명상의 대중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한국명상상담지도자협회 상임이사 인경 스님〈사진〉은 2월 17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5층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9일 개강하는 '지혜와 평화의 길, 명상아카데미 대강좌'의 의의를 이 같이 밝혔다.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는 협회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한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증 필수 과정이다. 5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반(행불선원)과 토요일반(금강선원)으로 진행되는 강좌는 혜거 스님과 용타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에서 명상수행을 전파하고 있는 20여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 강의한다.

인경 스님은 "하나의 통일된 교육과정을 준비하려 했으나 협회 소속 단체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 우선 최대한 많은 명상수행을 소개하고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강좌를 마련했다"며 "명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과 기존 수행자들에게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명상아카데미 대강좌에서는 초기불교 · 대승불교 · 선불교 · 명상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명상수행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협회는 이 강좌를 시작으로 명상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과 포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자격증도 2급과 1급, 전문으로 구분했으며, 소속 단체별 교육과정과 협회 주관 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인경 스님은 "지도자들이 모여 1년간 심도 있는 회의를 했다. 전문 단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3년간의 수행이 필요하게끔 의견을 모았다"며 "협회 내부 자격관리위원회를 통해 시험과 인터뷰 등을 거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법인 인가를 추진 중이며, 강좌를 녹화해 별도의 온라인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초심자를 위한 명상수행 입문서 발간에도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이후 교육과정을 비롯한 협회 운영의 틀이 완성되면 국가공인자격증 인정에 나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인경 스님은 "명상수행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이 명상에 대한 올바른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았다. 협회를 중심으로 고통을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안내자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공인된 프로그램을 통해 협회 공신력을 높이고, 소속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해 한국적인 명상법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호산 스님, 성역화기금 1500만원

2월 15일 (재)아름다운동행에 전달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2월 15일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성역화 불사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호산 스님은 "종단의 중요한 사업인 성역화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올해는 성역화 불사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도움을 준 수국사 신도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청소년 장학금 1000만원 지원

법일장학회, 산청 대원사서



산청 대원사(주지 묘명 스님) 법일장학회는 2월 13일 대원사 대웅전에서 '제6회 법일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삼장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초 · 중 · 고 · 대학생 10여 명에게 장학금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대원사 주지 묘명 스님은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이 사회의 동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법사대 제24회 졸업식

수료생 100여 명 배출



한국불교법사대학 · 대학원(학장 지일)은 2월 14일 동국대에서 제24회 졸업식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품수식에는 법사과정(1년), 대법사과정(2년), 불학연구원 과정(5년), 불교석학과정(2년)의 수료생 100여 명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2월 28일 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대강백 월운 스님의 마지막 전강

“교학은 부처님 가르침 실천 선·교 겸수 인재 나와야”

2월 16일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 학장 이취임 및 전강식 현장



월운 스님이 후임학장 정원 스님에게 직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월운 스님은 전강제자에게 휘호를 전했다.

“예로부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통 탈석이라고 합니다. 물러나지 않으려해도 후학들이 입실을 하니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바로 청출어람이라 합니다. 오늘 새롭게 전강을 받는 스님들이 기존의 강사들에게도 또 다른 자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한문으로 된 대장경을 한글로 옮기는 역경불사에 평생을 헌신해 온 대강백 월운 스님의 마지막 전강식이 2월 16일 봉선사에서 열렸다. 월운 스님은 이날 교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출어람의 자세로 후학들이 끊임없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강식이 열린 봉선사(주지 일관)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와중에도 500여 대중이 운집했다. 월운 스님의 마지막 전강식이라는 말을 들은 불자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1959년 운허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은 이후 후학양성에 매진해온 월운 스님은 이날 88세를 맞아 능엄승가대학원 학장 소임을 내려놨다.

먼저 스님은 법석에서 이날 모인 대중들에게 교학발전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스님은 “교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고민하는데서부터 시작한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교학을 통해 이런 방법이 발전돼 왔기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최근에는 선은 선, 교는 교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시대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서는 선교가 다름이 없다”며 “후학들이 선교를 함께 익히고 이에 통달하는 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월운 스님은 자신이 전등강맥을 받게 된 사연과 후임 학장 정원 스님에 대한 평가를 재미있게 털어놓으며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스님은 백파스님으로부터 설두, 설유, 한영, 운허 스님으로 내려오는 강맥을 이었다. 특히 스님이

1959년 전강 받은 후 후학양성
역경불사·교학발전에 크게 기여
총 29명 제자에게 강맥 전수

주도한 역경사업도 운허 스님의 전강을 받으면서 본격화됐다. 스님은 “당시에는 멋도 모르고 불사에 참여했고, 어른 스님의 부탁으로 이렇게 있게 됐다. 이후 평생의 과업이 됐다”며 “후학을 양성하는 일은 새로 모신 학장 스님이 더 큰 원력과 능력이 있으니 잘 하시리라 믿는다. 아직은 힘이 남아있으니 함께 탁마해가며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꽃도 시들면 다음 꽃을 피워 나야 하는데 그 것이 바로 전강”이라며 “광석을 발견해서 금으로 만들었듯이 학장 스님은 이제 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원 스님은 “학장이라는 이름이 권위나 명예의 자리라 생각지 않고 배우는 입장에서 임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스님은 “만일 당신이 산꼭대기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나무가 되라. 골짜기에서도 제일가는 나무가 되라는 말이 있다”며 “오늘 전강받은 스님들이 어느자리에서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전강받은 스님들은 월운 스님의 이러한 당부를 깊이 간직하고 그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강식에서 월운 스님은 일연 스님에게 현담(玄潭), 각진 스님에게 ‘공곡(空谷)’, 범혜 스님에게 ‘평천(平天)’, 비구니 선암 스님에게 ‘상연(常然)’ 당호를 내렸다. 당호가 쓰여진 휘호를 전달할 때마다 전강제자들은 노스님의 손을 꼭 잡았다.

전강제자인 일연스님은 능엄승가대학원을 졸업 한 후 화엄사 범어사 등지에서 강의를 해왔으며 각진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후 지곡서당에서 5년,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에서 7년간 공부하며 한문불전을 익혔다. 범혜 스님은 송광사 승가대학 졸업 후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에 입학해 5년간 수학했다. 선암스님은 청암사승가대학 졸업 후 능엄승가대학원에서 3년간 수학했다.

전강제자를 대표해 각진 스님은 “월운 큰스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 스님들이 후학들을 위해 노력을 해주셨다”며 “승가대학원 졸업과 전강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역경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강을 받는 선암 스님은 “학림에서 월운 스님께서 많은 나이에도 컴퓨터 앞에서 문서작업을 직접하시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며 “그 원력을 이어 연구와 공부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강식에서 봉선사 주지 일관 스님은 “예로부터 눈밝은 학인이 강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며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총명한 후학들로부터 자극을 받아 가르치는 방법이 향상하게 되니 이처럼 면학 풍토와 불교의 새로운 변화에는 배우는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관 스님은 “손수 학림을 가꾸고 그 제자에게 자리를 아름답게 물려주신 조실스님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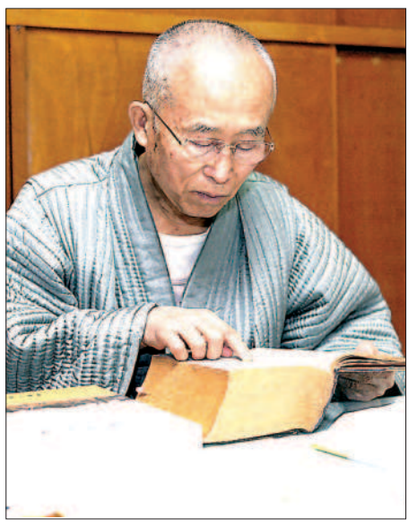
전강식 후 월운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은 봉선사 대웅전 앞에서 눈을 맞으며 교학발전의 서원을 다시금 다졌다. 남양주 봉선사=노덕현 기자



월운 스님 강맥

- 석전
  - 운허
    - 운기
    - 운성
    - 고봉
    - ⋮
  - 월운
    - 지관
    - 홍법
    - 묘엄
    - ⋮
    - 진원
    - 지안
    - 법장
    - 반산
    - 준수
    - 정원
    - 덕문
    - 무이
    - ⋮
    - 총 29명

대강백 월운 스님이 걸어온 길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학승 중 한 명인 월운 스님은 1959년 당대 최고의 강백으로 꼽혔던 운허 스님으로부터 전강(傳講)을 받은 후, 지금까지 60여년을 역경과 강의에 매진해왔다.

그 시작은 바로 책읽는 재미에서 시작됐다. 1929년 경기도 장단에서 태어난 스님은 1948년 남해 화방사에서 불경공부를 하다 출가했다. 당시 월운 스님의 한문실력을 본 화방사 스님들이 봉선사 운허 스님을 추천했고, 스님은 그 길로 운허 스님 슬하에서 공부하게 됐다.

월운 스님은 특히 1965년부터 2002년까지 37년에 걸쳐 해인사에 소장돼 있던 고려대장경을 총 318권의 한글대장경으로 완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1993년 제4대 동국역경원장으로 취임한 월운 스님은 교수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불교의 경전, 전통강원의 사기(私記), 선어록 등에 관한 강의와 법회를 주관, 종립대학으로서 동국대의 불교적 정체성을 세우는 데 노력했다. 이외에도 역경원 후원회를 조직, 많은 불자를 후원하는 등 불교관련 사업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96년 능엄학림을 설립하여 후학양서에 매진해왔으며 2000년 교종본찰이 봉선사의 조실로 추대되었다.

월운 스님은 2001년 한글의 소중함과 정신을 선양하는 이에게 수여하는 외솔상 실천부문상을, 2003년에는 역경과 도제 양성에 있어 혁혁한 공로를 세워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03년 ‘포교대상’을 받았다. 2005년에는 ‘대원상’을 수상한 데 이어,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 대한 문화훈장인 ‘은관문화훈장’ 서훈자로 선정됐다. 〈선문염송·염송설화〉를 번역, ‘2006년 지훈상’을 받기도 했다.

1929년 11월 경기도 장단 출생
1944년 3월~1947년 9월 향리 유릉(柳陵)서당에서 금계(金桂) 선생에게 한학(漢學) 수학
1947년 9월 경남 해남 화방사(花芳寺)에서 출가
1949년 5월 화방사에서 운허(耘虛)스님을 은사로 득도. 법명 해룡(海龍)
1952년 3월 부산 범어사에서 자운(慈雲)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52년 4월~1953년 7월 부산 범어사 금정선원 수선안거
1956년 3월~1957년 8월 합천 해인사 강원 운허 스님 강석에서 대교과(大敎科) 졸업
1959년 4월 운허 스님께 입실, 제78세 법손. 당호 월운(月雲).
1959년 10월~1961년 8월 통도사 강원 강사 역임
1963년 2월 마산대(현 경남대) 철학과 졸업
1965년 10월부터 현재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83종의 經 역출
1976년 1월~1994년 10월 남양주 봉선사 주지 역임
1979년 3월~1993년 12월 중앙승가대학 교수 역임
1983년 4월 불경서당(佛經書堂)과 불교전문통신강원 설립운영
1993년 11월~2009년 2월 4대 동국역경원장 역임
1996년 2월~2016년 2월 봉선사 능엄학림 강주 역임
2000년 9월 한글대장경 전318권 완간
2001년부터 현재까지 봉선사 조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2016년도 1학기 수강생모집

최고지도자과정

과 정 명	책임교수
명리학최고지도자과정	유방현
풍수지리최고지도자과정	최병용
서예교육강사과정	이영철
장례지도사과정	유재철
무교최고지도자과정	김 용

전문가과정

과 정 명	책임교수
풍수지리전문가	류호기
현장풍수관산전문가	능안
경기민요전문가	정남훈
육효학 전문가과정	유방현
벤처 사회복지학 CEO	구종회

일반교양과정

과 정 명	담당교수
서예실기연구	이영철
문인화 실기	하영준
동방 선묵화	김창배
전통음악치유지도사	유명옥

일반교육과정

과 정 명	담당교수
구성사주	이남옥
라경 38층과 대괘풍수	양만열
마의상법	박은영
만국역리학(기초)	김연호
만국역리학(심화)	김연호
매화역수 I	김정숙/박서진
매화역수 II	김정숙
맹파명리	장순옥
명리학 기초	신은주
명리학 중급	신은주
문화유산의 이해와 답사	서용석
복을 불러오는 생활풍수	안효명
상담명리	김원희
생활역학(초급)	송진희
생활역학(중급)	송진희
성명사주 I	안희성
성명사주 II	안희성
실전성명학	서범륜
육효와 구성기학(기초)	오규빈
집터와 주택풍수	이상무

일반교육과정

과 정 명	담당교수
주역타로 I (기초)	정재직
주역타로 II(실전)	정재직
학습진로상담사	안성재
한자이름(한자점술)	최대환
핵심사주명리학	정병문
현공풍수	류호기
현장명리	장순옥
사주내정법	김미화
명리실전	김동현
선시 십우도와 시 치료	서주석
실용사주명리학	강연석
실용생활풍수	정태국
육임	이필문
인상학	장순옥
입시분석과 진로진학	서지원
현장실전타로	엄성탄
타로카드	서부용
수암명리	연태희

학점은행제 과목

과 정 명	담당교수
동양화기법	이용석
수묵화 I	임태규
채색화 I	이대용/배정하
동양미술사	이소영/이경희
서예 I	이영철/최은철
서화론	김영배
문인화 II	장정영
모필표현법	김창배
동양화감상론	하영준
미술해부학	이소영

일반교육과정

과 정 명	담당교수
음양오행과 나의 건강	문재호
힐링건강춤체조지도사	한주연

● 문의전화 : (02)3668-9890,9871~2 www.dongbang.ac.kr

특화사업 · 참여증진 등… 노인복지 '새바람'

종로노인복지관 · 서울노인센터, 2월 18일 '2016사업계획' 발표


종로노인복지관은 2월 17일 서울 부암동에 위치한 무계원에서 2016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월 18일 관내 3층 TOP작은공연장서 '2016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종로구 노인복지시설의 '양대산맥',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서울노인복지센터의 2016년 사업기조는 무엇일까? 2곳 시설은 각각 '특화사업 주력'과 '노인참여 증진'을 목표로 삼았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이하 종로노인복지관)은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종로노인복지관 만의 특화사업 양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종로노인복지관은 2월 17일 서울 부암동에 위치한 무계원에서 2016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은 지난해 종로노인복지관이 최초로 시도한 '종로 장(醬)축제', '서울시니어 연극제' 등의 프로그램을 지역형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신(新)노인문화'의 지평을 열겠단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지역밀착형 4대 노인문화 주도사업'은 △전통문화애향사업 '종로&장금이' △노인연극문화컨텐츠사업 '대학노애(老愛)' △관광문화해설사업 '골목길해설봉사단' △공연문화향유사업 '상상밴드' 등이다.

특히 전통문화애향사업인 '종로&장금이'는 어르신 · 지역주민 · 청소년 등이 함께 장을 담그고, 장체험관 및 장카페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세대가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할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단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종로 장(醬)축제'서 첫 선을 보였으며, 올해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6,000만원을 지원받아 더욱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종로노인복지관은 올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플러스카페-2호점' 개설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플러스카페-1호점'은 종로구청 본관 1층에 위치하며, 어르신 바리스타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해경 종로노인복지관 부장은 "여러 곳이 운영상 난고로 문을 닫고 있지만 종로노인복지관 '플러스카페'는 지난해 수입 2억7000만원을 달성하며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에 어르신들의 급여도 원년대비 약 33% 증가시킴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자기긍정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화(花)가 자란다'를 실시한다. '화(花)가 자란다'는 원예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우울감 또는 분노조절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재)아름다운동행으로부터 '2016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관장 정관 스님은 2016 사업기조로 '소통 중시' 전략을 드러냈다. 정관 스님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야 한단 1차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욱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용자 ·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원공유를 통한 협력적 복지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 강조했다.

종로노인福, '대학로' 기반 '지역밀착 특화사업' 추진
서울노인센터, "노인이 주체" 어르신 기획단으로 직접 참여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노인, 선배시민이 되다'는 큰 기조하래 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주체적 참여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월 18일 관내 3층 TOP작은공연장서 '2016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선배 시민'이란 사업운영전략을 중심으로 한 8가지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노인, 선배시민이 되다'는 공동체 사회서 노인의 역할을 '선배'로 삼아 어르신들의 주체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단 의미다. 이 취지를 살려 지난 1월 실시된 서울노인복지센터 설맞이 행사 기획 과정에도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사업방향은 △노년의 일상, 배우고 익히며 배려하다 △노년 문화, 선배시민을 이야기하다 △노년의 꿈, 종로서 펼치다 △노인복지의 실천, 연구하다 등 8개 항목이다. 세부적으론 탑골문화예술학교, 인생학교, 영화학교, TOP방송국 등 기존 프로그램들을 보강 · 확대 실시하되, 각 프로그램마다 어르신들 의견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개관 1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6~10월 중 세미나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기획출판 '음식학교-밥은 복지다' 발간을 앞두고 있다. 도서 '음식학교-밥은 복지다'는 센터 경로식당, 밥의 의미, 요리교실, 공유부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내용이다.

한편,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센터 이용 어르신 230여 명이 참석해 센터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민철기(80)씨는 "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기대를 표하는 한편, "직원들이 행정업무로 바쁜 것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관장 희유 스님은 "어르신들에겐 다양한 열정이 있다. 어르신들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센터가 어르신들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아름 기자

"자랑스런 軍불자장교로 거듭나겠습니다"

2월 17일 육해공 각 군 사관학교 졸업법회

국가수호의 임무를 위해 군장교의 길에 들어선 불자 사관생도들이 자랑스러운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2월 17일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에서 '육사 72기 졸업 및 임관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남장 김갑영 군승,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오원진 장군, 예비역불자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불자 사관생도들은 장궤합장한 채 "화랑의 후예로, 부처님의 제자로 삼보전에 귀의하며 자랑스러운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오니 제불보살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지혜의 힘을 북돋아 주옵소서"라고 발원했다. 이어 모범 불자 생도들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 · 포교원장 · 군종교구장 · 국군불교총신도회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법문에서 "어려운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장교로 임관하는 것을 축하한다"며 "군승법사들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겠다. 국토를 수호하는 간성(干城)으로, 불제자로 따뜻한 병영생활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같은 날 청주 소재 공군사관학교는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을 법사로 졸업법회를 봉행했다. 18일에는 영천 소재 육군3사관학교 졸업법회를 은해사 부주지 보월 스님 주관으로, 19일에는 진해 소재 해군사관학교 졸업법회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주관으로, 22일에는 대전 소재 간호사관학교 졸업법회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주관으로 봉행했다.

군종교구는 각 군 자대에 배치되는 초임장교 불자들을 해당부대 군승이 방문해 불자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법회활동 참여를 도울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육군사관학교 졸업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불교인재원, 한국불교 주요 조사 특강 마련

2월 26일부터 12주간 전법회관 지하교육관서

한국불교 종지종풍의 근원을 파악하고, 한국불교 역사에 획을 그은 주요 조사들을 집중 조명하는 강좌가 열린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2월 26일부터 '2600년 불교, 대중강좌로 이해하는 길-3차 한국불교'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1차 인도 · 티벳 및 남방불교, 2차 중국불교에 이은 세 번째 강좌로 5월 13일까지 총 12주에 걸쳐 진행된다. 오대적멸보궁 건립자인 자장율사부터 보조지눌, 태고보우 등을 거쳐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을 편찬한 백운경한 선사까지 조명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오대적멸보궁의 건립자 자장율사(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2/26) △해동성자와 무애행의 원효대사(이평래 前한국불교학회장, 3/4) △화엄사상의 중심 의상대사(이병욱 고려대 외래교수, 3/11) △왕오천축국전과 혜초대사(고영섭 동국대 교수, 3/18) △조계종조 도의국사와 구산선문(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 3/25) 등 12개 강좌로 구성된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선지식들을 중심으로 2600년 불교역사를 알아보는 이번 강좌를 계기로 공부하고 정진하는 신행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불교인재원은 향후 재가불자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9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 선운당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10만원. 1661-1108. 윤호섭 기자

"새 책가방 메고 학교가요! 스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동행 · KB국민카드, 2월 16일 '선재의 선물' 전달식

8살 소녀가 총총 걸어 나와 스님께 합장 반배를 올린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핑크색 새 가방을 어깨에 메어주자 아이의 웃음과 함께 만방에 온기가 퍼져나갔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이하 동행)은 2월 16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선재의 선물-책가방 보내기' 전달 및 포장식을 진행했다. KB국민카드의 후원금 1억 원으로 마련된 '선재의 선물'은 전국 432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다문화 · 한부모 · 저소득 가정 어린이 1,580명(남아 849명 · 여아 731명)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 대표로 참여한 어린이 8명 중 김민서(8 · 여) 학생은 "새 책가방을 메고 하루빨리 학교에 들어가 선생님과 새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며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라 웃어보였다.

또한 학부모 김경진씨는 "아이가 어느새 자라 책가방을 메고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니 뿌듯하다.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어울리는 학교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남겼다.



(재)아름다운동행은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선재의 선물-책가방 보내기' 전달 및 포장식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이사장 자승 스님과 정성호 KB국민카드 전무가 함께했다. 자승 스님은 "심해지는 양극화 현실 앞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자라고 있다"며 "'선재의 선물'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만능주의를 거둬내고 아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의미다. 서로 도우며 행복을 나누는 상생 정신이 확산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무는 "겨우내 움츠렸던 초목에 싹이 돋아나듯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KB국민카드도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서울 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불교계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가
출범시킨 "서울 승가대학" 개강

승가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에 고대 인도의 교육방법인
인명논리학을 기초로 한
불교교육의 컨트롤 타워

◆ 모집인원 : 20명
◆ 대 상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재가자 가능)
◆ 학 비 : 연 100만원
◆ 입학식 :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정오

◆ 강 사 진
학회장 스님과
학회소속 지도교수 外
특강강사
◆ 교육과정
전 문 과 정 : 2년
연 구 과 정 : 4년
교수사과정 : 7년

● 강의시간 :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 토요일 오전 3시간)

● 입학문의 : 010-8969-9444 (지암스님) / 010-7225-8426 (명혜스님)

불자라면 매순간이 결제요 해제다

보운사 일요법회- 주제: 진정한 해제는?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은 2월 22일 동안거 해제를 맞아 불자들에게 일요 초청법회서 2월 20일 '진정한 해제'를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 불자들이 맞이할 진정한 해제는 건곤(乾坤:하늘과 땅)을 확 뒤집으며 일체 중생을 출 삼계(出三界)하여 여해도전(如解倒懸: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주는 것)하여야 합니다."라며 "우리는 매 순간이 결제요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인연사에 최선을 다하되 마음은 항상 뿌리인 불성으로 향하고 불성(佛性)에 안주해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법진 스님은… 1967년 해인사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1968년 조계종 해인승가대학을 졸업했다. 1977년 보운사 회주, 1978년 한국불교태고종 남허 스님께 입실, 1996년 수다원 원장, 2004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2009년 태고종 서울남부종무원장, 2012년부터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로 있다.

결제(結制)는 무엇이 결제이고 해제(解制)라 하면 어떤 것을 해제라 할까요?

본래 결박하지 않았거늘 어찌 결제라 하며, 또한 본래 결박이 없으니 풀 것도 없거늘 무엇을 해제라 하겠습니까? 걸망 내려놓고 좌대에 편히 앉는 것을 결제라 하고 무거운 걸망지고 유람 길을 걷는 것을 해제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척사륜직하수(千尺絲綸直下垂)
천척이나 깊어 아무리 찾아 간곳 없고.
일파자동만파수(一波?動萬波隨)
한 생각 지우려니 만 생각 꼬리를 치네.
야정수한어불식(夜靜水寒魚不食)
알고보니 본래 한물건도 건질 것 없거늘
만선공재월명귀(滿船空載月明歸)
밝은 달이나 가득실어 고향찾아 갈거나.

결제 해제라 하면 우선은 선방에 입방해 안거 하는 것을 떠 올립니다. 안거는 동안거 하안거로 나뉘는데 동안거가 안거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거동안은 수좌 스님들이 은산철벽(銀山鐵壁) 같은 굳은 의지로 화두를 안고 씨름을 합니다. 추위와 더위 아랑곳 하지 않고, 일대사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화두타파에 전념합니다.

화두에는 1700공안이 있으며 이중에는 조사선(祖師禪) 여래선(如來禪), 간화선(看話禪)등의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어찌 1700백 공안만 있겠습니까?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모두 화두 인 것을요. 화두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며 불입문자(不立文字)이며 심행처멸(心行處滅)입니다. 왜냐하면 화두는 근거나 원천이 없으며 그 자체가 진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체용(體用)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시불심(禪是佛心: 부처님마음)이요. 교시불어(敎是佛語:부처님 말씀)며, 율시불행(律是佛行부처님행)이라고 하여 제반 수행자가 모두 근습(勤習)하는데 유독 결제 해제에 선승을 위주로 한 것도 그 자체가 성불의 체(體)가 되고 용(用)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화두 동기를 들면, 선객이 제일 많이 무거웁게 걸망 가득히 담고 다니는 화두는 무(無)자 화두입니다.

어느 납자(선객)가 있어 조주스님과 대화도중 개가 한 마리 지나가니 납자가 말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스님께서는 "무(無)"라고 답했습니다. 누가 조사 스님께 여쭙기를 여하시불(如何是佛)입니까? 하니 사왈 간시궐(乾屎 마른똥 묻은 나무)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뜰앞에 잣나무)라는 말 등등 화두에 얽힌 얘기는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일러 글 자체는 격외구(格外句)라 하며 이렇게 알려 전하는 것을 격외별전(格外別傳)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일반불자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두는 '이 뭐꼬?'(이것이 무엇일고)또는 판치생모(板齒生毛:판데기 이에 털이 난 것(곰팡이)등입니다. 납자는 이 말을 받아서 '왜'라는 의문사를 탐구 하는 것이 결제 간 공부하는 것이며 해제라는 것은 공부 한 것이 올바른지 잘못됐는지 선지식을 찾아 보림(普任)하는 것입니다.

"본래 결박치 않았거늘 어찌 결제라 하며, 본래 결박이 없으니 풀 것도 없거늘 무엇을 해제라 할까요?"

선을 하는 사람은 천지가 개공(皆空)하도록 화두를 잡든 망상을 쫓든 아니면 번뇌 속에라도 푹 빠져 보아야 합니다. 독경 하는 사람 또한 삼라만상 이 모두 경으로 되 석여서 혼연일체(渾然一體)되어 조박(糟粕)이 아닌 감로수를 맛 봐야 합니다. 염불을 하는 사람도 대적삼매(大寂三昧)에 들어 시 공간(時 空間)초월하고, 계를 섭률(攝律)하는 율원에서는 비불지언(非佛之言:부처님 말씀이 아님)이면 말하지 않고 비불지행(非佛之行:부처님의 행이 아님)행하지 않는 철저한 계행으로 오탁악세를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호통재(嗚呼痛哉)란 말처럼 슬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시간은 면역백신이 없어 전등석화(電燈石火)처럼 빠르니 통전심부(痛纏心腑: 가슴을 여메는듯)입니다.

우리는 화두를 받고 여잠처견(如蠶處繭: 고치속의누에) 수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 조사 스님들은 가차없이 경책을 하셨습니다. 남악 회양선사의 마전성경(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의 일화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당나라 현종의 개원중에 도일이라는 스님이 남악의 전법원서 매일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양선사는 그가 훌륭한 법기임을 알고 가서 물었지요. 대덕은 왜 좌선을 합니까? 도일 스님이 답했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남악 회양선사는 곧 벽돌을 가지고 암자 앞의 바위에 앉아서 갈기 시작했습니다. 도일 스님은 이것을 보고 물었지요.

"선사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남악 회양선사는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일이 반문했습니다. "벽돌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선사도 곧 반문했지요. "그대가 좌선을 한다고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도일 스님이 재차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선사가 되물었습니다. "사람이 수레를 몰고 갈때 수레가 나아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겠습니까? 소를 때려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도일 스님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남악 회양선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는 좌선수행을 합니까? 아니면 좌불을 배우는 것입니까? 만약 좌선 수행을 한다면 선은 좌와에 있지 않는 것이고, 또 좌불을 배운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무주법에서 취하고 버리려는 차별심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대가 만약 좌불을 배운다면 그것은 부처를 죽이는 일입니다. 또한 만약 좌선하는 상즉 모양에 집착한다면 불법의 참된 이치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도일 스님은 남악 회양선사의 교시를 듣고 마치 달콤한 우유를 마신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보듯이 우리 불자들은 좌선 수행을 할 때 좌선이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수행이 성품을 확연히 보고 닦는 것인지 자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립해 화두로 경계를 대치하며 점진적으로 닦아가야 합니다.

결제때 또는 날마다의 수행할 때 드는 이 화두는 색즉시공(色卽是空)이며 공즉시색(空卽是色)입니다. 또한 부증불감(不增不減)이며 불구부정(不垢不淨)인 시공(時空)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이 맞이할 진정한 해제는 건곤(乾坤:하늘과 땅)을 확 뒤집으며 일체 중생을 출 삼계(出三界)하여 여해도전(如解倒懸: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주는 것)하여야 진정한 해제인 것입니다. 교외별전의 열반묘심을 맛보는 진정한 해제를 맛보시길 발원드립니다. 수행에는 본디 시작도 없거늘 끝이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중간이 있겠습니까?

"큰 원력을 갖고 주어진 인연사에 최선 다하며 마음을 불성에 안주해 있어야 합니다"

蠶蟲(누에)는 사생을 산다고 합니다. 고치서 알로, 알에서 굼벵이로 또 나방으로 됩니다. 그럼 어느 것을 일러 해탈이라 하겠습니까? 기한동뇌(飢寒凍?)아니라면, 누에는 사생이 다 만족한 것입니다. 사생육도(四生六道)를 사의순환(似蟻巡環)하는 것이 고통인줄 모르기 때문이며 현존하는 그대로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모기가 쇠로 만든 소 잔등이를 부리로 뚫듯이, 망상을 쫓고 또 쫓기고 하다보면 쥐가 고양이 한테 쫓겨서 도망가다 갈 곳 없는 막다른 곳에 부딪히면 역으로 고양이를 물어뜯는 호시절 호소식이 있을 때 진정한 해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찬 스님의 신심명(信心銘)에 이르시기를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취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바세계는 삼독(三毒: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치성하여 언제나 안팎이 불안합니다. 경쟁, 갈등, 두려움, 전쟁 등으로 편안하게 쉴 날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의 현상만을 좇아가기 때문입니다. 무한탐욕, 무한경쟁, 무한개발 등등 말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속의 우리들 마음도 바쁩니다. 지고 쳐지면 죽는다는 생각에 끝없이 달려야 합니다. 수조실종(隨照失宗)입니다.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는 깊이 사유해 보십시오. 우리불자들은 귀근득지(歸根得旨), 이 말씀을 잘 새겨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되 마음은 항상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근본(중도본성)으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재앙과 고난은 마음이 삼독으로 찌들어 끝없이 밖으로만 치달을 때 생깁니다. 이제는 세계인들도 알아야 하고 알려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뿌리로 마음을 돌려볼 때 그 속에 모든 성(聖)스러움과 평화, 자비, 무한생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깥으로는 필경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노병사(生老病死) 생주이멸(生住離滅)의 무상(無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매 순간이 결제요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인연사에 최선을 다하되 마음은 항상 뿌리인 불성으로 향하고 불성(佛性)에 안주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큰 원력을 갖자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확실히 믿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공부하고, 내 주변부터 신실한 불자로 인도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수행해야 합니다. 간화선, 위빠사나, 수식관, 염불, 간경 등등 어느 수행방편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수행의 과정과 결과는 귀근득지(歸根得旨),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매 순간 이러한 마음에 안주하고 매 순간 이와 같은 불행(佛行)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위대한 문수행자요, 보현행자요, 관음행자요, 지장행자인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취를 잃는다는 고언을 깊이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선센터 선수행학교 5기 수강생 모집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심신을
지켜주고 무너진 균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선으로 평온의 세계에 이르는 수행의 시간

개강일 2016년 3월 9일(수요일) 매주 수요일 14시 ~ 16시
(언제든지 접수하세요~)

강 사 세계선센터 선원장 수진스님 직접 지도

참가비 4개월 (10만원)

장 소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동명관 4층)

문 의 ☎ 051)629-3582 ~4

※ 강의 일정은 강사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세계선센터 홈페이지 : http://seon.tu.ac.kr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관허 수진 합장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동명관 4층 세계선센터

2016(불기 2560)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교과과정 안내

※아래 교육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정	불교학과		교법사과
	초급과정	중급과정	
기간	1년	1년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초발심자경문, 정토사상, 천태소자관	천태학개론 금강경 대승불교, 법화경	중관사상,육묘법문, 기신론,천태종사
자격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수업요일	월	화	수
수업시간	1교시 : 18:30 ~ 19:50 2교시 : 20:10 ~ 21:30		
서류 및 전형방법	· 입학원서 1부(5000원) · 반명함판 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서류전형
입학정원	약 200명		약 100명
수강료	1년 20만원		1년 30만원

✻ 원서접수

우면동 관문사 02.3460.5300
평택 법장사 031.655.9050
신촌 성룡사 02.336.2052
수원 용광사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02.889.7272
구리 금성사 031.563.9364
구로 명화사 02.854.0196
안양 대안사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02.496.3803
안산 월강사 031.419.5048
성남 화성사 031.745.1482
부천 천화사 032.671.5353
일산 보월사 031.905.2912
군포 상락사 031.392.0924

· 접수 : 2월 28일까지
· 면접 : 2016.3.2.(수) 오후 7시
· 장소 : 관문사 2층 면접실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전화 :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T, 관문사에서 하차)

우리 문화재 보수는 우리 손으로

국립중앙博, 쾰른 소장 고려불화 등 보존처리

외국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재의 보존처리를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시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는 2월 17일 "독일의 쾰른 동아시아박물관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문화재는 쾰른동아시아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를 포함한 불화 4점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 백납도(白衲圖) 8폭 병풍 1점 등 모두 5점이다.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소장품의 보존처리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2017년 3월까지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와 조선시대 석가설법도(釋迦說法圖)를, 2단계로 2018년 10월까지 고려시대 비로자나삼존도(毘盧舍那三尊圖)와 조선시대 시왕도(十王圖)의 보존처리를 한다.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 백납도 병풍은 지난해 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 반입돼 오는 9월까지 보존처리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개최될 '도시미감-조선후기에서 근대까지' 기획전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외국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2011년 영국박물관 소장 조선불화 등 2점의 회화를 보존처리한데 이어 두 번째다.



쾰른동아시아박물관 소장 고려 수월관음도. 2017년까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존처리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문화재 대부분이 외국 전문가에 의해 보존처리되면서 한국적 색채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전통이 바르게 이어지고 알려지도록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가장 정교한 '삼국유사' 해설서 발간

연세대, 파른본 '삼국유사' 교감 내놔

고려 이체자 연구에 도움



기존의 〈삼국유사〉의 오류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파른본의 해설서가 발간됐다.

연세대는 "파른본 〈삼국유사〉 교감을 발간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 파른본 〈삼국유사〉는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한 故 손보기 교수가 소장해 오던 것으로 2013년 유가족이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했고, 2015년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1866호로 지정됐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조선 초기본을 토대로 1512년(중종 7) 경주부에서 간행된 임신본 '삼국유사'가 활용되었는데 글자의 이동(異同)이 많은 편이다.

파른본은 이보다 앞선 조선 초기 판본으로 특히 파른본 '왕력'은 임신본의 착오와 혼란을 교정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이 많고, 다양한 이체자들(石, 災, 儉 등이 다른 글꼴로 판각됨)이 사용되고 있어서 고려시대 이체자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삼국유사 조선 초기본은 학산본, 범어사본, 석남본, 니산본, 조정업본, 파른본 6종이 있다. 대부분 결락부가 있지만 파른본은 왕력, 권1, 권2에 결락 없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연세대는 "그동안 공개된 조선 초기본은 범어사본(권4, 권5) 뿐이었는데, 금번 파른본(왕력, 권1, 권2)의 공개는 학술적 의의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파른본의 공개를 통해 임신본의 몇 가지 글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교정함으로써 번역이 달라지고, 그 결과 사회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고대사, 불교학, 서지학, 언어학, 민속학, 고전문학, 문자학 등 연구에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전통사찰 역사 · 식생 · 건축 '한눈에'

조계종, '한국의 전통사찰' 전수보고서 발간



전통사찰은 불교 수행과 신행의 공간이자 건축 · 조각 · 회화 · 공예 등 유형문화유산과 의례, 민속풍습 등 무형문화유산이 내재된 곳이다. 그만큼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크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전통사찰의 면모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전수조사보고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통사찰 전수 조사 사업의 첫 보고서인 〈한국의 전통사찰〉을 발간했다. 총 3권으로 이뤄진 보고서에는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3개 광역시도 전통사찰 144개소가 지역별로 분류돼 수록돼 있다. 해당사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보니 3권의 분량만 2330페이지에 달한다.

조계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통사찰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2014년부터다. 앞선 2013년에는 전수조사를 위한 예비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3권의 보고서는 2014년에 조사된 부산, 울산, 경남도 지역의 전통사찰에 대한 기록들이다. 1권에는 부산 · 울산 · 경남 거제 · 거창 · 고성, 2권에는 김해 · 남해 · 밀양 · 사천 · 산청 · 양산, 3권에는 의령 · 진주 · 창년 · 창원 · 통영 · 하동 · 함안 · 함양 · 합천의 전통사찰이 조사 · 소개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사를 비롯해 건축, 식생, 성보, 부동산 등 해당 사찰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들이 수록됐다는 점이다. 역사 부분에서는 사적비 · 중수비를 비롯해 각종 문헌자료를 정리해 연혁을 정리했다. 또한 설화, 의식, 인물, 사건 등을 함께 조사해 수록했다.

전수 조사 사업 첫 보고서
부산 · 경상권 전통사찰 망라
3권에 걸쳐 144개소 정리해
식생 조사 첫 실시 의미 커

사찰에 소장돼 있는 성보문화재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물론 광복 이전과 이후에 조성된 성보문화재현황을 표로 정리했다.

건축 현황도 파악이 용이하다. 사찰 배치도의 경우 전자지도와 항공 촬영 이미지를 겹쳐서 배치 형태에 맞게 재작성했다.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항공사진을 사찰별로 수록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전각의 보존 상태와 보존 가치까지 정리해 향후 보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사찰 부동산 조사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는 물론 항공사진과 지적정보를 비교해 사찰 토지와 건물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사찰 주변 식생 조사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최초로 시행됐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는 문화재 인식이 점(點)단위에서 면(面)단위로 확대됐음을 시사하며, 전통사찰의 전각뿐만 아니라 주변 산림과 조경까지 주요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식생조사는 사찰림의 분포와 기능에 대한 조사, 경내 수목을 중심으로 한 조경 조사 등을 시행했다"면서 "특히 사찰림은 주요 경관 및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한 방재 측면을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와 아나키즘은 쌍둥이처럼 닮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주장

18세기 등장한 아나키즘은
세계관 · 이론 등 불교와 유사
"아나키즘 핵심 상호부조론
붓다 연기론과 맥을 같이해"



아나키즘(Anarchism)은 일반적으로 '무정부주의'로 통용된다. 하지만 아나키즘은 정치적 지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지배를 부정하고 의문에 붙이려는 사상 조류다. 지배라는 행위를 상대화하려는 사상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이것이 사상적 조류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다.

1960대를 지나면서 사라진 이데올로기로 인식됐던 아나키즘은 현대사회에 오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각종 시민사회운동의 뿌리로서 아나키즘이 거론되고 있으며, 자치 공동체 운동, 아나키즘 문예론 등이 논의되는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사진〉가 2월 18일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불교와 아나키즘을 비교 · 해석한 것은 눈여겨 볼만 한 부분이다.

방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아나키즘과 불교의 세계관, 지향 가치 등을 비교했다. 먼저, 다양한 아나키스트 학파들이 공통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자연론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붓다의 연기론과 연결했다. 아나키즘의 자연론적 세계관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사회적 조화 속에서 살 수 있기 위한 모든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 교수는 "자연론적 세계관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연기론"이라면서 "불교와 아나키즘 세계관의 공통점은 모든 존재와 현상을 '의존적 상호 발생'으로 본다는 점이다. 나와 타인, 개인과 집단 등 삼라만상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나키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상호부조론'에 대해 방 교수는 가장 적극적으로 불교적 해석이 가능한 이론임을 분명히 했다. 크로포트킨이 주장한 '상호부조론'은 인류의 생존은 상호 협력에 의해 이뤄졌고, 갈등보다 협조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방 교수는 "상호부조론에서 불교 자비사상의 채취를 흠뻑 느낀다"면서 "상호부조론은 붓다의 연기론의 변용이고 화엄사상의 한 지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호부조론은 붓다의 연기법과 자비사상은 완전한 동일 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나키즘에 깊게 내재된 '공동체'에 대해서도 방 교수는 주목했다. 그는 "불교의 연기론과 자비 사상에서 보면 아나키즘의 공동체 정신은 붓다의 평등 사회의 또 다른 표현"이라면서 "오늘날의 정의나 불평등 문제는 대부분 '재화의 공정 분배'에 치중돼 있다. 불교의 정치철학에서 평등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주요 국보 · 보물에 방재 단말기 보급

6월까지 시범 도입 후 확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문화재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신고, 안전점검, 순찰관리 등의 주요 기능을 탑재한 '문화재 방재단말기'를 도입 · 운영한다.

문화재 방재단말기에는 △전화 또는 사진 전송을 통한 비상신고 △방재설비 안전점검 결과 입력 △방재교육 자료 내려받기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태그 기능을 이용한 순찰기록 관리 기능 등이 탑재돼 있다.

종래의 다른 재난현장에 보급되던 단말기가 비상시 상황전파 기능에 집중했다면, 문화재 현장에 도입되는 단말기는 평상시 안전점검, 순찰 등 예방관리 활동에 최적화된 기능을 추가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보은 법주사 등 문화재 현장 10개소에 시범적용 후, 모든 국보 · 보물 목조문화재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방재단말기 도입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여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범패 · 작법무 · 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3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범패 · 소리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2시 ~ 3시 10분)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 · 무용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3시 30분 ~ 5시)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6년 2월 ~ 2016년 3월 9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사교과에서 활안큰스님 "석문의범" 특강이 있습니다.
◇원서교부 : 2016년 1월 15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6년 3월 2일 수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천도재의식 및 권공의식
◇원서교부 : 2016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6년 3월 3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마음의 등불 밝혀 온 생명에 빛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12~14일 ‘한마음촛불재’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평안과 안녕을 안겨준다. 촛불재 의식을 통해 마음의 빛을 스스로 반조하고 온 세상을 위해 발원하는 시간이 열렸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 이하 부산 한마음선원)은 2월 12일~14일 ‘한마음 촛불재’를 개최했다.

12일 촛불재 입재식에는 부산 한마음선원 지원장 혜도 스님과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입재식을 시작하며 사부대중은 대행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며 촛불재에 대한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겼다. 이어 초에 하나씩 불을 붙였다. 마음을 밝히듯 빛나는 초를 바라보며 ‘자성본래불’을 외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이어 생축등과 영가등을 환하게 밝혔다. 사부대중은 점등된 등을 바라보며 ‘마음의 불씨’, ‘푸르게 살라’, ‘대장부’ 등 선법가를 부르며 큰 스님의 뜻을 되새겼다.

대행 스님의 촛불재 법문을 대독한 혜도 스님은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칠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빛나고 있는 마음 근본자리와 우주 삼세제불 부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자신의 마음 자리를 믿고 지켰을 때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참가한 사부대중들도 자신의 마음에 촛불처럼 환한 빛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알았고 본래 밝아 있는 부처임을 다시금 재인식하는 계기이자 재발심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진(66) 신도회장은 “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주변을 밝히듯 저 자신도 정진함으로 밝아져 제 주변과 자손, 조상

부산지원 사부대중 2000여명 참석

오전 천도재, 오후 촛불 의식 진행

1980년부터 대행 스님 유지 계승

님, 이웃도 밝히고 온 세상을 밝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개인적인 바람은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시국이 어려우니 저희들의 마음 공부가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시작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청년 불자 강성식(36) 씨는 “개인적으로는 직장 관계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 가족의 애틋함을 더욱 느끼는 시간들이다. 그래서 올해 촛불재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더욱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며 “또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흔들림 없는 대장부로 나아가는 발심의 시간, 전환의 시간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마음촛불재는 모든 신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영가의 마음자리와 후손들의 마음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되새기고 다 함께 정진하는 시간이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마음자리를 통해 영가와 후손들이 함께 밝아진다는 의미다. 또한 밝아진 마음으로 가족, 이웃,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빛내겠다는 의지로 등을 올리기도 했다.

한마음촛불재는 1980년 대행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됐다. 시작 당시 대행 스님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이런 저런 이유로 살기가 무척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사람 모두에게 마음을 밝히는 의식이 있어야 겠다”고 강조했다. 마음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식의 필요성을 역설한 대행 스님은 3년 동안 친히 축원과 법문을 진행했다. 하성미 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2월 12~14일 ‘한마음촛불재’를 봉행했다.

은해사 불교대학 11기 졸업식

2월 13일 경내 육화원서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 불교대학(학장 돈관 · 은해사 주지)이 11기 졸업식을 2월 13일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은해사 부주지 보월 스님과 포교국장 묘청 스님, 기획국장 지봉 스님, 연수국장 서현 스님, 교무국장 지공 스님과 송오생 은해사 신도회장, 서숙자 불교대학 동문회장, 양남석 은해사 포교사회장, 영천기관 단체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기 졸업생 35명과 수료생 2명에게 졸업장과 수료장을 수여했다.

은해사 부주지 보월 스님은 “부처님의 진리가 헛되지 않게 그 동안 2년의 배움 과정을 발판삼아 사유하고 명상하여, 지혜로운 내 삶의 양식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이웃이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불국정토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졸업생들은 이날 포교원장상, 학장상 등 많은 상장 수여가 있었고 ,은해사에 대형 에어컨을 기증하고 강사 스님들에게는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그 동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하고 은해사 합창단은 ‘아름다운인연’.이란 축가로 화답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 불교대학은 2월 13일 11기 졸업식을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에서 가졌다.

3 · 1절 맞아 종교 화합 평화 기도회

2월 26일, 부산 여여선원서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6대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선 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가 2월 26일 낮 12시 부산 양정동 여여선원 대법당(인재빌딩 7층)에서 3 · 1절을 기념하는 평화 기도회를 개최한다. 올해 12회를 맞는 이번 기도회에서 6대 교단 대표 및 신도들은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고 화합의 자리를 연다.

공동선 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는 다가올 ‘3 · 1 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평화기도회를 위해 지도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33인 구성원을 새롭게 꾸렸다. 또한 다음 달 3월에는 ‘생명과 평화 포럼’을 준비해 연 4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통일 평화상도 새롭게 제정하고 연말 첫 수상자도 선정 중이다.

공동선 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는 “3 · 1 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종교 간의 화합으로 일궈진 민족운동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며 “그 뜻을 계승 해 대통합 정신, 비폭력 평화의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영화학교 ‘밀짚모자’ 명예홍보대사 위촉

대일불교조계종 총무원서

세계평화불교범종단총연합회와 자매결연한 부설 청소년영화학교 밀짚모자는 2월 3일 대구 서구 대일불교조계종 총무원 성련사(총무원장 · 주지 성련)에서 천명 아카데미 후원회(학회장 천명)와 함께 명예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혀 주는 봉사활동에 참여 한 대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청소년영화학교 이사장 성련 스님, 이사 팔공산 구룡사 주지 구룡 스님과 은혜사 주지 일공 스님 등 대중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청소년영화학교 밀짚모자 명예홍보대사 위촉에는 장보겸(대구 수성구)외 24명이 명예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남 몰래 전한 자비행, 차가운 겨울도 ‘따뜻’

길상사 성현덕회 자비나눔봉사 실천

경남 김해 길상사(주지 혜수)가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어 화제다.

김해 길상사는 2월 16일 지역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길상사에서 장학금을 전달한 학교는 신명초, 분성초, 구지초, 삼계초, 구산초이며 6학년 졸업을 맞은 총 25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생은 대부분 학교에서 선정했으며 차상위 계층 및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생활에 모범을 보인 학생들로 구성됐다.

길상사 장학금 전달은 지난 5년 동안 빠지지 않고 진행됐다.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130여 명에 이르며 장학금은 모두 길상사의 봉사단체 ‘성현덕회’가 주도해 모금했으며 신도 및 스님의 십시일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현덕회’는 길상사 주지 혜수 스님이 지역 내 나눔 및 봉사활동을 위해 2011년 창립한 신행 봉사 단체이다. 성현덕회는 장학금 전달 외 매달 요양병원을 방문해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봉축을 맞아 연등 2000여개를 직접 제작해 병원을 방문하고 위로연을 진행하며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않는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6월에는 경로 잔치, 12월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김장 나누기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주지 혜수 스님은 “지역에 자비행을 실천해 따뜻함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성현덕회를 창립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비행을 권선하기 위해서다”고 했다. 또 “여의주를 혼탁한 물에 넣으면 물이 맑아지듯이 먼저 실천한 자비행이 영향을 주고 사부대중이 나눔에 앞장서는 움직임이 있어 그게 가장 큰 성과다”고 말했다.

앞으로 길상사는 ‘성현덕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길상사 성현덕회에서 활동하는 간사(왼편에서 3명)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역할극으로 답답한 속 시원하게”

금정구노인복지관, 시니어 소시오드라마 팀 모집

사회복지법인 범어 금정구노인복지관(관장 조수경)이 어르신들을 위한 소시오드라마 활동팀을 모집한다.

소시오드라마는 역할 심리극을 통해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노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60세 이상 남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2월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3월~12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 30분이다. 활동은 주로 금정구노인복지관 관내에서 진행되며 드라마 팀은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소시오드라마 교육 및 훈련, 임파워먼트활동, 소시오드라마 공연 등을 펼친다.

금정구노인복지관은 “표현을 제대로 못해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이야기를 역할극을 통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문제와 대화방법을 모색해 보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051)792-7200 하성미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광주 불교단체 공모사업 본격 '시동'

빛고을나눔나무 2016년 선정사업 발표



지난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실시한 공모사업 '두 바퀴로 만나는 부처님 세상'.

총 11개 단체에 2000만원 지원
청소년, 불교문화 사업 등 다채
2월 23일 지원금 전달… 3년째
"불교단체 활성화 도움되길" 당부

광주지역 불교단체들을 위한 공모사업이 확정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할 불교단체 공모사업을 지난해 말일까지 접수해 총 11개 단체에 2000만원의 지원금을 확정했다. 불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온 공모사업은 올해 3년째를 맞아 다양한 계층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가 진행하는 '두 발로 만나는 부처님 세상'은 청소년들이 광주천에서 섬진강까지 자전거를 타고, 직접 제작한 부처님오신날 깃발을 매달아 트레킹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 동원사(주지 지장)의 '나무숲 어린이 수계산림'은 어린이 포교가 열악한 지역 여건을 반영, 사찰과 친근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수계를 통한 스님과 인연 맺기, 수계기념 꽃동산 조성 등을 진행한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도 '광주소년원생들을 위한 불교문화잔치'를 연다. 연등 만들기, 위문공연, 선물전달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작은 잔치가 사회적응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광주전통등공방(단장 혜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이 실시하는 '지화연꽃과 목단꽃 강습회'가 매주 광주불교회관에서 열린다. 연잎 등 간단한 전통소재로 꽃을 만드는 강좌는 어린이와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법회프로그램으로 보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방 측은 "매주 참가를 원하는 사찰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무료로 강좌를 개최해 사찰과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린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의 '광주시민사회단체에 전하는 붓다의 떡공양'과 광주시청불자회 '떡나누기', 광주지방경찰청불자회의 '점등식'이 봉축을 맞아 광주시민과 공무원 불자들에게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이 중 3년째 이어져온 '붓다의 떡공양'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50곳에 부처님 생일떡을 만들어 전달하는 행사로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불교홍보를 위한 광주불교산우회(회장 김등수)의 불서 나누기, 광주불교방송의 '희망캠페인' 등도 진행된다.

빛고을나눔나무는 2월 23일 지원이 확정된 11개 단체에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각 단체에 통보했다.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혜공 스님은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역적 한계와 불교단체의 미비한 활동이 아쉽다"며 "장기적으로 지역 불교단체가 바로서야 불교계 활동과 지역사회 협력사업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나눔나무는 지난해에도 15개 단체를 선정해 총 2000만원의 지원금을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국대학교 **신입학 주요사항**

수시 학생부 위주(종합) 전형 모집인원 확대 : 157명 증원
2016년 615명 ⇨ **2017년 772명**

수시 모집 비율 확대
2016년 55% ⇨ **2017년 60%**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 학생부 반영과목 축소
2016년 12과목 ⇨ **2017년 10과목**

수시 Do Dream 학교장 추천 전형 신설

정시 수능 반영 비율 변경
인문계열/예체능계열II : 수학(20%→25%), 영어(30%→25%)
자연계열 : 과학탐구(20%→25%), 영어(30%→25%)

광주 재가불자 큰별 정의행 법사 별세

국립 5 · 18민주묘지에 안장



광주지역 유명한 불교활동가이자 시민사회단체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며 수십 년간 사회 참여와 생명 평화운동을 펼쳐온 정의행 법사〈사진〉가 향년 5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정 법사는 지난해 9월 발병한 급성 백혈구암으로 화순전남대병원 항암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병세가 악화돼 2월 16일 밤 숨을 거뒀다.

1958년 전남 순천 출신인 정의행(본명 정철) 법사는 한때 봉선사 조실 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가 환속한 뒤 공단 노동자로 생활하던 중 5 · 18광주민주항쟁과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했다 투옥되기도 했다.

1984년 무등민족문화회 참여를 시작으로 민중불교운동과 불교 계몽운동을 진행했다. 광주불교교육원 설립,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 평화행동 '한걸음더' 등을 만들어 교육과 평화운동에 전념했다. 문빈정사 청년회, 유마거사회 지도법사와 명상모임(위빠사나) 광주전남수행자모임 지도법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바지출판사를 운영하면서 33세 때 '한국불교통사'를 시작으로 저술과 번역서 20여 권을 출간했으며, 올해 초에는 광주불교연합회가 선정한 '빛고을 불자대상'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에 참여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가족 지원, 세월호 인양 촉구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하며 느낀 단상들을 담은 시집 〈노란 리본〉을 출간하기도 했다.

장례는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을 상임장례위원장으로 불교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함께 '평화운동가 의행(정철) 법사 민주시민장례위원회'를 결성해 18일 오후 8시 추도의 밤, 19일 오전 10시 노재(5 · 18민주광장), 11시 30분 영결식을 진행하고, 국립 5 · 18민주묘지에 안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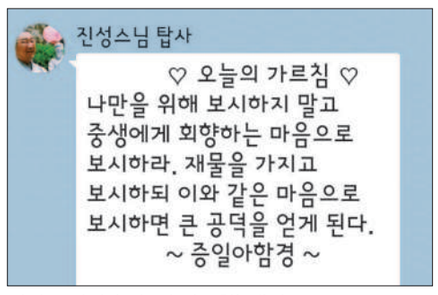
SNS '오늘의 가르침' 1000회 맞아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SNS로 불자들과 소통

진안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불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한 '오늘의 가르침'이 2월 10일로 1000회를 맞았다.

대표적인 SNS인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를 통해 불자들에게 전달되는 진성 스님의 '오늘의 가르침'은 〈법구경〉 〈아함경〉 등의 경전내용과 조사스님들의 어록, 사찰 법회 및 봉사활동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진성 스님은 "처음 나를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인터넷과 SNS로 연결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며 "처음에는 불교TV의 부처님 말씀을 공유하다가 〈천수경〉 〈법성게〉 〈부모은중경〉 〈증일아함경〉 등 경전내용을 매일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록해 1:1로 보내게 된 것이 어느덧 1000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진성 스님의 '오늘의 가르침' 캡처.

2013년 5월 17일 처음 시작한 '오늘의 가르침'은 불자들 사이에서 점차 호응이 높아져 현재 소식을 받는 이가 300여 명을 훌쩍 넘겼다.

"사이버 전법은 시대적인 포교방법"이라는 진성 스님은 앞으로도 인터넷과 SNS를 활용해 사이버 전법단 같이 불법홍포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사상 확산에 적극 나서자"

전주 화엄불교대학 27기 졸업식… 졸업생 76명 배출

전북의 대표적인 재가불자 교육기관인 전주화엄불교대학(학장 성우, 금산사 주지)은 2월 14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불기2559학년도 졸업식을 봉행했다.

화엄불교대학은 올해 불교대학 27기 76명, 학림원 22기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1년간 불교 기초교리와 경전공부, 실참수행, 각종 봉사활동 등의 정규과정을 이수했다.

성우 스님은 졸업사에서 "지난 1년간 공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해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김길천 불자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강철기 · 강미자 · 이경선 불자가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졸업하는 5쌍의 부부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학장 성우 스님, 포교국장 지월 스님, 기획국장 화평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정상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신행단체 임원 및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전주 화엄불교대학은 2월 14일 불기 2559년도 졸업식을 봉행했다.

한편, 남원불교대학과 전북불교대학도 2월 17일과 21일 각각 졸업식을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종합복지관, 올해 첫 어르신 생신잔치

복지관 이용 어르신 100명 초청해 축하공연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 스님)이 올해 첫 어르신 생신잔치를 열었다.〈사진〉 2월 17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어르신 생신잔치는 고창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어르신 생신잔치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 중 1월과 2월 중 생신을 맞은 65세 이상 어르신 39명을 포함 1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해 흥겨운 잔치한마당으로 열렸다. 송보경 외 2명의 줌바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생일잔치는 생일떡 케이크 자르기, 선물증정, 축하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다.

대원 스님은 "생일을 맞은 어르신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의 자리가 어르신들의 삶에 즐거움과 행복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일을 맞은 김인술 어르신은"가족처럼 생일을 알아주고 챙겨줘 고맙다"며"오늘 생일을 준비한 복지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참성품 보고 대자유인 되시기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大抱沙界非爲有〈대포사계비위유〉요
細入微塵豈是無〈세입미진기시무〉리요
昔日靈照親携處〈석일영조친휴처〉에
明月淸風 五湖〈명월청풍편오호〉로다.

크게는 사계(沙界)를 포용함이나, 있음이 아님이요. 가늘기는 티끌 속에 들어감이나, 어찌 이 없으리요. 옛적에 영조(靈照)가 친히 잡은 곳에 밝은 달, 맑은 바람 오호(五湖)에 두루함이로다.

금일은 또 다시 동안거 해제일이라.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結制)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언 해제일을 맞이함이라.

이처럼 세월은 쏜 화살보다 빠르고 손가락을 퉁기는 것보다 빠르니 인생도 또한 그러해서 어느 결에 칠십이 되고 팔십이 되어 병고가 닥쳐오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때는 누구라도 후회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해제일인 금일 대중 모두는 다시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지를 살피고 살펴야 할 것이로다.

수행하는 이들은 세속의 즐거움은 뒤로하고 감상적인 정리(情理)는 멀리해서 오직 끝없이 반복되는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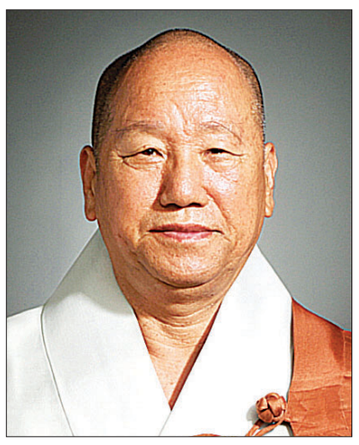
중생들은 숙생(宿生)의 습기(習氣)와 업식(業識)이 수미산과 같아서 간화참선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조석(朝夕)으로 대오견성을 발원하고 구경각(究竟覺)에 이를 때 까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철두철미한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야 한다.

참선은 좌복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오고하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각자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하여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다보면 화두가 무르익어 몰록 진의심에 들게 된다.

이때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잠깐 앉아 있어도 밤낮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몇 달이 가버려서 시간도 잊고 공간도 잊고 외부 인식도 잊어버리는 가운데 화두만이 성성(惺惺)히 시냇물이 밤낮으로 쉼 없이 흐르는 것처럼 끊어짐이 없이 이어가다 홀연히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화두가 타파되어 참성품을 보게 된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천불만조사(千佛萬祖師)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장부가 되어 천하를 횡행(橫行)하는 대자유인(大自由人)이 되는 것이다.

석일(昔日)에 용아(龍牙) 선사께서 처음 취미



(翠微) 선사를 참배하여 물으시기를,

“어떤 것이 달마(達磨)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시니, 취미 선사께서 답을 하시기를,

“선판(禪板)을 나에게 가져 오너라.”

하셨다.

용아 선사께서 선판을 가져와 취미 선사께 드리니, 취미 선사께서 잡아서 문득 때리니, 용아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도안(道眼)이 밝기는 하나, 아직 조사의 뜻은 없도다.”

〈중략〉

산승이 28세 때에 묘관음사에서 향곡(香谷) 대선사를 모시고 지냈는데, 견처(見處)가 나서 게송을 지어 바침이라.

這箇 杖幾人會〈자개주장기인회〉아?
三世諸佛總不識〈삼세제불총불식〉이라.
一條 杖化金龍〈일조주장화금룡〉하여
應化無邊任自在〈응화무변임자재〉로다.

이 주장자를 몇 사람이나 알꼬?
삼세 모든 성인도 알지 못함이라.
한 막대기 주장자가 금빛 용이 되어
응화(應化)함이 가없이 자재함이로다.

향곡 선사께서 보시고 즉시 물으시기를,

“너 문득 용 잡아먹는 금시조(金翅鳥)를 만나서는 어찌 하려는고?”

“몸을 굽히고 당황하여 세 걸음 물러갑니다.”

하니,

“옳고, 옳다”

하시다.

석일(昔日)에 마조(馬祖) 선사 회상(會上)에서 마조 선사께서 법상에 오르시어 법문을 하시기를,

“금시조라는 새는 구만리 장천(九萬里 長天)을 날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두 날개로 바닷물을 내리쳐 바닷물이 사십 리가 쪼개지는 위력을 가진 금시조라. 모든 대중은 문득 금시조를 만나면 어찌 하려는고? 대답을 해보라.”

하니,

등은봉(鄧隱峰) 스님이 가사(袈裟)를 둘러쓰고 법상 밑으로 들어감이로다.

부처님 출세시에 용의 무리들이 모여와서 부처님께 애원하기를,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부처님이시여! 우리 용의 무리들이 금시조에 다 잡아 먹히게 되니, 크나큰 자비로써 우리 용의 무리를 구제하여 주옵소서.”

하니, 부처님께서 가만히 관하시다,

“방편이 있나니.”

하시고는, 부처님 수하신 가사(袈裟) 홀을 풀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가사 홀을 가지고 있으면 금시조에게 잡혀 먹는 일은 없으리니 잘 간직하라.”

하셨다.

불(佛) 위신력이여! 개천개지(蓋天蓋地)로다.

부처님의 위대한 법력이여!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음이로다.

“절대 善 마음 깊이 새기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모든 악을 짓지 말고(諸惡莫作), 선을 받들어 행하며(衆善奉行),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自淨基意)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是諸佛敎).

이는 도림선사(道林禪師)가 당나라 시인이자 정치가 백거이(白居易)에게 누구나 알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착한일이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깨우침으로 그를 불자의 길로 이끌기도 했다는 〈법구경〉에 나오는 칠불통게(七佛通偈)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림이라”하였고,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선한 일을 보거든 목말라 물을 갈구하는 것 같이 하고(見善如渴), 악한 말을 듣거든 귀머거리 같이 하기를 주저하지 말라(聞惡如聾).”는 금언(金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성인(聖人)들께서는 올바르고 착함의 도덕적 기준인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공통된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은 절대 선은 뇌하수체전엽(腦下垂體前葉)의 호르몬과 같이 팽창하고 널리 퍼져나가는 기운으로 절대 악을 수용하고, 융화(融和)시켜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깨달음을 구하려는 수행자라면, 마땅히 대보리심(大菩提心)을 내어서, 선지식(善知識)을 가까이 하고, 인욕(忍辱)과 유화(柔和)를 닦아 번뇌를 모두 끊은 고요한 경지(境地)에 안주하라는 〈보살수행사법경(菩薩修行四法經)〉의 말씀과 같이 선행(善行)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행하는 동안 무수한 장애에 부딪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위로와 격려해주며,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신심을 일으키도록 도움 줄 수 있는 올바른 어진 선지식의 가르침인 선을 행하면,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의 조화와 여유가 생기며, 번뇌를 끊고, 고요한 경지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금일 자자(自恣)를 진심으로 한 수행자라면, 다음의 경구(警句)를 항상 마음다짐의 길잡이로 깊이 새겨서 실천하기 바랍니다.

信心萬善本(신심만선본)이요 和合萬福源(화합만복원)이라. 精誠萬德宗(정성만덕종)이요 孝敬萬人道(효경만인도)니라. 심심은 모든 착한 근본이요. 화합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 정성은 모든 덕의 으뜸이 되고, 효도와 공경은 모든 수행자의 도리이니라.

“생사심 잊어야 참다운 해제”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사상절처현보제(四相絶處現菩提)하고 오온공시도군미(五蘊空時度群迷)로다. 방복진주암중옥(蚌腹眞珠岩中玉)도 탁마전위합명기(琢磨轉位合明機)로다.

사상이 끊어진 곳에 보리가 나타나고 오온이 공했을 때 모든 미혹 제도하네.

조개 속의 진주나 바위 속의 옥도 갈고 닦아야만 좋은 보배 이루는 도다.

감문대중(敢問大衆)하노니 여법수행자(如法修行者)는 발명진성(發明眞性)하고 장엄불토(莊嚴佛土)하니 악재기중(樂在其中)이로다.

득무애자재자(得無碍自在者)는 차도일구래(且道一句來)하라!

양구(良久)에 “일갈(一喝)”운(云) 저 변나변(這邊那邊)에 응무소휴(應無所虧)하야사 시득(始得)다.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법다히 수행한 자는 진성을 발명하고 불국토를 장엄하니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도다.

걸림 없이 자재함을 얻은 자는 또 한 마디 일러라!

잠깐 있다가 “할”을 한번 하고 이르시되 자변과 나변에 이지러진바가 없어야사 비로소 옳다.

부운수행각(夫雲水行脚)은 요달대사위본(了達大事爲本)이요 부재결제해제지한사(不在結制解制之閑事)니 막작가두지용종객(莫作街頭之隴踵客)이어다.

자불수도(自不修道)하고 역뇌타인(亦惱他人)하면 기비대착(豈非大錯)가 성성착성성착(惺惺着惺惺着)이어다.

대저 운수행각은 일대사를 요달함을 근본으로 삼음이요 결제를 해제하는 한가한 일에 있지 아니함이니 거리에 할 일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되지 말지어다.

스스로 도를 닦지도 아니하고 또한 다른 이를 번거롭게 하면 어찌 크게 그르침이 아니겠는가? 정신 차려 살피고 살필지어다.

일념돈망생사심(一念頓亡生死心)하면 차즉명위진해제(此卽名爲眞解制)로다. 지남지북무괘애(之南之北無 碍)하야 쾌활자재자유인(快活自在自由人)이로다.

한 생각에 몰록 생사심을 잊으면 이것이 곧 이름이 참다운 해제로다.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감에 걸림이 없어서 쾌활자재한 자유인이로다.

“복 짓고 공부해야 원만한 法 성취”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결시(結時)에 결무결(結無結)하고 해시(解時)에 역무해(亦無解)로다. 결해구분명(結解俱分明)하면 행부지행(行不知行)하고 좌부지좌(坐不知坐)하여 처처진무애(處處眞無碍)로다.

맺을 때는 맺는 것이 없이 맺고 풀 때에 푸는 것이 없음이로다. 맺고 푸는 것을 모두 분명히 하면 가도 가는 것이 없으며 앉아도 앉는 것이 없어서 곳곳에 참으로 걸림이 없도다.

〈중략〉

사자굴중무이수(獅子窟中無異獸)하고 상왕행처절호종(象王行處絶狐踪)이라. 상설소래시방춘(霜雪消來十方春)하니 만화방창조남남(萬化方暢鳥n)이로구나. 사자굴 속에는 다른 짐승이 없고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 발길 끊어졌네. 서리와 눈 녹아 어디나 봄이 되니 날씨 좋아 만물이 생장하고 새들이 노래하네.

본지가풍(本地家風)에 있어서는 결제니 해제니 할 것이 없지만 깨닫지 못한 본분납자(本分衲子) 입장에서는 해제라 해서 자유스럽게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증도가〉에, “유강해섭산천(遊江海涉山川) 하여 심사방도위참선(尋師訪道爲參禪)이라.” 강과 바다에 노닐고 산과 개울을 건너서 스승을 찾아 도를 물음은 참선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설봉(雪峰) 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으로 덕산(德山) 스님의 제자인데 12세 때 아버지를 따라 옥간사(玉澗寺)에 갔다가 그길로 출가를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공부할 적에 피나는 정진(精進)을 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 투자산에 가고 아홉 번 동산에 갔는데, 그것은 삼도투자구지동산(三到投子九至洞山)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동산과 투자와의 거리가 오륙천 리나 되는 먼 길임에도 세 번이나 투자산 대동 선사와 아홉 번이나 동산의 양개 선사를 찾아가 법을 묻고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멀고 먼 길, 험하고 높은 산일지라도 멀고 험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도를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설봉 스님은 암두(巖頭) 스님, 흠산(欽山) 스님과 함께 세 분이 도반이 되어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설봉 스님은 어디를 가든지 공양주만 하여서 쌀이는 조리를 늘 가지고 다녔고, 암두 스님은 어디를 가나 채소밭을 가꾸는 원두(園頭) 소임을 맡아 괭이와 호미를 늘 가지고 다녔으며, 흠산 스님은 어디를 가나 바느질만 해서 실뭉치와 바늘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어느 처소에 가든지 설봉 스님은 공양주를 맡아 대중의 공양을 지어 올리고, 암두 스님은 채소를 가꾸어 대중의 반찬을 해올리고, 흠산 스님은 온 대중의 바느질이란 바느질은 전부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셋이 도반이 되어 다니면서 공부를 하여 마침내 세 분이 다 공부를 성취하여 후세에 모범적인 대도인(大道人)들이 되었습니다.

선종사에 있어서 최초로 대중을 많이 거느린 스님이 설봉 스님인데, 항상 1천5백 명 이상의 대중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설봉 스님께서 1천5백 명 대중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1천5백 명 대중이 모두 나의 이 조리 속에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복혜쌍수(福慧雙修)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도 짓고 공부도 해야 원만한 법(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사(先師)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공부가 될지 반성(反省)해야 될 일입니다. 수미정상무근초(須彌頂上無根草)는 불수춘풍화자개(不受春風花自開)로다. 수미산 꼭대기 뿌리 없는 풀은 봄바람이 아니라도 활짝 피었네.

“천진의 눈으로 모든 것 품기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大悲千眼淨無瑕(대비천안정무하)여
特地拈花大老婆(특지염화대노파)라
摩竭昔年迦葉笑(마갈석년가섭소러)니
現今誰是好禪陀(현금수시호선타)리오
대자비 천안은 청정해 티가 없음이여!
특별히 간절한 노파심으로 꽃을 드셨네. 마갈의 영산회상에서는 가섭이 미소 지었다는데 지금은 누가 있어 선타객이 되겠는가?

부처님께서 육년 수행정진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식들에게 묻고 배워도 풀리지 않는 한 가닥 의심은 해결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드디어 생사를 건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샛별을 보고 생사근본의 이치를 깨우치셨으니 그날이 납월 팔일입니다. 이날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무명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 부처님의 해제 날입니다. 이 자리의 수행자들에게는 정월 보름 오늘이 바로 해제 날입니다. 각자가 화두 하나를 굳게 들고 망상의 유혹과 씨름을 했습니다.

근원도 없는 번민은 까마득한 언덕도 되었다가 깊은 수렁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땐 잠깐의 희열을 느끼게 하다가 순식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념의 골짜기로 몰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의 모진 추위를 맨 몸으로 견뎌 낸 소나무처럼 그 절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오직 자신들만이 알 것입니다. 결판을 낸 사람은 청량산을 먹은 것처럼 가슴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시가 걸린 것 같을 것입니다.

그 옛 날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연꽃을 드심에 가섭이 미소 지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다른 이의 분상일 뿐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머리를 끄덕일 때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를 준비한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행자에겐 견성이 장원급제요 해제입니다.

오늘 대중은 스스로 머리를 끄덕이는 해제 날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수행자가 용맹심을 내어 온 몸을 불구덩이에 던지려 한다면 먼저 높고 험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화두를 드는 것은 인내하며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줄이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올라야 합니다. 망설이거나 멈춰서면 번민의 두려움은 더욱 거센 불길이 되어 치솟아 오릅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일념의 화두가 견고한 갑옷이라는 믿음이 섰다면 서슴없이 뛰어내려야 합니다.

소요자재는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총명함을 믿고 이치만을 따져서 이루어지는 공부가 아닙니다. 정진은 중생이라는 깊고 깊은 우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끈입니다.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수행자가 정진의 끈을 굳세게 하지 못하고서는 헛된 말장난에 불과 합니다. 시비분별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다져 나가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무명의 눈으로 저 허공을 바라보며 공허를 느꼈다면 오늘은 천진의 텅 빈 눈으로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광활함을 보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十方同聚會(시방동취회)여
皆皆學無爲(개개학무위)라
此是選佛場(차시선불장)이니
心空及第歸(심공급제귀)어다
시방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모두가 무위의 이치를 파고드네.
이 자리는 부처를 가려내는 곳이니
마음을 비워 급제해 돌아갈 지어다.

그 절집의 빛

④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오백나한상

오백나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깊은 사유, 사념에 젖은 듯하고 눈빛이 살아있다.



표정과 시선, 자세가 천태만상이다.



십대제자, 십육나한, 오백나한이 결집한 526체의 부처님 상수제자들.

지눌스님 정혜결사를 펼친 도량

나한(羅漢)은 범어 아르한(arhan)의 음역인 아라한의 줄임말이다. 아라한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을 통하여 일체의 번뇌를 끊고 수행자들의 최고 계위인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은 성자를 이른다. 공양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응공(應供)으로도 부르고, 진리에 따르므로 응진(應眞), 또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무학(無學)으로도 부른다. 불제자들은 경전에 따라 여러 숫자의 집합단위로 등장한다. 〈유마경〉에서는 십대제자, 현장스님이 번역한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에서는 십육나한, 〈증일아함경〉, 〈오분율〉 등에서는 오백나한으로 나온다. 십대제자, 십육나한, 오백나한 등은 부처님 사후 칠엽굴에 모여 아난존자가 경을, 우바리존자가 율을 암송하여 경과 율을 결집한 '1차결집'의 역사적 인물들이다. 동시에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 '수기품' 등에서 광명여래(가섭), 명상여래(수보리), 전단향여래(목건련), 화광여래(사리불), 법명여래(부루나), 보명여래(교진여 비구와 500아라한) 등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부처로 수기(授記)를 받으신 경전상의 성자들이다. 미륵하생 때까지 이 땅에 머물며 불법을 전하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역할을 부촉 받았다.

은해사 거조암(居祖庵)은 그 아라한들의 세계다. 거조암은 '조(祖)'가 머무르는 절, 거조사였다. 그런데 거조사의 '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팔공산의 아미타신앙을 바탕으로 아미타여래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불법을 전하고 정법안장하는 선종의 조사(祖師) 느낌이 강하다. 아라한의 이미지가 선종의 조사에 겹친다. 거조사의 이름과 오백나한상이 인과의 선후로 연관되어 보인다. 특히 보조국사 지눌께서 거조암에 7년간 머물면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천명한 역사적 사실을 떠올려보면 고승 조사와의 인연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거조사는 보조국사 지눌과의 인연으로 인해 한국불교사에 중요한 시공간으로 평가된다. 1190년 늦봄에 지눌은 이곳 거조사에서 "땅에 넘어진 사람,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로 시작하는 〈권수정혜결사문〉을 발표했다. 한마음을 몰라서 끝없는 번뇌 속에 있는 이가 중생이고, 한마음을 깨달아서 한없는 지혜를 드러낸 이가 부처이니 마음을 떠나서는 불교를 논할 수 없다고 했다. 지눌은 깨달음에 이르는 올바른 길로 고요함과 깨어있음으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나가는, 정혜쌍수(定慧雙修)에 힘쓸 것을 권했다. 한국불교사의 파사현정의 큰 획의 자취가 거조사에 유서깊은 인문의 향기로 남아 있는 것이다.

영산전, 해인사 장경판전 닮은 고려건축

거조암의 핵심불전은 영산전이다. 영산전의 외양은 한눈에 보기에도 흔치않은 구조다. 현존하는 고려건축에서 보이는 법식이 눈에 띈다. 벽체의 살창이라든지 단순한 주심포식 건물에서 오래된 연륜을 짐작할 수 있다. 근래 해체 수리과정에서 발견된 묵서명에 의해 1375년에 지은 고려시대 건물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영산전은 정면 7칸, 측면 3칸으로 가로로 확장해나간 장대함이 특히 인상적이다. 가로 30m. 세로 10m의 수평성이 강하고, 또 벽체의 투박한 나무 살창구조에다 단청을 전혀 입히지 않은 가식없는 백골단청의 불전이다. 여러 면에서 해인사 장경판전을 연상케 한다. 내부천정 역시 서까래 목재 그대를 노출해서 자연 그대로의 선적인 아름다움과 뼈대의 힘을 보여준다. 부석사 무량수전에서처럼 건축 전체에 간결하고 소박한 윤리적인 아름다움이 흐른다. 불필요한 것은 생략하고 꼭 필요한 요소들만 갖춘 절제된 내면이 엿보인다.

영산전은 삶의 기침소리로 가득하다. 사람의 표정을 취한 오백나한이 천태만상이다. 자유분방하고 명랑하며 왁자지껄하다. 영산전을 들어서면 공간은 삶의 애환이 밴 저잣거리 골목처럼 익숙하다. 골목을 접어들면 한번쯤은 스쳐 지났을법한 한국인들의 표정을 만난다.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에 모신 오백나한은 탱화가 아니라 석조조형이다. 10대제자, 16나한, 오백나한을 결집한 526체의 대규모 나한세계를 펼쳐놓았다. 저마다 다른 형상을 취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나한세계로 대단히 특별하고 파격적이며 세상에 보기 드문 장면이다. 운문사, 증심사 등의 오백전에도 오백나한상이 모셔져 있지만 거조암 영산전의 오백나한상과는 규모, 형식, 조형의 예술성 등에서 비교불가로 차원이 다르다.

오백나한상의 재질은 화강암으로 알려진다. 그 위에 두터운 흰색 호분을 입혔다. 신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40년전쯤 호분이 버짐처럼 벗겨졌을 때 석재가 경주흑석처럼 검은 빛을 띄고 있었다고도 전한다. 오백나한 존상에 입힌 색채도 변화를 거듭했다. 주지스님 태관스님이 필자에게 보여준 40여년 전의 칼라사진에는 모든 나한의 가사는 지금과 다르게 흰색 호분으로만 입혔고, 머리만 청색, 검정, 빨강, 초록, 노랑 등의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20년 전쯤에 새로 개칠하면서 페인트를 벗겨내고 대신 파스텔톤의 일본안료로 채색해서 형형색색의 옷차림을 갖춘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나한의 머리색은 흰색, 검정색, 회색의 무채색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점은 그 정확한 재질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제작하였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어쩌면 그 일체의 제작정황을 모르는 까닭에 더욱 신비감을 심화시키고, 사람들의 신심을 불러 일으켜서 나한기도도량의 영험을 미묘하게 지속해왔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거조암은 3일만 정성껏 기도하면 영험을 본다는 입소문이 자자해서 나한기도도량으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0대제자, 16나한, 오백나한 등 526체
영산전, 나무와 흙벽 그대로인 백골단청
고려오백나한도 14점과 순번, 존명 일치
생로병사 애환 밴 천태만상의 나한 표정

청문 의례 따른 오백나한 차례와 존명

거조암 오백나한의 불가사의한 특징은 모든 나한의 존명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즉 모두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것이다. 운부암의 영파스님이 18세기말에 허물어진 거조사를 다시 세우면서 1805년에 한 분 한 분의 존명을 밝혔다고 전한다. 오백나한상의 존명과 차례번호는 영파스님이 무학대사의 의례집을 참조하여 편찬한 〈오백성중청문(五百聖衆請文)〉 의식집에 따른 것이다. 〈오백성중청문〉은 은해사 박물관에 보관중인 40여쪽의 의례집이다. 석가모니불의 십대제자와 십육나한, 오백나한을 차례로 봉청하고 모든 이름을 밝혀두고 있다. 이 의식집에서 밝힌 나한존자의 순번과 이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중인 7점의 나한도를 포함해서 현존하는 고려 오백나한도 14점의 화제 묵서에서 밝히고 있는 순번과 존명이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놀랍다. 그것은 하나의 범례의 모듈을 갖췄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대단히 실증적인 문헌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526체의 나한은 의상스님의 210자 화엄일승법계도처럼 법계도의 흐름으로 봉안하여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인 일승불의 회삼귀일(會三歸一) 사상을 일깨우고 있다. 청문에 따른 나한의 봉청 차례를 살펴보면 후불벽 뒷벽 끝자락에서부터 '십대제자' 제1 가섭존자, 제2 사리불존자, ... 제10 부루나존자로 이어지고, '십육나한'은 제1 빈도로존자, 제2 가락존자, ... 제16 주다반탁가존자의 순서로 청하고 있으며, '오백나한'에 와서는 제1 법해존자, 제2 전광존자 순으로 봉청해서 제500 무량의존자로 매듭 짓는다. 법계의 흐름은 순환과 대칭의 커다란 나선형 구조다.

사탕, 동전, 쌀 등의 만발공양

사람들은 그 법계의 나선형을 따라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린다. 나한 앞에는 접시와 발우가 놓여 있다. 500개가 넘는 발우라서 오백나한에 올리는 공양을 '만발공양'이라 부른다. 미황사 괘불재에 만인이 올리는 만물공양만큼이나 공양장면이 재미있고 가슴뭉클하다. 한 분에게 100원동전 하나씩만 올려도 6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사정이고 보니 사탕 한 알씩 올리는 장면이 연출 된다. 발우마다에 사탕 한 알씩 올리고 합장의 예를 올리는 모습이 신선하고 재미있다. 때로는 쌀 한줌씩, 꽃 한 송이씩 육법공양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감동적인 대목은 그 회향에 있다. 공양물로 발우에 오른 사탕과 쌀은 주변의 군부대, 복지회관, 농협, 우체국 등에 회향해서 이웃의 삶에 되돌려진다. 만인에게 회향하는 대목이 인상 깊다.

거조사 영산전에 526체의 나한들이 결집해 계신다. 어떤 분은 즐겁고, 어떤 분은 심각하며, 어떤 분은 깊은 사유에 젖었다. 마치 인생의 모든 표정과 감정을 결집해 놓은 것 같다.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만나는 인생도처의 얼굴들. 인생도처의 표정들이다. 낯설지 않은 친근한 이웃들을 만난다. 저마다의 표정에는 생로병사의 애환과 깊은 탄식, 놀라움, 기쁨, 슬픔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눈빛이 살아 있다.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이다. 아라한에 앞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인연의 방편이 읽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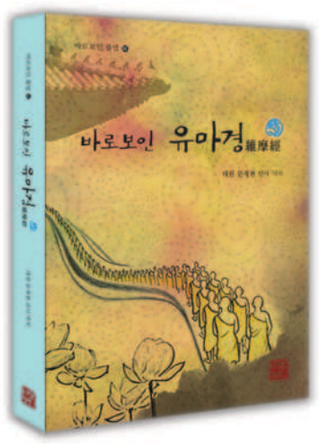
사람의 아들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아라한과의 최고계위에 올랐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여래로 수기 받으신 분들, 헤아려볼수록 감동적이고 위대한 두타행의 걸음이다. 지눌스님의 정혜결사문의 한 구절이 훈습처럼 밴다. '수심지외 무별행문(修心之外 無別行門)' 마음을 닦는 것 외에는 따로 수행하는 문이 없다. 그 절집의 빛은 만고청산 지눌스님의 빛이고, 영산전 오백나한의 빛임을 알겠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www.buddhabook.co.kr
불교 서적 | 신행 용품 | 명상 음반
붓다북
불교 종합 쇼핑몰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구입처 붓다북 02) 953-7181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뿔〉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MoonZen Press)
☎ 031-534-3373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난파선 인연이 화엄교학 발전으로

28. 중국불서 전래와 화엄 전성시대



지난 1월 9일 영축총림 통도사가 봉행한 '화엄산림 대법회' 회향식. 사진은 이 행사에 참가한 사부대중이 위패 소대봉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통도사

18세기 이후에는 이력과정을 중심으로 강원에서 강학이 매우 활성화되었다. 특히 대교과에 속한 화엄의 강경과 교학 연구가 중시되었고, 화엄 및 이력과정 교재를 대상으로 한 강의노트이자 주석서인 '사기(私記)'가 다수 저술되었다. 화엄학 유행의 계기가 된 것은 중국 불서의 우연한 전래였다. 1681년 전라도 임자도 앞바다에 풍랑으로 좌초한 중국 상선이 표착하였다. 배 안에는 사람은 없고 의문의 불서가 가득 실려 있었다. 그런데 이때 표류해 온 중국 배는 황벽판일체경(철안판) 판각을 위해 중국의 가흥대장경(가흥장) 간인본을 싣고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이었다. 가흥장은 1589년부터 약 100년간에 걸쳐 인각된 대장경으로 판각 비용 마련을 위해 인쇄본을 판매하였다. 그 가운데 일본의 새로운 대장경 조성을 위해 수출되던 한 질의 가흥장본이 태풍을 만나 조선에 유입된 것이다.

표착선에 있던 1천여 권의 불서 중 일부는 지방관아에서 수습하여 조정에 올려 보냈다. 이 책들은 숙종의 명에 의해 다시 남한산성 개원사로 보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숙종은 불교에 해박한 승지 임상원에게 불서 가운데 〈유마경〉에 대해 설명해 보게 했지만 그가 고사하였다고 한다. 그 밖의 불서들은 전라도 인근 사찰에서 수습하여 보관하였는데, 부휴계의 적전인 송광사의 백암 성총(1631~1700)이 이를 다시 수집하였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낙안 징광사와 하동 쌍계사 등에서 197권 5천여 판을 판각하여 배포하였다.

성총은 그 간행 경위에 대해 중국 배에 실려 온 불서의 태반이 조정에 유입되었지만 능가사, 소요사, 선운사 등 여러 사찰에서 책을 구해 소장하였기에 자신이 그 가운데 400여 권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가 간행한 불서는 모두 12종이었고 그 중 9종이 사교과의 〈금강기〉 〈기신론기〉, 대교과의 화엄 등 이력과정에 포함된 책들이었다. 또한 〈정토보서〉와 같은 염불 정토와 관련된 책도 직접 교감하고 주석을 붙여 간행하였다. 이는 당시 승려교육 및 삼문 수행체계가 정착되면서 이들 서책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진 현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성총이 이 가흥장 불서를 간행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중국 화엄종 4조인 당의 징관이 쓴 화엄학 주석서 〈화엄소초〉였다. 〈화엄소초〉는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징관의 주석서 〈화엄소〉와 그에 대해 징관 자신이 다시 상세하게 해설한 〈연의초〉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성총은 1682년 불갑사에서 가흥장본 합본 〈화엄경소초〉를 보고 1689년 징광사에서 각판을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처음에 구한 〈화엄경소초〉는 80권의 완질이 아니었고 반 이상만 온전한 상태였다. 이에 묘향산 보현사를 비롯해 각지 사찰에서 나머지 없는 부분을 구하여 1690년에 1차로 간행하였고, 1692년에 그것을 기념하는 대화엄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때의 간행본에도 여전히 일부 결락이 있어서 별도로 입수한 명의 영락남장 〈연의초〉를 참고하여 1700년 〈화엄경소초〉 합본 80자호를 완성하여 재차 간행하였다.

백암 성총이 간행한 〈화엄경소초〉는 송 이후 명대까지의 주석 및 교열 성과를 반영한 중국의 최신 교정본에 기초한 것이었다. 특히 징관 화엄교학의 결정판인 〈연의초〉는 당시 조선에서 쉽게 구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18세기 후반의 연담 유일은 "우리 동방에 청량 징관의 〈화엄소초〉가 이미 들어와 유통되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연의초〉는 인멸되어 전하지 않아서 화엄강사들이 〈화엄소〉를 지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백암 성총이 〈화엄경소초〉 합본 80권을 얻어 판각하고 유포시킨 후에야 동방의 학자들이 〈연의초〉의 무애법문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입수된 가흥장에는 〈연의초〉 앞부분의 총론격인 현담에 대해 원의 보서가 해설한 방대한 양의 주석서 〈회현기〉가 들어있었고 이 또한 성총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로써 조선 강학계에서 화엄교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진척될 수 있었다.

화엄학의 대표 주석서 간행은 18세기 이후 강학의 활성화와 다수의 화엄사기 저술로 이어졌다. 바야흐로 화엄교학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화엄사기 및 과문의 작성은 청허계와 부휴계 등 계파를 막론하고 크게 유행하였다. 먼저 가흥장 불서를 간행했던 백암 성총이 속한 부휴계에 대해 〈이조불교〉에서는 '화엄의 법유'가 그 법맥을 통해 이어졌다고 평하였다. 부휴계에서는 모운 진언(1622~1703)이 가흥장 〈화엄소초〉의 유입 직후 화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화엄경칠처구회품목지도〉를 지었다. 또한 그의 손제자 회암 정혜는 〈화엄경소은과〉를 저술하였고 그 자신은 중국 화엄종 5조 종밀의 후신으로 추앙되었다. 한편 성총의 전법제자 무용 수연은 1688년 송광사로 성총을 찾아가 〈화엄소초〉를 전해 받았고 그 정수를 얻었다고 평해진다. 또 성총에게 화엄원융의 뜻을 직접 전수받았다는 석실 명안은 '화엄법계품'을 판각한 바 있다. 특히 18세기 후반 부휴계의 적전인 묵암 최눌은 화엄의 대의를 총괄한 '화엄품목'을 지었고 여러 경전의 요체를 정리한 〈제경회요〉를 찬술하였다.

중국 표착선에 실린 1천여 불서
화엄교학 전성시대 크게 기여
관련 판목 마멸될 정도로 인출
조선 사상계 접점에도 일익 담당

청허계의 주류문파 편양파에서도 화엄 강학과 교학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다. 묵암 최눌의 '불조종파도'에 소개된 편양파 주류 계보는 모두 교학에 밝고 화엄강학으로 유명한 이들이었다. 먼저 월저 도안(1633~1715)은 조사인 편양 언기와 스승 풍담 의심의 유훈을 이어받아 〈화엄경〉에 대한 한글 음석 작업을 완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성총에 의해 간행된 〈연의초〉와 〈회현기〉에 근거해 한글로 장과 구절을 나누었다고 한다. 보현사에 주석했던 도안은 화엄의 대의를 강구하고 원교의 진수인 화엄 법계에 뜻을 두었으며, 승속 1천여 명을 모아 경전들을 간행하기도 했다. 한편 그가 대둔사 화엄강회에 참여해 법석을 넘겨받고 종사로 추앙된 일은 편양파 주류가 대둔사와 남방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도안의 동문이었던 상봉 정원도 〈화엄경〉 과문 4과 가운데 일실된 3과의 누락부분을 교정해 〈화엄일과〉를 작성하였는데, 요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평을 들었다.

화엄교학의 이해 심화와 사기 저술의 성행양상을 반영하여 18세기에는 대규모 화엄법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편양파 환성 지안(1664~1729)은 당대 화엄학의 일인자였던 모운 진언의 인정을 받았으며, 그의 강설은 성총이 간행한 〈화엄소초〉에 모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당시 지안의 명성은 그가 강의한 1725년 금산사 화엄대법회 때 1400여 명의 청중이 운집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후인 1729년에 앞서의 법회 관계로 그는 무고를 당하여 옥에 갇혔고, 제주도로 유배간지 1주일 만에 병으로 입적하였다. 지안은 "산들이 사흘을 울고 바닷물이 솟구쳐 오른다"는 임종게를 남겼고, 저술로는 선종 5가의 특징을 약술한 〈선문오종강요〉가 전하고 있다. 도안의 문도 설암 추붕도 대둔사 강회에서 〈화엄강회록〉을 남겼고, 그의 제자 상월 새봉이 1754년 선암사에서 연 화엄강회에는 1200여 명이나 참가하여 크게 성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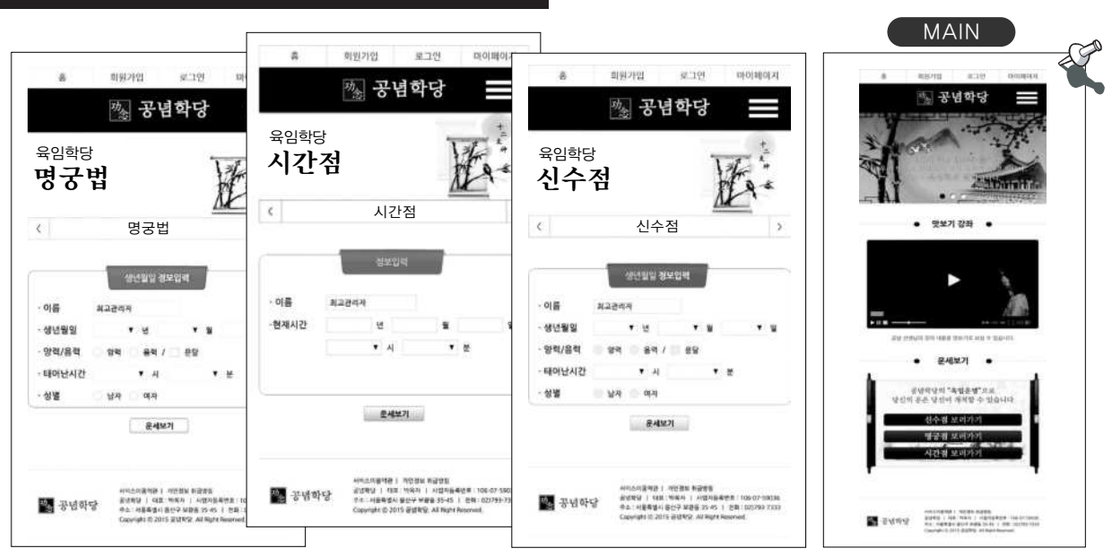
이들과 함께 편양파 교학전통을 대표하는 설파 상언, 연담 유일, 인악 의첨에 의해 18세기 화엄교학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설파 상언(1701~1769)은 〈화엄경〉을 25회나 강설하였고 〈화엄소초〉의 불분명한 부분을 해인사 대장경본과 일일이 대조하여 살폈다고 한다. 그 결과 기존의 잘못된 곳을 정정하여 〈구현기〉 1권과 〈화엄은과〉를 남겼다. 상언이 쓴 화엄 '십지품'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는 그의 제자가 찬한 것으로 보이는 발문이 적혀있다. 그에 의하면 "〈화엄경〉은 근기에 따른 설이 아닌 불성에 계합하는 지극한 설이다. 여러 경전 중에 가장 뛰어난 근본이며 그 가운데 '십지품'은 더욱 깊이가 있다. 이 사기를 쓴 설파장로는 근래의 화엄종주이며 교의 바다의 지남이다"고 평하였다. 또한 1770년 징광사에 불이 나 성총이 간행했던 〈화엄소초〉의 판목이 불타자, 상언이 1775년에 이를 정밀히 교감하여 중간하였고 영각사에 경판각을 세워 보관하였다. 이후 이 영각사본은 목판이 마멸될 정도로 많이 인출되었다고 하며, 1855년 남호 영기가 봉은사에서 다시 복각하였다.

연담 유일(1720~1799)은 상언에게 수학한 이후 30여 년간 화엄 강석을 폈다. 그는 상언의 〈화엄소초〉 주석을 '조선 화엄과의 금과옥조'로 높이 평가하였고, 화엄학의 성행과 관련하여 징관, 종밀을 칭송하였다. 유일은 화엄 현담과 '십지품' 등에 대한 다량의 사기를 남겼는데 그의 화엄사기는 '유망기'라는 명칭으로 전해진다. 조선후기 화엄교학의 성행양상은 유일이 주석했던 대둔사의 강학전통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화엄강학을 매개로 한 12대 종사와 강사를 배출한 대둔사의 교학전통은 법맥상 청허계 편양파와 소요파가 주축이 되어 형성하였다. 이들은 '서산유의'를 내세워 해남 표충사를 지정받았고 대둔사가 8도 선과 교의 종원임을 자부하였다. 이는 임제법통과 화엄종풍이 결합된 조선후기 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한편 경상도에서 활동한 인악 의첨(1746~1796)도 설파 상언에게 수학하였고 상언의 〈화엄은과〉에 의거해 〈화엄소초〉에 대한 사기를 썼다. 이들의 사기는 화엄교학 이해의 심화와 강학 전수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19세기 호남과 영남의 강원에서는 각각 유일과 의첨의 사기가 중시되어 전해졌다고 한다. 후대에 화엄은 유일의 사기가 보다 자세하고 이력과정 사교과에 대한 주석은 의첨의 사기가 더 좋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다.

화엄학은 고려전기까지는 중국 화엄을 체계화시킨 지엄과 법장, 그리고 신라 의상계 화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고려 초의 균여가 그 대표적 계승자였다. 그러다가 송의 진수 정원과 교류한 의천 이후에는 징관의 화엄교학이 보다 중시되었다. 고려후기 보조 지눌은 선교일치를 제창했던 당의 종밀, 그리고 이통현의 실천적 화엄론의 영향을 받았다. 지눌 이후 조사선과 화엄의 공조 및 융합은 한국불교의 고유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조선전기에는 불교와 함께 화엄교학도 침체되었지만, 교종의 승과시험 과목에 〈화엄경〉이 들어가는 등 교학의 최고봉으로서의 위상은 최소한 유지되었다. 또한 조선후기 이력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대교과에 화엄이 포함되었고, 선교겸수에 염불을 추가한 삼문체계의 정립으로, 간화선과 화엄이 양립하는 이중구조는 지속될 수 있었다. 더욱이 최신버전의 〈화엄소초〉가 간행,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18세기에는 화엄의 전성시대가 열렸고 그 중심에는 징관의 화엄학이 있었다. 일심을 매개로 화엄과 선을 연결시키려 했던 징관의 화엄교학은 화엄과 선의 이중주에 적합한 것이었고, 성리학이 주도한 당시 조선 사상계와의 접점을 찾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

한국 최초!!
내손 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손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 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으로 만든 비술이다.



시간법도 각각 年命(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육임은 대운법 뿐만 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 해 드립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저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 구입문의 : 관음출판사 02-921-8434

무료 공개 강의 안내


안성재 박사

● 공개 강의 일자 :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 시 간 : 오후 2시 ~ 5시 (3시간)
● 강의장소 : 동방대학원 문화교육원 401호
● 내 용 : 학습진로상담사과정 안내 및 진학 관련 내용

강의내용
➔ 1교시 : 진학과 관련된 이론 및 CAC프로그램 안내
➔ 2교시 : 생년월일에 의한 실전상담 2명(학생.성인)
➔ 3교시 : 설문 분석에 의한 진로, 적성 실전 상담 2명(학생.성인)

스님, 철학인이 알아야 할 내용. 방문하시어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습진로상담사 신입생 모집 : 2016년 3월 4일 개강
■ 강의 요일 : 매주 금요일
■ 시 간 : 오후 2시 ~ 5시(3시간) 15주 강의
■ 수업료 : 30만원
■ 진로,직업에 관련이 있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서울 성북구 성북로 28길)
지하철 4호선 한성대 6번 출구 / 2111. 2112버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정류장 하차 도보 200m
문의전화 : 문화교육원 02-3668-9890. 강의교수 010-5418-5972

니까야서 길을 묻다 6. 계율(戒律) 정신의 근원 ③

고행에 따른 만족감도 더럽다

'고행에 의한 금욕생활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니그로다'의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간단하다. 앞에서 열거한 규범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도 거기에 '더러움 · 오염 · 타락(upakillesa, 수번뇌)'이 있다면 완성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수행의 완성을 방해하는 '더러움'이란 무엇인가?

첫째, 고행을 실천함으로써 그가 의도한 바가 이루어졌다고 흡족해하는 것.

둘째, 고행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

셋째, 고행을 실천함으로써 기분에 들뜨고 취하여 게으름(방일)에 떨어지는 것.

양 받은 음식물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이리 저리 따져보는 모습, 나아가 그런 수행자들이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욱 존경받는 모습. 경전에서는 고행자들의 이러한 모습과 태도를 모두 더러움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 사례를 보면, 고행을 실천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나타나는 위선, 허세, 속임수, 속 좁은 견해, 분노, 원한 등의 부적절한 감정이 엄격한 고행을 실천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수행의 완성을 지향하는 길과 계율 지킴의 길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계율 정신이라는 것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그 어떤 규정을 나 홀로 지켜가는 것이



그림 · 양경수

넷째, 고행을 실천함으로써 이득 · 존경 · 명성을 얻게 되는 것.

이처럼 고행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동요하고 있는 모습이 더러움이다. 이 네 가지로 인해 수행이 오나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으로 추락하는 이유는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익과 쾌락에 빠져 거기에 집착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한다.

자세히 말하면, 고행의 실천을 통해 어떤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그 결과에 만족하여 안주하려는 태도가 첫 번째 타락이다. 수행의 결과로 생겨난 경지를 하나의 성공으로 여겨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두 번째 타락이다. 매우 어려운 고행의 수련을 이겨내고 목표에 도달했다는 달콤한 성취감에 취하여 그것만을 즐기며 사는 태도가 세 번째 타락이다. 자신이 이룩한 결과의 보상처럼 주어지는 이익 · 존경 · 명성의 획득을 누리는 행위가 네 번째 타락으로, 이 모든 것이 바로 더러움인 것이다.

혹독한 고행 수련으로 이룩한 경지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몰라주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고 원한을 품는 태도, 공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의 솟구침을 언제 어디서나 조심하고 경계하며 다스려나가는 행위이다.

"죄를 저지르고도 다른 수행자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것, 지은 죄를 교단의 사람들 앞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질책 받고 말기를 바라는 것, 부처님께서 내가 질문하는 내용만 설법해주기를 바라는 것, 다른 스님들과 재가신도들이 나만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다른 스님들을 존경하거나 공경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맛지마-니까야〉의 다섯 번째 '더러움이 없음'이라는 경전을 다시 살펴보아도, 지극히 일상적인 마음의 동요를 조심하고 있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계율 정신은 특별한 조항을 지키고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동요하고 있는 내면의 마음 상태를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데서 발휘되는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이제는 '先통일 後평화' 시대…



박세일 고문은…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 경세가, 정치 · 사회 개혁운동가이며 현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과 서울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고,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198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법경제학'을 가르쳐왔다. 1995~1998년까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 사회복지수석으로 활동했다. 1987년에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1997년에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고, 2010년에는 4.19 문화상, 2011년에는 도산교육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법경제학〉, 〈대한민국 선진화전략〉, 〈위대한 선진 행복한 통일〉, 〈이 나라에 국혼은 있는가〉, 〈선진통일전략〉 등이 있다.

리더에게 聽하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 서울대 명예교수)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월 7일 북한이 미사일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뒀다.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북한의 도발과 이로 인한 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정부의 햇볕 정책과 압박 정책도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독실한 불자이자 정치 · 통일 · 외교 전문가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서울대 명예교수)은 한반도 통일 정책에 대해 보수 · 진보 양 진영 모두 '통일 의지'가 없음을 지적한다. 과거와 현재 정부의 햇볕 정책, 압박 정책은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급급한 분단관리 내지 유지정책이었을 뿐 정작 중요한 목표인 통일에는 근본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상적인 합의통일론이 아닌 '북한 체재 붕괴'를 염두에 둔 '선 통일, 후 평화'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에는 종교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이것이 통일 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고언했다. 도리어 불교계가 등한시 하고 있는 새터민 계층 포교에 역점을 두는 것이 새로운 통일 운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유례없는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불자 오피니언 리더 박세일 상임고문의 혜안을 들었다.

–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정세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이다. 20세기 냉전이 끝나고 21세기 새로운 질서가 동아시아에 형성되지 못했다.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이 두 축이었고, 그 안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경제 대국에서 외교 대국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붙었다. 옛날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 체재는 실패하고 있는 형국이다. 핵과 경제개발의 동시달성을 목표로 삼지만 불가능하다. 핵으로 세계와 반목하며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다. 결국 체재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나서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을 하지 않고 분단이 고착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면 동아시아 전체는 갈등과 대립의 구도로 갈 것이다. 제2의 냉전이 본격화될 것이고 최악에는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위기를 맞이한 지금이 중요하다. 우리가 앞장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주변 국가에게 역설해야 한다. 통일이 이뤄지면 한반도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 3성과 산동성, 일본의 동해 인근 지역, 러시아까지 거대한 새로운 경제 영토가 만들어진다.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이 눈부실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평화지대 구축을 함께 이뤄지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 같은 동아시아의 21세기 미래 질서를 풍요와 평화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한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 : 8.5㎝×21㎝


봉축연꽃리본(100개)
일 반 18,000원
고 급 27,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90,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 (50구) @65,000
• 23㎝ (50구) @65,000
• 25㎝ (50구) @65,000
• 30㎝ (50구) @65,000
• 35㎝ (50구) @70,000
• 40㎝ (50구) @73,000
• 50㎝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 바림·공단등(6㎝)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 @90,000원 (1개이상)
• 황 금 등(6㎝) @2,700원 (60개이상)
• 황 금 등(8㎝) @3,300원 (30개이상)
• 황 금 등(10.5㎝) @6,500원 (16개이상)
• 황 금 등(13㎝)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비단접등(10.5㎝)(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 하단부분은 생 ·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70㎝〉

동진기획 · 붓다쇼핑
☎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356-0976-5320-43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한국불교의 圓融·不二 정신 필요하다

원융 불이

우리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아니면 갈등의 신냉전 시대로 추락할 수 있다.

– 북한의 로켓 발사 사태로 인한 경색 국면은 장기화될 것인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북한은 분명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여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핵개발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외국과의 교류가 필수이다. 그러나 핵을 개발하는 북한과 외국이 교류할 수 없다.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종국에는 3대 세습 체재의 붕괴가 올 수 밖에 없다. 통일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이번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분명 어려운 결정이지만 불가피했다. 경제적 피해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크다. 현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저지하자는 국제적 합의가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교류하는 기업에게 금융 제재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했고, 일본도 북송 자금을 차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1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북한에게 준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한 명에게 150달러가 지급되지만 실제 개인에게 돌아가는 월급은 1달러 남짓이다. 나머지는 다 중앙당으로 들어가 통치 자금으로 쓰인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이 시장경제를 이해해 이후 개혁·개방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해 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북한 지배층의 핵개발과 통치 자금에만 도움이 되고 있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개발자금을 막는 국제공조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다.

– 대북 정책은 이전 정부에도 이뤄졌지만 효과 없는 도돌이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의 통일 정책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다. 분단 관리가 목표였다. 북한의 도발만 저지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진보 측의 햇볕 정책도, 보수 측의 압박 정책도 모두 같다. 북한이 도발만 안 하면 만족이었다. 북한체재를 어떻게 변화시켜 우리 동포들을 해방하고 통일한국을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진한 고민과 목표가 없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도 근본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 먼저, 남한이 확실한 핵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드 도입도 그 길의 하나 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핵 공격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체적인 핵 개발도 검토하여야 하고 전술적 핵의 재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공격능력이 최선의 방어능력 일 때가 있다.

세 번째는 통일이다. 통일 없이 핵 문제를 풀 수 없다. 실제 북한의 6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핵을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의 체재를 그대로 두고 행동만 바꾸려 했지만 안 된다. 이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체재 변화)가 없이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통일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이 약했다. 모두가 통일을 피해 왔다. 이게 도돌이표가 되는 이유다.

–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합의를 통한 평화 통일, 두 번째는 북한 체재 변화 통한 급격한 통일이다. 합의 통일은 매우 이상적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바라지만 그 가능성은 빠르게 줄고 있다. 한반도에서 합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외교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결국 북한 체재 변화를 통한 통일 밖에 없다. 이전에는 '선(先) 평화, 후(後) 통일'의 노선이었다면 이제는 '선 통일, 후 평화'의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합의 통일은 구호는 좋으나 공허한 허구이다. 북한의 체재급변을 통한 통일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

– 북한의 체재 변화를 어떻게 이뤄야 하는가.

북한의 체재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한국사회가 통일 의지를 가져야 한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고구려보다 국방력이 강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경제도 백제가 더 좋았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정치, 종교, 일반 국민들이 하나가 됐기에 가능했다. 스님들이 화랑도의 세속오계를 만들어 '임전무퇴' 정신을 고양시켰다. 젊은이들은 그 중심으로 뭉치며 통일의 의지를 다졌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이는 북한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북한 정권의 마음을 달래는 데 급급했다. 그래서는 통일을 절대 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만들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통일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통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대외에 보여줘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 이웃 국가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설파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돼야 동아시아가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열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 북한 체재가 급변한다고 해도 통일이 가능한가.

북한의 체재 변화가 이뤄진다고 하여 통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최대 과제이자 고민이다. 북한 체재 변화 이후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은 중국의 개입이다. 북한 체재 붕괴 후 발생할 중국으로 들어올 대량 난민을 수용할 곳으로 중국은 압록강이나 두만강 아래를 생각하고 있다. 100km, 150km 남하 등등을 논의하고 있다. 잘못하면 별도의 완충지대가 등장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군사적 개입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을 북한 내 친중(親中) 정권을 세우거나 분할해 자신들의 완충지대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개입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외교적으로 설들하고 필요하다면 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미 공조는 물론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북한 동포들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한다.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사회적, 군사적인 모든 분야에서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내 안정과 변화를 위한 통일준비는 철저하고 종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북한의 안정과 대량탈북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고,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말라"는 리더십과 국민적 각오가 필요하다.

끝으로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유엔을 통하여 미중이 협력할 수도 있다, 국제적 공감대가 함께 형성이 돼야 한다. 통일은 '댄스파티'가 아니다. 어려움은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야 발전과 도약이 있다.

– 통일과 사회 갈등을 풀기 위해선 불교의 원융과 불이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교의 원융과 불이사상의 기본은 자기를 상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나와 남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령 절대주의와 유일사상을 기반한 북한의 3대 세습체재를 끌어안는 것은 원융과 불이가 아니다. 수령 절대주의는 수령을 위해 인민이 존재한다. 유일사상은 사상의 상대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과 사상의 절대화가 북한의 세습체재다. 수령 절대주의와 유일사상이라는 잘못된 사상(邪法)을 혁파해야 우리는 진리를 만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자유와 인권과 정의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의 잘못된 사상과 체재를 혁파한 후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때 원융과 불이 사상이 실천될 수 있다.

요약하면 북한의 세습 독재에 대해선 철저한 부정을 하되, 주민에 대해선 철저한 포용을 하는 것이 원융과 불이사상을 기반한 불교적 통일론이다. 현재는 세습독재의 부정노력도 북한 동포에 대한 포용노력도 모두 부족하다. 불교가 양쪽에서 앞장서주길 바란다.

– 통일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제언한다면.

불교의 목표는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 행복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불교는 북한 동포들이 현재 어떠한 고통에 있는지 정확히 봐야 한다.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 평양 이외에는 배급경제도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 기민(飢民, 굶주린 백성)들이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즉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할 일이다. 북한 동포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주는 일은 해야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북한 권력을 도와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척의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불교가 해야 할 책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통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운동, 즉 북한 체재를 바꾸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터민 포교는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위해 불교가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3만 명의 새터민이 살고 있으며, 조선족이 50만 명이 거주한다. 이들은 북한에 왕래하고, 전화도 하며, 돈을 송금하기도 한다. 이들을 통해 국제 정세의 변화와 우리의 통일의지와 열정, 준비를 북한에 알릴 수 있다. 그러나 불교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모두 이런 전략이 부재하다.

새터민에 대하여 2가지 정책이 시급하다 첫째는 새터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급하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열망·준비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남한에 가보니 북한의 인권문제 기아와 빈곤의 문제 등등 별 관심이 없고 통일에 대하여도 소극적이더라, 잘못하면 통일되어도 우리는 이등국민이 될 것 같더라 등등의 이야기가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웃나라들이 반대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한반도는 통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새터민은 '통일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남한동포들의 통일의지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불교계가 나서야 한다.

박 고문은 마지막까지 '통일 의지'를 강조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에서 비롯된다. 통일을 해도 우리의 의지로 할 것이고, 못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지 부족 때문일 것이다. 21세기 중엽부터 한반도에서 살아갈 후손들에게 반드시 통일조국을 선물하여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는 그의 말은 결연했다. 그렇다. 한민족에게 통일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글= 신성민 기자 · 사진=박아름 기자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과도기적 상황
갈등 방치할 땐 '新냉전 시대' 도래

개성공단 폐쇄, 안타까운 대승적 선택
"햇볕·압박 정책은 분단관리일 뿐
통일 의지는 없어… 전략 수정해야"

합의 통일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어
北 체재 변화, 통일 계기로 만들어야

상대 인정 않는 北세습체재 '邪法'
원융·불이의 正見 갖고 통일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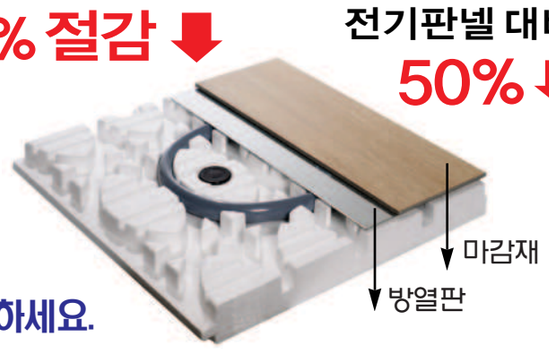
새터민, 통일 선봉장… 포교 나서야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쫀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전 선 시 공

‘깨달음’(覺)이 있어 ‘깨닫지 못함’(不覺)이 있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에서는 깨닫지 못한 불각(不覺)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는다.

“사실 그대로 진여법이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망념이 있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진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망념이 생긴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망념이 본각을 떠나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동서남북의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이 가야할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즉, 올바른 방향이라는 잣대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방향을 잃어버릴 이유도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한 불각의 마음은 참된 각(覺)이 있기에 생기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각이 없다면 진각(眞覺)이라 할 깨달음도 없게 된다. 중생들의 경우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이는 올바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있게 되듯, 각이란 본성을 떠난 불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참된 깨달음(眞覺)을 말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불각의 망념이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까닭에 이 불각과 관계를 지어 설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불각으로 무명의 망념이 있게 된 근거를 말한다. 마음의 순수하고 영원한 본래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미혹을 일컬어 ‘무명’ 또는 ‘근본불각’이라 하는 것이다.

삼세와 육추의 과정을 통해
중생의 생사 고통 근원 성찰
망념을 벗어나 진여를 찾아야

이 근본불각에서 시작되는 세 가지 양상이 생겨서 깨닫지 못한 상태를 그대로 확장해 나간다. 첫째는 ‘무명이 업이 시작되는 상태’로 깨닫지 못한 불각에 의해 마음이 움직인다. 이를 업(業)이라 하는데 깨달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이면 괴로움이 있다. 그것은 결과가 원인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능히 보는 상태’로 움직임에 의해 능히 보려는 주관이 세워지는 단계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주관이 세워지지 않는다. 셋째는 ‘경계가 나타나는 상태’로 능히 보려고 애쓰는 것에 의해서 경계가 망령되이 나타난다. 견을 여의면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세 가지 단계의 이름을 무명업상(無明業相), 능견상(能見相), 경계상(境界相)이라 하는데 줄여서 업상(業相), 전상(轉相), 현상(現相)이라고도 말한다. 이 세 가지 단계는 망념이 일어나는 미세한 원초적인 단계라 삼세(三細)라고 한다.

삼세(三細)를 거울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업상은 거울의 체(體)이고 전상은 거울의 면이 물체를 비추는 용(用), 곧 작용이며, 현상은 거울 면에 나타난 비춰진 물체의 모양(相)이다.

삼세(三細)의 과정에서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여 주객의 대립이 야기되고부터 다시 점점 거칠게 일어나는 여섯 가지 단계의 양상이 뒤따라 있게 되는데 이를 육추(六)라고 한다. 추( )는 세(細)의 반대로 굵고 거칠다는 뜻이다. 미세한 원초적인 생각이 점점 굵어지고 거칠어 가는 과정에서 미세한 생각과 거친 생각을 구분해 나누면서 쓴 말이다.

육추의 첫째는 지상(智相)이다. 지(智)는 분별 또는 식별을 의미한다. 이 지상부터는 마음의 동요가 커진다. 나타나는 경계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지상에서 생긴다. 둘째는 상속상(相續相)으로 지상이 분별한 것에 의해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마음이 생겨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집취상(執取相)으로 상속상에 의해 경계에 얽혀 괴로움과 즐거움에 머무는 마음이 되어 집착을 일으키게 되는 모습이다. 싫은 것은 배격하고 좋은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아집(我執)과 아욕(我欲)이 깊어져가는 상태다. 넷째 계명자상(計名字相)은 집취상에서 만들어진 아집을 통해 집착의 대상에 이런 저런 이름을 붙여 다시 이를 분별하고 계교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는 기업상(起業相) 혹은 조업상(造業相)으로 분별 계교를 통해 선악을 업을 짓는 것이다. 다음 여섯 번째가 업계고상(業繫苦相)인데 줄여 수보(受報)라 하기도 한다. 업을 지으면 그 과보가 있게 된다. 이것이 인과(因果) 법칙인데 과보를 받아서 삼계(三界) 육도(六道)에 윤회하면서 업력에 얽매여 고통을 받으며 생사를 거듭하게 된다.

이상의 삼세와 육추의 과정은 중생의 생사 고통이 있게 된 근원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無相의 보시는 오묘 · 수승하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⑧ 보시의 종류

施是生天道 出世之胞胎
(시시생천도 출세지포태)
無相施為妙 平等為最勝
(무상시위묘 평등위최승)
身及物皆施 無有所犆惜
(신급물개시 무유소인석)
一切處皆施 無有方所者
(일체처개시 무유방소자)
一切時皆施 無有不施時
(일체시개시 무유불시시)
於此四施中 心智常不動
(어차사시중 심지상불동)
如是行施者 名不思議施
(여시행시자 명불사의시)
若施一眾生 一切盡蒙樂
(약시일중생 일체진몽락)
若不如是施 是名為欺
(약불여시시 시명위기광)
雖名施一人 是為施一切
(수명시일인 시위시일체)

번역

보시는 하늘에 태어나는 길이며, 세속을 벗어날 태아를 싸는 막이거니와, 무상(無相)의 보시가 오묘한 것은 평등심이기에 최고로 수승합니다.

몸과 물질로 다 보시하되 인색하고 아끼지 말며, 일체의 곳에 다 보시하되 방향과 장소를 따질 필요가 없고, 일체의 때에 다 보시하되 보시하는 때가 따로 없거니와, 이 네 가지 보시를 행하는 가운데 마음과 지혜가 늘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시의 실천을 이름하여 부사의(不思議)한 보시라고 하나니, 만약 한 명의 중생에게 보시해도 일체가 다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보시가 아니라면 이것은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부르나니, 그럴지라도 부사의(不思議)한 보시를 한 사람에게라도 했다면, 이것은 일체에게 보시한 것이 됩니다.

보시는 하늘에 태어나는 길
마음 · 지혜 흔들리지 말아야

해설

제바보살은 여기서 부사의(不思議)한 보시의 네 가지 종류를 알려준다. 부사의하다는 것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공덕이 있다는 의미이다.

첫째. 무상(無相)의 보시다. 무상의 보시는 곧 평등심이다. 평등심은 차별이 없는 자비심이다.

둘째, 인색함이 없는 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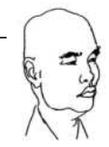
셋째, 방향과 장소를 따지지 않는 보시다.

넷째, 때를 가리지 않는 보시다.

이 네 가지 보시는 오묘하고 수승한 과보를 받을 뿐 아니라, 세속의 번뇌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일렀다. 또한 하늘에 태어나는 길이라고 일렀다. 만약 이 네 가지 보시를 한 사람에게라도 했다면, 이는 곧 일체 중생에게 보시한 것과 같은 공덕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보시를 행하는 가운데 마음과 지혜가 늘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제바보살은 간곡히 부탁하였다.

한편, 보시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선한 과보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리라. 만약,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의 보시라면 장사꾼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보살이 장사꾼의 마음을 쓴다면,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희망이 있던 자리

눈높이라는 말이 있다. 눈높이에 따라 세상을 바라다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삶에 있어 모범답안이 없듯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도 사람에 따라 눈높이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차피 정해진 답이 없다보니 착각 아닌 착각에 머물며 씨줄 날줄로 세상을 엮어가고 있는 것이다. 밝음에 머무는 사람은 긍정적인 착각으로, 어둠에 머무는 자는 부정적인 착각으로 빛과 어둠사이에서 끊임없이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착각은 힘을 키우지만 부정적인 착각은 꿈을 졸아들게 하는 것이다. 긍정과 부정은 마음의 닫고 열림에 따라 빛과 어둠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다.

눈(眼)의 피로에 따라 사물의 정확도가 달라지듯이 마음의 온도차에 따라 곱게도 밉게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착시현상 또한 사람의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다. 같은 사물이나 어떠한 물체를 보고 순간적으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데 근원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평소의 바램, 마음속 목마름이 순간적 이룸으로 착시(錯視)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른 새벽길에 길거리에 놓인 어떤 물체를 배고픈 사람은 먹거리로, 돈 고픈 사람은 돈다발로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이길 희망하나 흔들림과 헐떡임으로 목마름 속에서 헤매는 어둠의 자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음 작용에 의해, 눈높이의 높낮이에 따라 같은 환경에서도 같은 사물을 두고도 빛과 어둠사이로 윤회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세워 ‘일체유심조’처럼 활용하고 있다. 생각을 모아 간절심에 이르게 되면 원하는 바램과 욕구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에 있어 마음의 밝음은 희망을, 마음의 어둠은 절망을 불려들임에 방점을 찍어 깊이 관조해 볼 일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이 이제는 웃으면 건강이 온다는 건강지킴이 운동법으로 그 둘레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보시(布施)에는 애어보시(愛語布施)가 있는데, 부드러운 말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의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사랑엔 정해진 절차와 공식이 없고 행복의 느낌표에도 격식화된 온도 조절기능이 없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착각하며 살 일이다.

내 인생에 있어 오늘의 지금이 가장 화려한 전성기이며 제일 예쁘고 제일 잘난 사람이며 능력자이자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자신만만하게 살 일이다. 불교의 중도사상(中道思想)은 팔정도(八正道)의 수행력으로 실현되는데 바르게 봄(見)과 바르게 앎(知)은 수행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 귀, 코, 입, 몸, 뜻이 색깔, 소리, 냄새, 맛, 느낌, 인식 작용에 의해 생각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집착을 벗어버린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
게으름 없는 노력으로 승리자 돼라

정견(正見) 하나만 설명하더라도 세상에는 중심과 변두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다. 동 · 서 · 남 · 북이 정해져 있지 않듯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머무는 곳이 곧 세상의 중심이요 나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하여 사방, 팔방이 정해지는 것이다. 해 뜨는 방향을 동쪽이라 하고 해지는 방향을 서쪽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동쪽이고 서쪽이냐고 물으면 누구나 잠시 머뭇거리게 되어있다. 그러나 정답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정해져 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해 뜨는 곳은 동(東)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해지는 곳이 서(西)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南)과 북(北)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 동 · 서 · 남 · 북의 중앙에 있는 것이다. 아웃사이더가 아닌 인사이더의 삶이 나에겐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나에겐 변두리와 모서리가 없는 중앙뿐인 것이다.

희망이 있던 자리에는 게으름 없는 노력으로 평화와 자유, 행복을 누리는 승리자의 노래 소리가 수천 송이의 꽃송이로 피어나게 해야 한다.

출강 및 통신 2016학년도 제 25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25년의 법사 교육에 전통과 신뢰는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에 또 하나의 자랑과 긍지입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6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3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영남지역 석불 조성의 1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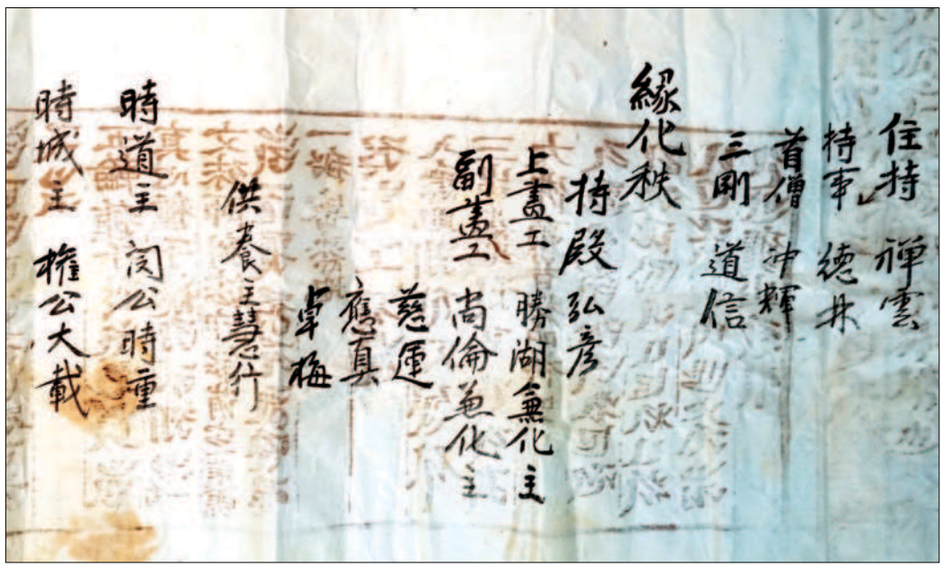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③ 조각승 승호(勝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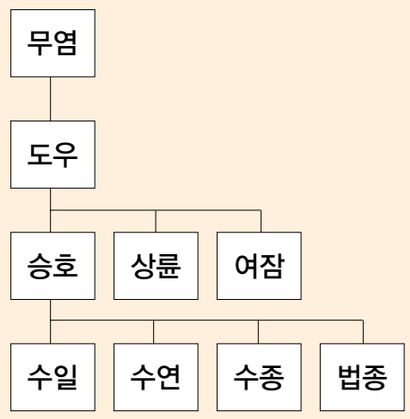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 스님의 대표작 청도 덕사 석조석가여래좌상. 경주에서 나오는 불석으로 만든 석조불상은 옷 주름이 각이 지고 날카로운 느낌을 준다.



서울 도선사 봉안 석조보살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내 조각승들. 불상 조성을 담당했던 스님으로 승호 스님이 기록돼 있다.

〈표〉 승호스님 계보의 조각승



17세기 후반 불교조각사 거두

호남 활동한 색난 스님과 쌍벽

목불 아닌 佛石으로 불상 조성

문헌 통해 활동 시기·지역 가늠

경주 기림사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국 걸쳐 석불 수백점 만들어

기림사·수도사 시주자 참여도

17세기 후반에 호남에서 활동한 색난 스님과 쌍벽을 이루는 영남에 거주한 조각승은 승호(勝湖, 勝浩)스님이다. 승호 스님은 색난 스님과 달리 경주에서 산출되는 불석(佛石)으로 석불을 제작하였다. 불석은 일명 경주석(慶州石)이라고 부르는 돌로, 수분을 먹으면 조각도로 조각할 수 있지만, 수분이 없어지면 아주 단단한 특징을 가진다. 흔히 노스님들이 석고로 만든 불상이 전각에 봉안되어 있다면 대부분 불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승호 스님이 만든 석조불상은 전국에 걸쳐 10여 건 100여 점에 이른다.

아직 승호 스님은 언제 태어나서 열반에 들었는지, 조각승(彫刻僧)으로 활동을 밝힐 수 있는 기록이 전하지 않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사찰 연혁을 적은 사적기 등을 통하여 스님의 활동 시기, 지역, 조각승 계보, 불상 양식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승호 스님은 1640년에 수화승(首畵僧, 화승의 우두머리) 청허 스님이 만든 경남 거창 덕유산 연수사 목조아미타불좌상(거창포교원 봉안) 제작에 보조 작가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님은 1655년에 도우 스님과 경북 칠곡 송림사 배전 불상을 만들 때, 부화승으로 참여하여 1660년대부터 불상 제작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승호 스님은 최근 조사된 1670년에 대구 근방 사찰에 봉안되었던 석조보살좌상(서울 도선사 봉안)에 화주와 작가로 참여하여 이 지역에 고향이거나 출가한 사찰일 가능성이 밝혀졌다. 또한 1670년에 명준 스님 등이 만든 경북 양산 통도사 백련암 관음보살좌상 제작에 증명(證明)으로 참여하여 백련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후 승호 스님은 1678년에 청도 화악산 천주사 영산전과 명부전 불상(청도 덕사 봉안), 1681년에 경남 창원 성주사 지장전 불상, 1682년에 양산 신흥사 불상, 1684년에 부산 기장 장안사 영산전과 명부전 불상, 1685년 경북 청송 대전사 보광전 불상, 1688년에 경북 군위 인각사 영산전 불상을 만들었다.

또한 승호 스님은 1668년에 경주 기림사 대웅전에 올린 기와 제작에 시주하고, 1719년에 기림사 대웅전 비로자나불 중수와 도금에 시주자로 참여했고, 이 시기에 입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기림사 대웅전 비로자나불 중수 발원문에 "비구 승호 영가(比丘 勝湖 靈駕)"라는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호 스님은 1717년에서 1719년 사이에 입적했다. 불가(佛家)에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 뒤에 영가(靈駕)를 쓰는 것은 통상 3년 탈상 전까지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헌을 통하여 승호 스님은 1620년대 출생하여 승려가 된 후, 1640년대 불상 제작의 수련기를 거치고, 1650년대 부화승으로 활동하다가 1670년대 수화승으로 영남 지역의 여러 사찰 영산전과 명부전에 석조불상을 제작하였다. 특히, 경주 기림사에 승호와 관련된 몇 가지 문헌기록이 많이 남아있어 거주 사찰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석조불상 중에 경주 함월산 골굴암에서 채굴된 석재로 기림사에서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승호 스님이 1717년에서 1719년 사이에 돌아가셔 대략 90세까지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색난 스님과 같이 영남 지역의 많은 사찰에 명부전이나 영산전에 봉안될 불상을 주로 조성하였는데, 이는 주전각인 대웅전에 불상들이 승호 스님이 활동하기 이전에 대부분 봉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님은 불상을 제작한 후에 받은 수입으로 자신과 관련이 깊은 경주 기림사, 영천 수도사 등의 불화와 기와 제작에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승호 스님에게 불상 제작을 가르쳐 준 스님은 청허(淸虛) 스님과 도우(道祐) 스님으로 추정되는데, 이 스님들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현진(玄眞) 스님과 무염(無染) 스님의 계보를 이은 조각승이다. 이 가운데 승호 스님이 만든 불상은 청허 스님보다 도우 스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승호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도우(1633~1664)→승호(1640~1719경)·상륜(1657~1688)·여잠(1678~1688)→수일(1675~1730)·수연(1681~1709)·수종(1684~1685)·법종(1684~1730) 등으로 이어진다.

승호 스님은 1680년대에 활동한 호남의 색난 스님, 경북의 단응 스님, 충북과 경기의 금문 스님과 달리 석조불상을 만들면서 조형 감각이 다른 불상을 제작하였다.

승호 스님의 대표 작품은 청도 덕사 영산보전에 봉안된 석조석가여래좌상으로, 높이가 92.7㎝, 무릎 폭이 59㎝로 조선 후기 제작된 중형불상이다. 석조불상은 약간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숙인 머리는 나발(螺髮)이 촘촘하고, 육계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며, 머리 정상부에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간계주가 있다. 방형의 각이진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콧날이 뾰족한 원통형이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오른손은 촉지인(觸地印)을, 왼손은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가락을 펼치고 있다.

바깥쪽에 걸친 대의(大衣)는 목조석가불과 마찬가지로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지 않은 변형통견으로, 오른쪽 어깨에 대의 자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V자형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대의 자락은 세 가닥으로 접혀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 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에 걸친 대의 자락은 중앙에 수직으로 늘어진 옷자락의 끝부분이 옷깃같이 접힌 형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이 만든 불상과 다른 요소이다. 불상의 뒷모습은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소매 자락은 왼쪽 무릎에 짧게 늘어져 있고, 가슴에 묶은 승각기는 상단에 5개의 앙련형(仰蓮形) 주름이 접혀 있다.

본존 옆에 봉안된 보살상은 조성발원문에 미륵과 제화갈라로 언급되어 있다. 보살상은 미륵이 높이 76.5㎝이고, 제화갈라가 높이 82.5㎝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살상은 연화당초문(蓮花唐草文)이 촘촘히 양각된 높은 보관을 쓰고, 보관 밑으로 짧고 단정한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으며, 귀 앞에 늘어진 머리카락이 귀의 중간을 가로 질러 뒤쪽으로 넘어가 꼬여서 어깨에서 둥글게 말린 후에 세 가닥으로 늘어져 있다.

착의법은 오른쪽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어 배에서 대의 자락과 접힌 부분이 표현되고,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내려온 옷자락의 형태가 본존과 약간 차이가 있다. 제화갈라 보살의 오른손은 촉지인하고, 왼손 바닥은 위로 엄지와 중지를 붙인 반면 미륵보살은 손의 위치가 반대로 놓여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영산보전에 석가여래좌상과 같이 봉안된 승호 스님이 만든 나한상의 크기는 58~66cm로, 결가부좌(結跏趺坐)나 윤왕좌(輪王坐)의 자세를 하고, 상서로운 동물이나 염주 등의 지물을 들고 있다.

얼굴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고, 원통형의 코, 어깨까지 내려온 귀, 살짝 미소 짓는 입 등이 본존이나 보살상과 같다. 다만 나한상의 착의는 장삼 위에 가사로 왼쪽 어깨를 덮은 모습은 같지만, 장삼 안쪽에 두 겹으로 입은 내의 표현, 왼쪽 어깨부분에 가사 매듭에 금구(金具) 장식, 그 아래 늘어진 끝자락이 연잎이 엎어진 형태의 끝자락 표현 등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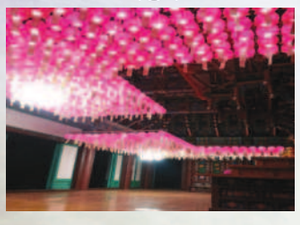
승호와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은 대구 동화사 영산전, 달성 용연사 영산전, 달성 북지장사 대웅전(협시보살), 청도 대비사 대웅전, 청도 용천사 나한전과 운문사 응진전, 경주 불국사 나한전, 경산 환성사 명부전, 부산 육주사(통도사 성보박물관 봉안), 의령 수도사 극락전, 창원 성주사 영산전, 영천 부귀사 극락전 등 영남의 많은 사찰에 봉안되어 있다. 이들 석조불상들은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대의 처리 등에서 승호스님이 활발하게 불상을 만든 1680년~17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찰고급연등·자동승하강시설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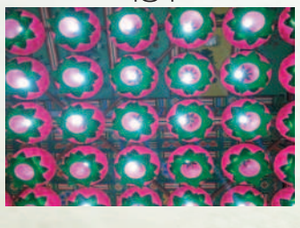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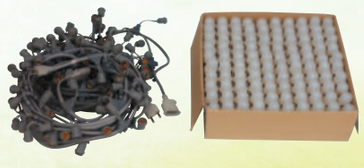
▶가야 궁단등 : 다홍, 보라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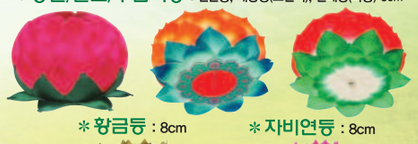
▶비닐만월등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격할인예외품목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 야 기 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티베트 여정, 렌즈에 담아

회정 스님, 3월 8~14일 티베트 사진전

티베트 순례 여정을 오롯이 렌즈에 담아낸 사진전이 열린다.

충북불교사진회 지도 스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정 스님은 오는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제주 연갤러리에서 티베트 사진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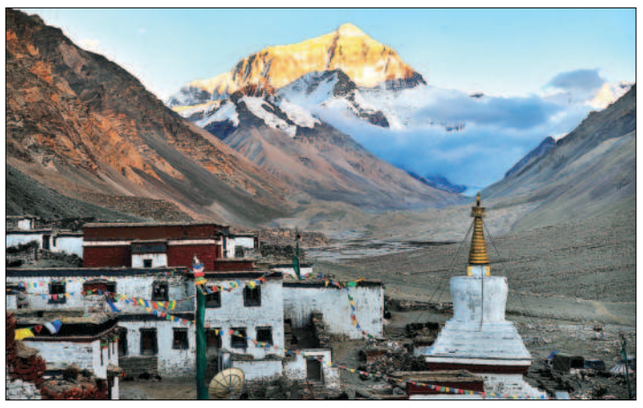
이미 14번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진 회정 스님은 2010년부터 티베트와 쓰촨성 야칭스, 수미산 등을 다니며 목도하는 풍광들을 렌즈에 담았다. 이번 전시회는 그간 보여주지 않았던 티베트의 속살들을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전시작품은 엄정히 선별한 45점이다.

회정 스님은 "티베트는 아름답지만 고행의 땅이기도 하다"면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불교의 가르침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풍광을 담고 싶었다. 티베트의 상황에도 한국 불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는 "카메라 렌즈에 투영된 피사체에 집중하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까지 모두 참선 수행과 비슷하다"면서 "피사체를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한 뒤 집중해서 촬영해야 좋은 사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정 스님은 제주 전시에 이어 5월 울산, 6월 청주, 11월 진주·해인사 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4월 중에는 작품 사진을 모아 티베트 사진집을 펴낼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회정 스님의 작품 사진 '에베레스트 석양과 융포사원

통도사 성보박물관, '가면(假面)전'

2월 16일부터 3개월간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지준)에서 '제19회 작은 전시, '가면(假面)전'을 개최한다. 작은 전시는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통도사 성보 박물관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획 전시 중 하나다.

2월 16일부터 문을 연 이번 가면전은 3개월간 전시되며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가면전에는 총 12점 가면 작품과 목점 인물상 2점이 함께 전시된다. 정성암 작가의 작품 하회탈과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온 전통 가면들이 주를 이룬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인간은 스스로 단순한 자연물에 그치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내면에 어떤 초월적 대상을 느끼고자 한다. 가면은 이처럼 인간의 모순된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상징적 대상과 인간 사이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며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식을 주관하며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한 가면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통도사 성보 박물관은 '작은 전시 가면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한국 장성암 작가의 하회탈 사진.

하성미 기자

격랑의 마음 '빠알리 찬팅'으로 잔잔하게

정율 스님, '빠알리 찬팅' 음반 완간

2006년 이끌림으로 간 스리랑카
그곳에서 '붓다완다나' 음악 만나
삼귀의 前 이뤄진 부처님 찬탄頌

명상음악 형식으로 '빠알리 찬팅'
삼귀의·오계 내용 담아 연작 발매

"7집부터는 찬불가 음악 만들 것"
108인 붓다스 여성합창단 창단도

10년 전, 성악을 통해 음성포교를 하는 수행자로 잘 알려진 정율 스님의 심신은 지칠대로 지쳤다. 음성포교 17년차, 오로지 대중에게 부처님 법을 음악으로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몸과 마음에게는 내려놓음이 필요했다. 스님은 곧 강의, 공연 등을 모두 접고 오롯이 수행자로서 선원에 안거를 들어갔다.

2006년 안거를 해제하고 나온 정율 스님은 이전부터 공연 요청을 했던 스리랑카가 생각이 났다. 부처님 담마의 땅, 스리랑카. 스님은 이끄는 대로 스리랑카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났다. 바로 '빠알리 찬팅' 음악이었다.

2013년부터 정율 스님은 거의 매년 '빠알리 찬팅' 음반을 잇달아 발매했고, 최근 마지막 연작 음반인 '부처님과 약속하는 노래'를 내놨다. 개인적으로는 4·5·6집을 오롯이 '빠알리 찬팅'으로 채운 것이다. 그만큼 스리랑카에서 만난 '빠알리 찬팅'은 스님에 강렬하게 다가왔다.

"스리랑카에서 머물던 어느 날 불교백화점에 갔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음악이 들려왔어요. 매장 담당자를 찾아서 음반을 문의했더니 이제는 구할 수 없는 복사본 음반이더군요. 절실히 원하는 모습에 담당자는 음반을 복사해줬습니다. 처음 듣는 '빠알리 찬팅'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포교하면서도 제가 머무는 공간에는 이 '빠알리 찬팅'이 항상 채워져 있었어요."

정율 스님을 매료시킨 찬팅 음악은 '붓다완다나(Buddhavandana)'다. 이 음악의 탄생 배경도 눈길을 끈다. '붓다완다나'는 말레이시아의 신디(Shindi)가 작곡·제작한 것으로 평생 음악과는 일면식도 없던 범부였다. 그런 그가 사찰에 다녀오던 중 시내에서 길을 잃었고 당황한 신디는 찬팅을 하기 시작했다. 찬팅이 진행되자 어디서 부턴가 멜로디가 들려왔고, 그는 이를 녹음해 피아니스트에게 부탁해 곡을 쓰게 했다.

'붓다완다나'에 담긴 뜻은 부처님에게 보내는 찬탄과 예경이다. 남방불교에서는 삼귀의를 행하기 전에 이뤄지는 의례라고 스님은 설명했다. 실제, 정율 스님의 '빠알리 찬팅' 연작 앨범도 부처님에 대한 예경(4집 '부처님께 예경하는 노래')으로 시작해 삼귀의(5집 '삼보께 귀의하는 노래'), 오계(6집 '부처님과 약속하는 노래')로 이어지며 마무리 된다.

4집은 신디의 '붓다완다나'를 토대로 제작됐지만, 5·6집은 모두 정율 스님이 작곡했다. 장단음이 분명한 빠알리어를 잘 살리기 위해 전문가 스님들에게 자문을 거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연작 앨범 모두 찬팅인 만큼 모두 잔잔하며, 차분하다. 스스로 마음을 달래기 위한 명상음악으로도 손색이 없다.

"스리랑카에서 저는 '붓다완다나'를 염송하면서 많은 가피를 얻었습니다. 이 음악을 접하는 불자들도 부처님 당시 모든 불제자들이 간절히 염(念)했다는 '붓다완다나'를 일심으로 염송하시길 바랍니다."

찬팅 음반을 마무리한 정율 스님은 이제 다시 찬불가 포교에 나설 계획이다. 준비하고 있는 7집도 찬불가 음반이 될 계획이다. 또한 스님은 지난해 7월 15일 '108인의 붓다스 합창단'을 창단해 지휘와 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붓다콘서트' 무대에 서기도 했다.

"여성들로 구성된 붓다스 합창단은 연령·지역도 다양합니다. 오로지 불교를 사랑해서, 노래와 정율이라는 비구니 스님을 좋아해서 모인 합창단이라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직 창단 음악회를 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실력이 완숙해지면 공연하려 합니다. 후에는 열반한 스님들에게 조가(弔歌)를 공양하는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신성민 기자



정율 스님이 자신의 '빠알리 찬팅' 음반을 들어보이고 있다. 스님은 최근 6집 '부처님과 약속하는 노래'를 발매하며 '빠알리 찬팅' 연작 앨범을 마무리했다.

역대 최대 규모 불교박람회 열린다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 280업체 참여 '기록 갱신'

대목장 최기영 등 장인들도 참여
'마음이 쉬는 공간' 주제 기획전
BAF, 청년미술가 발굴 전시회도

오는 3월 24~2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는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불교박람회)가 '역대급' 불교박람회가 될 전망이다.

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현재 불교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280여 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 수치는 붓다아트페스티벌(Buddha Art Festival, 이하 BAF) 참여 작가들을 포함한 것이로 지난해에는 242개 업체 450부스(BAF 포함)가 참여했다.

올해 불교박람회의 업체 모집 진행 결과 참여를 결정한 일반업체의 규모는 183개 업체 244개 부스다. 이는 기획전과 특별전, 체험전을 비롯해 국제교류전에 참가하는 해외 업체들의 수를 제외한 숫자로, 첫해에 비해 약 150% 성장한 규모다.

특히 올해 기획전의 주요 테마는 '마음이 쉬는 공간'을 주제로 한국의 불사산업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이에 발맞춰 최기영대목장전, 우리문화 속에 우수 상품을 선발하고 판매를 지원하는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전통문화산업의 새로운 상품개발을 도모하는 신상품전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또한 불교문화와 첨단 IT기술의 접목을 시도하는 360VR 부스도 선보일 예정으로, 총 18개 부스가 기획전으로 준비된다.

매년 관람객들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던 특별전에는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전, 불교출판문화협회전이 유치되었으며, 불교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불교사회적기업전도 특별전으로 준비되어 볼거리가 더욱 많아질 예정이다.

또한 불교박람회의 세계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척도인 국제교류전도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불교박람회 사무국 측과 MOU 협약을 맺은 중국 샤먼(廈門) 국제불사용품전람회 측은 올해도 15개 업체에서 20개 부스의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며, 중국 푸젠성 측에서도 7개 업체 10개 부스로 참가한다.

불교박람회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BAF도 참여 작가들의 규모를 마무리지었다. 올해 BAF에는 100여 명의 작가들이 최대 68개 부스의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실력있는 청년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만의 작품세계를 선보이기 위한 '청년불교미술작가작가전'을 신설했다.

올해 새롭게 참여를 확정지은 작가 중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작가군은 한국의 전통문화 산업계를 이끌고 있는 장인들이다. 그중에서도 중요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은 이번 불교박람회의 주제인 '마음을 쉬는 공간' 기획전을 이끌어 줄 계획이다.

주최 측은 "불교박람회는 한국 불교문화의 현주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이자, 국내 유일의 한국전통문화산업 박람회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올해는 '마음이 쉬는 공간'을 주제로 한국불교의 불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각종 산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전하는 21세기 부처님의 메시지!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철학서를 뛰어넘는 우주적 진리 신불교의 메시지!



보정판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
부처님 계율 잘 지키고
대승경전 읽고 염불공부 잘 하면
금생도 다음생도 행복할 것이며
윤회생사도 벗어나고 왕생극락까지
하리라'고 가르치고 싶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보정판 발행
대승불교를 완성한 영산불교의 만자 가르침을 펼치다

1. 부처님의 실존에 대한 불교사상 최초의 생생한 체험적 증언!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하신 후 2600여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우리 부처님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불과를 이룬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께서 불교사상 처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절대계에 있는 당신의 불신으로 돌아가 여여히 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 사후 윤회세계와 해탈세계의 존재를 증언, 올바른 생사관 정립!
영산불교 큰스님께서 사후의 지옥·축생 등 육도윤회세계와 극락 등 해탈세계를 직접 보고 그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못 들어간 중음계의 귀신세계도 있습니다.

3. 불보살이 되는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정립,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
불보살이 되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인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새롭게 정립, 부처님의 가피로 선정·삼매에 들어 눈이 열리고 지혜와 힘이 생겨 해탈열반하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4. 무아와 윤회주체간 논란에 종지부–영혼체가 윤회주체임을 선언!
기존불교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토대로 윤회의 주체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바로 잡고 인간본체인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라고 선언하여 2000년 이상 불교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무아와 윤회주체간의 모순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5. 인간과 우주만물의 지고한 탄생 비밀 처음으로 밝혀!
어떠한 종교·철학에서도 몰랐던 인간과 우주만물의 탄생비밀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겁이 되면 공의 힘과 창조 원리,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 공에 내재되어 있던 인간종자(공아자)와 물질종자(질료인)가 중중무진연기를 통해 인간이 되고 우주만물로 탄생하게 됩니다.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2.10~2015.2.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2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3	한국인이가장좋아하는선문답	장웅연	불광출판사
4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5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톨텐최된	불광출판사
6	호흡이주는선물	래리로젠버그외	나무를심는사람들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8	스님의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9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10	유마	백금남	쌤앤파커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법정 묻고 성철 답한 雪戰…"깨우치면 모두가 부처님"

설전

성철, 법정 지음 | 책읽는 섬 펴냄 | 1만 3천원



"흔히 밖에서 말하길 큰스님 뵙기가 몹시 어렵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지요. 스님 뵈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불전에 3천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째서 3천배를 하라고 하시는지요?"〈법정스님〉

"나를 보기 위해서 3천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올 때 나를 찾아오지 말고 부처님을 찾아오시오. 나를 찾아와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의미로 사람이 찾아오면 부처님께 절을 하도록 시킵니다."〈성철 스님〉

법정 스님과 성철 스님은 속세 나이와 승려로서의 나이 모두 정확히 20년 차이가 난다. 법정 스님이 출가하기 한 해 전인 1955년에 성철 스님은 이미 초대 해인사 주지에 임명될 정도로 명성과 인망이 자자했다. 물론 이때 성철 스님은 주지 임명을 거절하고 대구 파계사 성전암으로 옮겨 10년 수행에 들어갔지만 말이다. 각기 해인사와 송광사서 출가해 법통이 달랐으나, 법정 스님에게 성철 스님은 아득한 선배이자 조계종의 큰 어른이었다. 법정 스님은 경전 공부에 진척이 빠르고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실력이 뛰어나 불교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또한 〈무소유〉 등 타고난 문재를 바탕으로 수상집을 통해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경전 번역 작업을 하면서 통도사와 해인사에 머물렀다.

법정 스님이 해인사 강원에 머물던 1967년, 성철 스님은 해인사 해인총림 초대 방장에 추대된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같은 해 12월 4일부터 100일 설법에 들어간다. 이것을 '백일법문(百日法門)'이라 한다. 이때의 설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녹취됐다. 그런데 이튿날인 12월 5일에 이르면 한 젊은 승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성철 스님 법문에 끼어든다. 바로 법정 스님이다.

성철 스님 현답 이끌어낸 법정 스님의 현문

성철 스님 백일법문이 열린 장소는 해인사 대적광전이었다. 수많은 승려와 불자가 스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였다. 법정 스님은 여기서 아주 원론적인 질문들을 던져 성철 스님의 형이상학적인 설법이 대중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가령 이렇다. "불교란 무엇입니까?" "타 종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중도 이론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중국 선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등등. 그 질문들은 불교의 초심자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법정 스님은 스스로 초심학인 입장서 질문을 던져 성철 스님 법문을 대중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물었다. 성철 스님의 뛰어난 점 역시 이 대목서 빛을 발한다. 법정 스님의 의도를 파악한 것인지, 성철 스님 또한 법정 스님 그 질문에 일일이 성심을 다해 답했다.

법문이 무르익으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중국의 육조 혜능이 일자무식이었다는 이야기에 대해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을 따지고 든 것이다. '가야산 호랑이'라는 별명서 드러나듯, 뭇 제자와 후학들은 성철 스님 앞에서 오금을 펴지 못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스스로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역시 성철 스님의 넓은 품이 드러난다. 스님은 마치 영민한 제자의 도전을 즐거워하는 스승처럼 법정 스님의 은근한 도전을 즐기는 듯



사진 왼쪽부터 현호 스님,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순. 1973년 백련암 뜰에서 촬영했다.

1967년, '백일법문' 속의 성철·법정 스님
20년 속세의 나이 초월한 두 거장의 우정
법정 스님 '필화'에 휘말려 거쳐 옮기기도
사회에 대한 책임감 확인…본질은 자비

일일이 답한다. 그리고 법정 스님이 조심스러운 어투로 성철 스님에게 이렇게 묻는다.

"사람이…… 정말 성불할 수 있습니까?"

개신교 입장서 보면 성직자가 '정말 천국이 있을까?'라고 의문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정스님의 이 질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법정스님이 성철 스님에게 던진 질문들은 성철 스님의 설법을 대중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포석이자, 서른 후반에 접어든 '청년' 법정의 불교에 대한 간절한 생각 그리고 그의 마음 한 구석을 엿보게 만든다.

'백일법문' 속 성철과 법정의 대화는 12월 5일, 8일, 9일, 23일의 녹취록에 담겨 있다.

법정 스님, 불일암으로 향하다

공교롭게도 1968년 법정 스님은 일종의 '필화'에 휘말린다. 성철 스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불전에 3천 배를 해야 한다는 규칙을 정했다. 그래서 한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법당서 절하는 대학생 무리를 목격한 법정 스님이 그것은 절이 아니라 몸을 굽혔다 폈다 하는 굴신운동이라는, 성철 스님의 '3천 배' 규칙을 폄하하는 글을 대한불교(현 불교신문)에 기고했다. 성철 스님의 상좌인 원택 스님은 이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당사자인 성철 스님께선 별말씀이 없으셨고 해인사 주지 스님께선 방장 스님(성철)은 법정 수좌를 좋아해라며 다독였으나, 혈기 넘치는 젊은 스님들이 발끈해 법정 스님이 바깥나들이 가신 틈에 스님 방의 물건을 치워 버린 일이 있었다. 법정 스님은 논란이 일자 아무 말 없이 서울로 수행처를 옮기셨다. 이것이 1968년의 일이었다."

서울 봉은사로 수행처를 옮긴 법정 스님은 이후 월남파병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가 승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다. 또한 유신정권 시절에는 재야인사와 관계하다가 감시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던 중 법정 스님은 1975년 송광사 불일암으로 향한다. 종교를 초월한 스테디셀러인 〈무소유〉가 출간된 것은 이듬해인 1976년이었다.

세상 향해 열려있는 두 스님의 촌철살인

1980년 초반, 두 권 분량 원고를 탈고한 성철 스님이 상좌인 원택 스님에게 일렀다. "송광사 불일암 법정 스님을 찾아가라. 가서, 당대에서는 법정 스님이 한글 글쓴이로는 최고니 내가 〈본지풍광〉과 〈선문정로〉의 윤문을 부탁한다고 말씀드려라."

그 전언을 전해 들은 법정 스님은 "스님 글에 크게 손댈 생각은 없다"면서도 정성을 기울여 두 권의 책이 발간되도록 보탰다. 원택 스님은 이때 법정 스님과 함께 작업한 인연으로 이후 성철 스님 사상을 전하는 책을 편찬하는 일에 매진한다.

1981년, 성철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제 6대 종정에 추대된다. 같은 해 12월에는 〈선문정로〉가 발간됐다. 이 책이 만들어지는 동안 두 스님 사이에 왕래가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1982년 벽두 한 언론사가 마련한 대담을 위해 두 스님은 다시 마주 앉았다. 못다 푼 응어리가 있던 것일까? 법정 스님은 대뜸 다시 3천 배에 관해 물었다. 이날의 대화는 성철 스님이 3천 배 규칙에 담긴 오해를 푸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 대담서 두 스님은 자아를 닦는 일상 수행법과 불교의 근본 정신, 지도자의 덕목, 물질만능 시대의 인간성 회복 문제, 권력과 이념에 편승치 않는 언론, 미래가 꺾인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눈다. '백일법문' 속의 대화가 불교를 주제로 삼았다면, 이 대담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의 고뇌와 문제들이 지금도 되풀이되는 것일까? 이때 두 스님이 나눈 대화 내용들은 공교롭게도 정확히 현재 지금을 향한다. 그리고 두 스님의 대화는, 이들이 치열하게 타인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음을, 또한 항상 사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 본질은 '사랑'이었다. **김주일 기자**

"누구라도 신명 다해 수행한다면 못 이룰 일 없다"



소원을 이루는 법

글 고산 스님
담앤북스 펴냄
1만원

고산 스님이 출가 후 평생 관세음보살 기도로 수행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은 이야기와 스님 가르침을 받은 불자들이 겪은 영험담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책이다.

누구나 크고 작은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소원을 이루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고산 스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일심으로 기도에 매진한다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단지 중생 근기가 약해 부처님 가피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스님은 백 번 듣고 천 번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듣고 실천한다면 모두가 뜻을 이루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시며 천하 사람들이 깨닫고 열심히 정진하기를 독려한다.

어느날 젊은 신도가 스님을 찾아와 말했다. "스님, 저는 시집 못 갈 팔자입니까"

스님이 말하시길 "짚신도 나막신도 고무신도 다 짝이 있으며,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길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하고 지부장무명지초(地不藏無名之草)라고 하늘이 사람을 내어놓을 때 녹 없는 사람을 내어놓지 않고 땅이 이름 없는 초목을 감추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집 못 갈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운명이고 사주팔자고 다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아침저녁으로 관세음보살을 3천 번씩 부르고, 낮에 일하면서 노는 입에 종일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저자는 "누구에게나 억지로 불교를 믿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급한 일이 생기거든 전화기 끄고 앞뒤 문 걸어 잠그고 자기 방에 단정히 앉아 합장하고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일일일야(一日一夜)만 지송해도 모든 일이 해결될 터이니 꼭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주역과 불교의 융합과 회통! | 불법의 정수를 담은 최고의 논서!



주역선해 周易禪解

우익지욱 저 | 길봉준 역주 | 신국판 양장
1,248쪽 | 값 85,000원

유교의 최고 경전인 『주역』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유일무이한 책!

명대明代 4대 고승의 한 사람이자 중국불교의 마지막 완성자로 추앙받는 우익지욱 선사가 천태와 유식, 화엄사상 등을 종횡무진으로 응용하여 『주역』의 심오한 이치를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주역 및 선해 원문과 1,100개가 넘는 상세한 각주!

용수보살의 불교대백과전서!

반야사상을 총괄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논서!
방대한 불교사상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필수 길잡이!

신수대장경과 중국 고간본을 대조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역작!

대지도론 大智度論

용수 著, 구마라집 漢譯, 석법성 韓譯
전5권(총 4,000여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세트가 27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살아있는 화석 '투구게'… 방생으로 멸종 위기

홍콩 환경보호론자들 "잘못된 방생문화 해양 생태계 위협"

현존하는 오래된 생명체 가운데 하나인 투구게가 불자들의 방생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

홍콩 영자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월 11일(현지시간) 홍콩 불자들의 방생문화를 보도하며 "무분별한 해양 생물체 방생은 해양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예로부터 사찰에서는 불교도들이 해마다 일정한 때에 방생을 하고자 방생계(放生契)라는 것을 조직해 방생회(放生會)를 열어오고 있다. 불자들은 식탁에 올리는 게, 물고기, 조개 등을 구입해 방생함으로써 자신이 선업을 쌓는다고 믿어왔다.

홍콩불교방생회는 튠완 부두에서 진행하는 방생활동으로 3년간 140만 마리의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한다. 방생회는 매주 한번 20~30명의 불자들을 모집해 아침에 열리는 수산시장에서 살아있는 수생동물을 사서 바다에 방생한다.

방생모임을 주관하는 로사 챈은 "방생을 위한 수생동물은 기부를 통해 구입하며, 방생에 쓰이는 돈은 1만 홍콩달러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챈은 "우리가 투구게를 방생하는 것에 대해 당신들은 감사해야 한다. 아무도 투구게를 먹지 않을 것이며 어부들은 단지 투구게를 잡기만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보존가들은 이 같은 행위로 투구게가 생존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수중생태계 전문가인 케네스 릉 메이 홍콩대 교수는 "방생을 하는 불자들은 자신들이 투구게를 살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상 방생은 그들을 죽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투구게를 오염이 된 부두나 바닷가 근처에 방생할 경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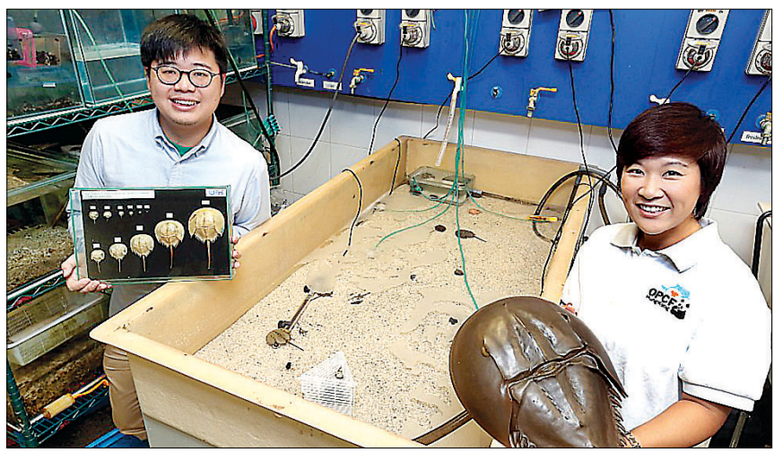
또한 릉 메이 교수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양식 수생동물을 그대로 방생하면 급격한 환경변화로 생존확률이 감소한다"며 "뿐만 아니라 외래어종의 경우는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해 홍콩 해양 생태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층휘 오션파크 보존재단 교육 관리인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진화하거나 멸종하는 동안 투구게는 거대 화산폭발과 소행성 충돌, 빙하기를 거치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려왔다"며 "인간은 지구상에 출현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4억 7500만년을 살아온 생명체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2억 년 전부터 생존
대부분 중국 연안에 분포
멸종위기 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처벌 불가한 상황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방생을 위해 투구게를 구입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적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투구게 번식을 연구하는 홍콩 시티대학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현재 투구게의 60퍼센트가 방생을 위해 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생물체에 대한 정보 수집 부족으로 인해 투구게는 국제적인 멸종보호 생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콩은 현존하는 투구게 가운데 2개의 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생태 전문가들은 7천마리 정도의 새끼 투구게가 란타우 섬과 북동부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출처=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정부 어농자연보호부서(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漁農自然護理署)는 "이 같은 이유로 어부들이 투구게를 포획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어서 현재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투구게 전문가로 홍콩시티대 박사과정에 있는 빌리 콴 씨는 "국제적인 분류가 없으면 멸종위기 생물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서부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중의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 층휘 씨는 "상어 지느러미 요리인 샥스핀을 생각하면 된다. 정부가 상어 지느러미 판매를 금지해도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음지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구입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 샥스핀 먹는 것 자체를 그만둔다면 결과적으로 상어를 파는 시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생존하는 투구게 종(種)에는 3속(屬) 5종이 알려져 있으며 2억 년 전 모습과 거의 같은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린다.

투구게의 종은 아시아에 서식하는 투구게(Tachypleus tridentatus), 남방투구게(Tachypleus gigas), 맹그로브투구게(Carcinoscorpius rotundicauda)가 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서식하는 아메리카투구게(Limulus polyphemus)가 있다. 아시아에 서식하는 투구게는 대부분 중국 연안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홍콩은 현존하는 투구게 가운데 2개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생태 전문가들은 7천 마리 정도의 새끼 투구게가 란타우 섬과 북동부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투구게들은 새끼일 때 갯벌과 같은 진흙이 많은 바닷가에서 서식하다 산란기가 되면 바다로 들어간다.

이보형 객원기자

안젤리나 졸리, 등에 '불교 문신' 새겨

캄보디아 스님으로부터 새긴 것으로 알려져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불교 문양 타투(tattoo; 문신)를 새겨 이목을 끌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는 자신의 등에 '평화, 사랑, 번영한 삶을 위한 부처의 기도'란 불교적 의미가 담긴 타투를 새겼다. 이 문양은 전통적인 동남아시아 불교 미술에서 근원한 것으로, 졸리의 등에는 크게 3가지 형태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E! online'은 2월 9일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촬영으로 캄보디아에 머무르는 동안 현지에서 3개의 거대한 타투를 새겼다"며 "하나는 불교 사원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상자 속에 일련의 기호들이 숨어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졸리는 '타투 매니아'란 별칭을 얻을 만큼 타투를 즐기기로 유명하다. 결혼 후엔 자녀 입양을 앞두고 상징적인 의미로 타투를 하는 등 타투로써 남편 브래드 피트(Brad Pitt) 혹은 6명의 자녀들에 대한 애착을 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타투에도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 거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해외잡지 'vanityfair'는 "졸리의 타투 대부분은 그녀의 관계 또는 자녀들에 대한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내포된 의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 다만 이번에 새긴 타투는 졸리가 아들 매독스(Maddox)를 입양할 때 왼쪽 어깨에 새긴 것과 그 문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통해 짐작해볼 뿐"이라고 언급했다.


영화제작으로 인해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는 자신의 등에 '평화, 사랑, 번영한 삶을 위한 부처의 기도'란 불교적 의미가 담긴 타투를 새겼다.

이어 'vanityfair'는 "졸리의 타투는 스님이나 특정 기술가에 의해 작업된 것으로 보인다"며 "졸리는 태국 등 동남아 일대의 전문 타투가들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젤리나 졸리는 캄보디아에서 영화 'First They Killed My Father(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를 제작·촬영 중이다. 이는 캄보디아 인권운동가 로웅 웅의 자전적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티베트 고승 살해한 티베트족 2人 '사형'

2013년 유럽 최초 사원 설립자 아궁 린포체 살인죄

유럽에 최초 티베트 사원을 새운 티베트 고승을 살해한 티베트족 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영국 일간신문 '가디언'은 2월 2일(현지시간) "중국 법원이 영국으로 망명한 티베트 고승을 살해한 티베트족 2명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成都)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13년 10월 영국 국적의 70대 티베트 불교 승려 아궁 린포체를 흉기로 난자(亂刺)해 죽인 덩구쌍(登古桑)과 츠런반자오(次仁班覺)에게 고의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종신 정치권리 박탈 및 극형 판결을 내렸다.

6살 때 활불(活佛)로 인정을 받은 아궁 린포체는 티베트 동란 후 1958년 인도로 망명했다. 1967년 영국으로 이주해 영국 티베트 지원 기금회 주석을 지내고, 유럽 최초 티베트 불교 사찰인 '삼예링 명상센터'를 스코틀랜드에 세웠다.

아궁 린포체는 그간 중국 내 티베트족 지원활동에 나서며 중국 당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그가 일군 스코틀랜드 사찰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팝스타 데이빗 보위, 가수이자 시인인 레너드 코헨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유명하다.


활불(活佛)로 인정받은 티베트 출신 승려 아궁 린포체는 스코틀랜드에 삼예링 명상센터를 세우는 등 유럽에 불교를 전파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사진출처=가디언

한편 선고공판은 지난달 29일 열렸으며,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들이 금전적인 다툼 끝에 아궁 린포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범인들이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족을 탄압하는 중국 정부와 가까운 아궁 린포체를 '변절자'로 판단, 정치적 동기로 죽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천진난만 中 동자승 사진 '인기'

중국 동자승 사진이 수천만 네티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중국 인민망은 중국 충칭시 허촨구에 있는 얼탑사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1살 3살박이의 동자승 사진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자승의 부모는 1월 1일 가족과 휴일을 보내던 중 2015년에 상영된 중국 애니메이션인 '몽키킹:영웅의 귀환'에서 착안, 아들들에게 동자승복을 입혀보기로 결정하고 얼탑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승의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순식간에 조회수 수백만 건을 돌파했으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스님(cutest young monk)'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보형 객원기자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신 성 불 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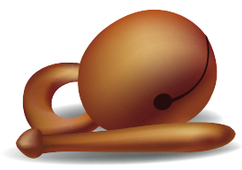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4×5.8) 4만원, 1회 1Box (8.8×5.8)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배우기 좋아하는 이를 항상 돌보고 올바른
마음으로 법답게 행하며 오직 보배로운
지혜를 지닌 이, 그를 도인이라 한다.

– 법구비유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부지갱이 비빔밥 법회
4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
한정예약 / 울릉도 부지갱이
+ 육지부지갱이 / 입장료
균일 3500원 10명할인 예매
한학마을 041-542-9955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수강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원장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 대구 길상사 주지
주소 : 대구 중구 대봉2동 744-21
문의 : 삼소정 서예문인화 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불사용 달마도
40cm*62cm 한폭 6천원
불사용 선물용 달마도가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달마도를
친필로 그려 드립니다
051-202-8770 /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청암달마원
10장 이상은 절 이름과 스님 법명
넣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살풀이,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0-8559-94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내 사찰)
053-654-0408
010-3422-323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함양)
010-9317-918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대중반 – 50대 초반)
모든 것 전수해 드리고
절까지도 인도해 드립니다.
010-6674-135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
010-4415-57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50–60대)
051-628-7200

조계종 천장사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공양주 1명, 처사님 1명
(충북 단양)
010-5960-2085

신통력을 잡는 비법
스님에게만 은밀하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핵심 강의, 각종 제의식 집전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 등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점안, 정기법회 등 각종 불공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며 단, 몇시간 만에 불교핵심을 관통하여 통쾌하게 하는 화엄경법성게, 금강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 명쾌하고 강렬담백한 강의를 무불선원에서 또는 원하시는 사찰 등 곳으로 출강해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 성불 하십시오!
대운산 무불선원 비구 무불 합장 010-3854-8107. 055-388-387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구 도심포교당)
010-3618-60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덕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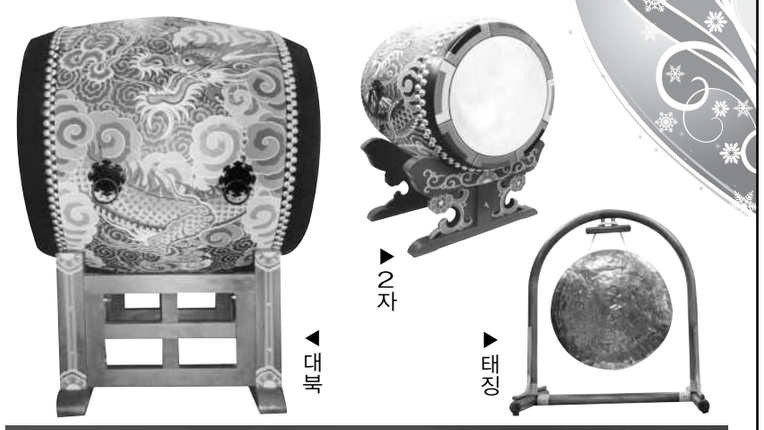
쉼템플 지도자 교육생 모집
템플스테이 모집/홍보/진행/관리를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 개강 (4강+워크샵)
쉼템플 운영실장 조보길 010-8997-8578 www.Shimtemple.com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상동역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2자
◀ 대북
▶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영남범음범패 제5기 학인모집
● 초 급 : 목탁기본습의,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향수해례, 삼보통청, 지장청, 관음청, 신중청
● 중 급 : 사물다루는법, 요잡, 시다림, 점안식, 일백사위, 삼십구위의식, 관음시식, 전시식, 상용영반
● 고 급 : 천도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일년과정)
● 모집대상 : 승려, 법사
● 강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고왕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463번기 17-27
(강주 : 상일스님)
수강비와 강의책은 무료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법 바르게 전하시길 빕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 052-262-6857 / 010-9709-8850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하거나 수단을 써서 거짓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불설범망경 -



사 찰 안 내

▶ 바닷가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남해 바닷가 250m
- 총부지 : 550여평
- 건물 : 법당(20평),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가액 : 3억 2천만원

051-863-6622

▶시장부근 토굴◀
- 위치 : 통영(통영 중앙시장 3분거리)
- 총부지 : 약 100평(2종주거지역), 주차가능
- 건물 : 법당 20여평, 요사채, 기타
- 양도가 : 1억 2천

010-3560-8522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보유 사찰탐방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청도시 추천 사찰 안내(www.이박사.com)

- 법당 80㎡, 요사채 90㎡, 토지 90㎡
- 청도 IC근방, 풍수상 좋은터
- 산중조용하고 기도사찰로 적당함
- 가액 : 16억(융자 4억포함) 조정가능
- 비밀보장, 방문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 위치: 경기
◎ 대지: 60평	◎ 대지: 220평
◎ 법당: 30평	◎ 법당: 40평
◎ 요사: 60평	◎ 요사: 60평
◎ 양도: 10억 5천	◎ 양도: 7억2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임야: 종교부지 합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 요사채:조립식 30평
- 가액:대출 7,500안고 1억 1천만원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불국역 부근
- 대지 200평, 건평 25평 (대웅전), 산신각
- 요사채 12평, 대웅전 및 방3개 주방
- 가액 : 2억 9천(조절가능)
- 최고 입지적 조건 갖춘 암자임

010-5427-3699

대구 부근(급)사찰
팔공산 기도 휴양사찰
- 토지 4,800㎡
- 목조법당, 목조산신각, 요사채 등 5동
- 전망과 위치좋고 산중사찰, 방사가 많음
- 주변산이며 기도와 선원사찰임
- 가액 : 10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다용도 토지 안내
- 위치: 경기 양평 아신역에서 5분거리 (대지 257평, 건평40평 뒤는 산)
- 앞은 옥천 시내, 유동 인구 많음, 전망좋음
- 용도: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별장
- 가액 : 4억 8천(융자포함) 전세가능

010-4234-2536

포교원 안내
- 위치 : 중량구(우림시장)사거리
- 2층, 약 30평
- 삼존불, 신중, 집기
- 가액 : 보증금 2,000에 70만원 시설비 2,600만원(가격절충)
- 철학, 포교 활동하기 좋은 곳

010-5387-67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남로 버스정류장 대로변
- 상가 2층. 50평이상, 방 2, 화장실2, 주방, 각시설 완비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3700-3628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보문산 부근
- 전망좋고 위치최상
- 식장산과 보문산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미터, 대전역(택시)8분거리
- 대지 70평, 건물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억 3천(가격절충)

010-8701-960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불심깊은도시 경북 영주
포교원을 양도 합니다
- 3층 건물 2층(3층 주인 살림)
- 55평(방 2, 요사, 공양실, 화장실 2)
- 법당(단청, 운각,6지장보살 봉안)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보시고 판단)

010-6472-562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구서동 전철 2분거리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법당 25평, 방3, 주방, 화장실, 도시가스 ● 삼존불, 지장
- 가액 : 2,000만원 60만원 또는 3,000만원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1-1750-404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 전망 뒤에는 산
- 귀농 귀촌할 분, 사찰 암자 휴양지 최적지
- 땅모양 좋음, 아주좋은 명당터
- 신축, 총면적 1025평, 대지 285평
- 신축 : 건평 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 보일러는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M 암반약수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458-225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대형 포교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 +큰방+종무실+종무실방+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사 찰 안 내
- 사자봉 송림숲, 가람조성 5년!
- 공찰소임관계로 급 양도함!
- 종교부지 650평. 산1만2천평
- 조립건물3동, 약사석불12자
- 광주광역시 20분거리

①종교부지+시설물= 2억1천
②임야포함 3억2천(절충가)

010-8224-1688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도심 속 포교원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 평수 : 145평, 2층 전체
- 구조 : 주지실(욕실) 다실 외 방 3개 (엘리베이터)
- 가액 : 1억 2천만원 월200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44-9097

포교당.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1동
- 2층. 법당, 거실
- 방 2개, 화장실
- 총25평
- 법당이나 토굴로 적합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25만원(시설비 없음)

010-6548-919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대지 102평, 건물 콘크리트
- 1층 32평, 2층 15평 법당
- 구조 : 방4, 주방, 욕실, 다용도실, 심야보일러
- 삼존불외 모든 시설 완벽 구비
- 가액 : 9천만원

010-8577-377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도심속 포교원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지하철 걸어서 5분소요 버스는 1분정도
- 반지하 150평, 상가건물, 시설완벽
- 별도 사용공간 : 약 20~30평 공간있음, 세면실 별도 방 총6개<2개는 햇빛이 들어오고, 문열면 바로 밖> <종무소 친견실(넓음)>, 스님방, 빈방 3개, 다용도실(넓음)
- 관리비 한달 50만원 가량, 주차는 얼마든지 가능
- 인체리어 시설완벽
- 부산시내에서 낮은 가격으로 넓고 큰 본인 사찰을 가질수 있는 기회
- 스님 사정으로 "급 양도 및 전세"
- 가액 : 2억 5천만원, 전세 8천에 월 100만원

010-6717-6826

사 찰 안 내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소재
- 평수 466㎡(145평)
- 법당, 아미타삼존불, 포대화상
- 공양간, 방 4개
- 가액 : 9천만원

010-3697-352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생극면
- 대지 510평, 건물 5동, 양호함
- 산 밑으로 경치 좋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0-6341-34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만덕동
- 1층 약 40평
- 삼존불, 집기완비
- 몸만 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500만원(절충가능)

010-2426-176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1층 37평, 욕실, 도시가스 방 2칸, 앰프 시설 완비
- 부처님은 청동불 (석가모니, 지장)
- 주차 시설 완비
- 가액: 500만원, 월55만원 시설비 2,300만원(절충가능)

010-5830-3838

마음편한 시골집
- 위치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지
- 총 746평(대지 423평)
- 주택 25평 (등기필)
- 상수도, 전기, 지하수관정, 해우소
- 마당까지 포장, 20대 주차
- 가액 : 9,500만원
- 사찰불사 가능

010-4591-6200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화왕산 군립공원입구(달촌마을)
- 부지 1,759㎡(3필지), 요사채(방4), 칠성각, 산신각, 심야보일러
- 산밑에(뒷산, 소나무울창), 도로인접, 앞냇가, 시내버스, 교통요지
- 인터넷 '사찰안내 가람참조' (사찰내외 사진25장 참조)
- 가액 : 3억원(융자7천포함<절충가능>)
- 꼭하실분만 연락바람

010-3149-4478
스님이주관계 010-864-8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1호선, 동묘역, 2번, 3번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 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임야 : 종교부지 합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 요사채:조립식 30평
- 가액:대출 7,500안고 1억 1천만원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김제 황산면
- 대지 122평, 건평 법당 30평, 건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2층
- 삼존불, 탱화 등
- 수미단원목, 호신불 300불 완비
- 화목보일러 및 에어컨 설치
- 가액 1억 5천만원

010-6625-5539
010-7283-008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40년 전통사찰 부산역 가까운 교통편리한 곳
- 큰 도로이면서 조용한 곳
- 대 645㎡, 건 230㎡
- 방 6, 도시가스, 주차가능
- 가액 : 9억(은행융자가능)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이찬수)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010-5346-4138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요지).신축사찰
- 종교부지 160평, 전 110평
- 3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공양주방, 화장실2
- 즉시법회 가능
- 실외 화장실2, 창고1
- 가액 : 대출 6천안고 2억 5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 진시장 3~4층, 각 25평
- 보증1500만원 월60 만원 시설비 절충
- 주지스님과 절충
- 사찰불사해서 이전 관계로 안내합니다

010-7360-2877

사찰 및 기타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산(국유지)
- 건물 : 건물등기 24평 실평수 (50평)
- 방5개, 주방, 전기, 수도 완비
- 자연경관 수려함, 큰강변 국도에서 진입
- 가액 :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10-3588-8116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유곡면
- 사찰 800평, 요사채 50평
- 창고 9평, 법당 20평, 삼신각 7평
- 경관 좋음, 남향, 넓은 주차장
- 가액 : 2억 4천 5백만원

055)583-9635
010-8676-9635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매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 대지 220평 법당 15평, 요사채(공양간), 법당 옆 방2개 있음
- 가액 : 5700만원(집기포함)
- 즉시 법회가능

010-6241-8499

대구 포교원 임대
- 삼존불 지장 신중 탱화, 외국부처님3분, 소불 60분
- 1층 넓은거실, 큰방1, 화장실1 2층, 법당, 스님방1, 작은거실
- 주방, 화장실, 냉온방기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500만원, 월35만원 시설일체 2,300만원

010-4296-8200
054-954-0904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호흡이 주는 선물

래리 로젠버그 · 로라 짐머만(명상 지도자)

〈3〉 호흡은 늘 내 곁에 있습니다

‘나’와 ‘나의 것’ 틀서 벗어나라

2단계: 호흡에 닻 내리기

첫 번째 단계인 온몸 호흡 알아차림에서 숨 쉬는 것을 느끼는 것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힘이 길러질수록 몸과 호흡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은 더 평온하고 명징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붓다의 진실한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바로 통찰의 힘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위빠사나 명상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면 호흡은 하나의 닻, 지지대로 작용합니다. 여기서는 호흡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처럼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이완되어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이 펼쳐 놓는 모든 대상에 열려 있습니다.

앞 장에서 정해진 호흡 모델이나 이상적인 호흡의 형태를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허용하는 것을 배웠듯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삶과 경험에 드러나는 그대로 모든 것을 관찰하십시오. 좌선을 하면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이 매 순간의 호흡마다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일어나서, 지나가고, 그리고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정밀하게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그 상태에서는 그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는 평정한 상태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거울이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정확하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자세를 옮기고 싶은 욕망, 상대방과의 뜨거운 논쟁에 대한 기억, 심지어 침묵 그 자체와 같이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들 대부분은 일정한 목적과 과업에 익숙해서 떠오르는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불편한 그 마음을 보십시오. 이럴 때 스승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생긴다면 바로 그 바람을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의 본질을 봅니다.

모든 인간은 수시로 오고 가는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깨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가르치려는 것은 아주 너그러우면서 동시에 단호합니다. 우리를 성가시고 산만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단지 그뿐입니다. 좌선할 때 일어나는 평화로움, 불안, 의심으로 가득 찬 일련의 감정들은 수행을 위한 완벽한 재료가 됩니다. 일어나는 것들은 순간순간 변하지만 호흡은 일정합니다. 고독함이나 초조함 같은 강력한 에너지가 밀고 들어와도 호흡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자극에 자연스럽게 주의가 가 있거나 아무런 자극 없이 외로움이 지속될 때에도 그 뒤에는 들숨과 날숨에 깨어있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모든 것에 집중하면서 좌선을 한다는 것은 단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볼 것만을 요구합니다. 이토록 단순한 명상의 기술이 어려운 것은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평생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자유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라는 스승의 말에 고무되어 엄청난 결의를 갖고 좌선을 해도 잘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저항이 생겨납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더합니다. 다리는 저리고 시시때때로 슬픔과 공포와 같은 감정들이 떠오르면서 이런 강력한 감정들을 바라보는 것에 저항합니다. 어떻게든 해 보려 하지만, 마음은 희미해지고 이리저리 부딪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명상 중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고, 심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빙빙 돌면서, 생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낮에 일어났던 일과 저녁에 일어남 직한 일들을 이리저리 뜯어봅니다.

때로는 기억이나 감정과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아직은 당신의 집중 수준이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유익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빠져 있다는 느낌조차 들기도 합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든, 감정에 휘둘리고 있든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전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첫 번째 단계인 온몸 호흡 알아차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이 떠안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서 아는 것 또한 명상 기술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 나타나지만 아직 그 감정을 감당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절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정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반응입니다. “우와 이것은 외로움 또는 외로움을 생각하는 파도네. 근데 지금은 다룰 힘이 없어.” 그때는 호흡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런 식으로 좌선을 끝냅니다.



자신 삶과 경험 ‘통찰’ 할 것
좌선 통해 정밀한 관찰 가능
신체 · 감정적 저항 생길수도
단순한 ‘바라봄’ 요구하기 때문

첫 번째 단계인 온몸 호흡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면 몇 차례의 호흡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안정됩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자유로운 주의 집중의 장으로 호흡과 함께 되돌아와서, 오고 가는 몸과 마음의 상황에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상태가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좌선에서 같은 방법으로 호흡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함 또는 후회의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불행하게도 마음의 소란스러움은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 위빠사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안내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섬세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스스로의 수용과 통찰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체험으로 거기에 도달하면 실질적인 힘이 생기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며, 아름답고 멋진 삶이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날에는 쉽게 모든 것에 열린 집중이 가능했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잘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단계인 온몸 호흡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유익합니다.

이 수행법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행자들이 나에게 말합니다. “좋아요. 당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분노와 외로움 그리고 모든 무거운 감정들을 볼 수 있기까지 2~3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열린 집중 수행을 무한정 미룬다면 결코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통으로부터 너무 빨리 도망가면, 이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회피하는 습관을 강화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호흡에 대한 집중이 고차원적인 도피 수단으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몸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첫 번째 단계만을 수행하면 일시적으로 아주 편안한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여기에 한정하면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고통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빠사나 수행은 고통의 뿌리에서 해방되는 것을 강조하는 지혜 수행입니다. 고통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바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나의 것’이 문제라고요?

나와 함께 수행했던 한 제자가 어느 날 자신의 삶이 무상함을 명상하면서 컴퓨터 기술자인 자신의 직업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직업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업을 바꾸고 싶은 열망이 강해지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혼란스러워하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가 경험한 불확실한 경험은 “나는 혼란스러워.”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혼란으로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마음을 자아 중심적 마음 상태라고 봅니다. 혼란을 만든 낡은 마음이 자기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를 푸는 올바른 해법은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명징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란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혼란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깨어있음은 결코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음은 혼란에 의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비춰주는 깨끗한 거울입니다.

그 제자는 크게 안심하면서 이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여전히 직업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그에 더해진 ‘혼란’은 사라졌습니다.

그가 다음번 수행 때 다시 혼란스러워지면 지금의 명료함을 기억하게 될까요? 불행히도 우리들 대부분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대신 마음은 다시 ‘나’는 혼란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 혼란과 일체화하면 할수록, 그 혼란이 갖는 힘은 커집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이 결정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혼란과 일체화할 때 우리는 ‘나’, ‘나의 자아’라는 느낌을 증폭시킵니다. 아마도 이것은 스스로를 무력하고 미숙한 수행자로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자아 중심화 또는 나 중심주의라는 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은 아무리 반복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은 고통의 핵심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이 대개 그렇듯이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과 일체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좌선을 할 때 행복과 절망 사이의 모든 감정 스펙트럼을 거칠게 흔들리면서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과 일체화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과학자라는 자신의 이미지에서 부족한 부모라는 이미지까지 자신의 이미지와 일체화합니다.

나에게 명상 수행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금욕은 ‘나’ 또는 ‘나의 것’으로서 모든 것과 일체화하는 습성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수행자로서 나의 정체성, 정의에 대한 나의 분노와 열정, 나의 채소밭, 모든 것이 그렇게 ‘나의 것’입니다. 종교에서 전형적으로 금욕이 의미하는 바는 성, 돈, 식탐, 그리고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원에서 하루에 한 끼만을 먹으면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 있고 우아한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멋진 일이고 아주 미묘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전 과정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무상, 고, 무아의 여여함을 보는 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게 해 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한순간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면 이런 생생한 경험은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이 글은 〈호흡이 주는 선물〉(나무를 심는 사람들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배종훈의
명상카툰

일상, 그 특별함

빗소리에 일찍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고 가만히 누워 비를 듣는다.

산사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일상이 다 특별한 것만 같다.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하는 말을 하고, 그림을 그리며, 막상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일상의 소중함, 특별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비 때문인지 경내는 아침에도 밤처럼 소리가 없다.

빼꼼히 대웅전 문을 열어본다. 등을 켜지 않아 어두운 실내에 부처가 가만히 웃고 있다.

합장 반배를 올리고 마음으로 말한다.

부처님, 저 잘 쉬었다 갑니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꽃이 진 자리, 열매 맺히듯…

마흔아홉 번째 날 ㊦

멈췄던 것 같은 시간이 다시 흘러가. 아빠는 회사에 나가고, 엄마는 새로운 일감을 맡았어. 이번에는 밥솥을 디자인한대. 엄마가 디자이너라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엄마는 지나치게 수수하니까. 옷 하나를 사도 남자애들이나 입을 것 같은 옷을 사 오지. 할머니는 뭐든 잘 만들었어. 엄마가 사온 밋밋한 셔츠도 할머니 손길이 닿으면 아주 멋지게 변신했어. 친구들은 늘 내 머리 모양이나 옷을 부러워하곤 했지. 나는 2학년이 되었어.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 아이들은 예쁜 담임선생님을 만났다고 좋아했지만, 나는 모든 것이 낯설어. 시간이 거꾸로 흘렀으면 좋겠어. 다시 1학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면 떠났던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일주일이 지나면 큰고모 스님이 와서 재를 올려. 작은고모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오다가 이제 오지 않아. 상을 차리고 불경을 읊고 나면 큰고모는 절로 돌아가고, 아빠와 엄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히 심술이 나. 모두들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걸 잊은 듯이 행동해. 내가 심술이 나서 퉁퉁거려도 다들 못 본 체하지.

그러면 나는 할머니 방으로 가. 베개를 꺼내서 베고 누워. 베개에서는 할머니 냄새가 나. 참 이상하지.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는데, 할머니 냄새는 아직 남아 있어. 베개를 베고 누워 눈을 감으면 할머니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이 흘러.

다섯 번째 재를 지내는 날, 마당에 동백꽃이 피었어. 지난해 동백꽃이 피던 날, 할머니는 정신이 또렷해져서 머리를 곱게 빗고 꽃 마중을 했지.

"안녕, 꽃들아. 어디 갔다가 이제 왔니?"

꽃 마중을 하고 나면 꼭꼭 숨어있던 꽃망울들이 활짝 얼굴을 내밀었어. 팝콘처럼 일제히 꽃망울이 터졌지. 올해에는 아빠와 엄마, 큰고모 스님이 다함께 꽃 마중을 했어. 재를 지내고 마당으로 나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

"꽃들은 지고 나면 다시 피는데, 할머니는 왜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잠깐 동안 아주 조용해졌어. 아빠와 엄마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어. 어른들을 난처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궁금했어. 큰고모스님이 빙긋이 웃었어.

"지난해에 핀 꽃들은 이 꽃과 같은 꽃일까, 다른 꽃일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같지도 다르지도 않단다.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면 우리는 그 꽃을 다시 볼 수 없지만, 꽃이 사라진 것은 아니란다. 꽃잎이 떨어진 자리엔 열매가 맺히지. 열매가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꽃이 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단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조건이 되면 드러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모습을 감출 뿐.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할머니의 모습은 우리 곁에 없지만, 할머니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다희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큰고모 스님은 언제나 알쏭달쏭한 이야기만 하지. 할머니도 그랬잖아. 내 속으로 낳았지만, 저 애 속을 모르겠다고.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나는 줄곧 할머니가 곁에 있다고 느껴. 베개에 남아 있는 할머니의 냄새처럼.



그림 · 강병호

할머니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마흔아홉 날이 되었어.

그 사이 아빠는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 이제 회사 사람들이 아빠를 차장님이라고 부른대. 아빠는 새로 나온 명함을 보여주며 활짝 웃었고, 엄마는 월급이 올랐다고 좋아했어. 엄마는 밥솥을 세 개나 그렸어. 그중에 하나를 밥솥으로 만들 거래. 믿을 수 없겠지만, 엄마가 디자인한 밥솥은 정말 예뻐. 할머니가 소매 끝에 수놓았던 꽃들이 날아가 밥솥 손잡이에 내려앉은 것 같아. 나는 가은이라는 친구를 만났어. 우리는 금세 단짝이 되었지. 가은이는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다니는데, 머리꼬리가 말꼬리처럼 예쁘다고 했더니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히히히힝' 하고 말처럼 대답해. 가은이랑 있으면 늘 웃게 돼.

마지막 재를 지내느라 큰고모 스님이 계신 절에 다녀왔어.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왜 쓸쓸한 기운이 풍길까. 친척들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아빠의 입술과 청아한 소리를 내는 큰고모 스님의 목탁, 우아하게 틀어 올린 작은고모의 머리칼이나 절을 올릴 때마다 가슴을 지그시 누르는 엄마의 손끝에 그렁그렁 물기가 맺혀있는 것 같아.

재가 끝나고 꽃님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 먼 친척이라는 할머니가 나를 보고 말했어.

"이 아이는 어릴 적 꽃님이를 똑 닮았구나."

"꽃님이가 누군데요?"

"어릴 적에 네 할미를 꽃님이라고 불렀지. 꽃처럼 어여쁘다고 꽃님이라고 불렀어. 동그란 눈썹이며 입 매무새가 어릴 적 네 할미를 아주 빼다 박았구나."

어릴 때 친구인 줄로만 알았던 꽃님이가 할머니 자신이었다는 걸 알고 엄마와 아빠는 웃음을 터트렸어.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내는 날인데 소리 내어 웃는다고 작은고모가 흉을 봤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때가 나는 제일 쓸쓸해. 집안 어딘가에 할머니가 있는 것 같아.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거나, 부엌에서 고구마를 삶고 있거나, 할머니 방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 있을 것 같아.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할머니 방에 들어와 베개를 베고 누웠어. 할머니 베개를 베고 누우면 나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이 흘러. 아빠가 다가와서 옆자리에 누웠어. 따뜻한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어.

"다희가 아주 어렸을 때, 다희가 아직 다희가 아니었을 때, 다희의 절반은 아빠였고, 나머지 절반은 엄마였지. 그리고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아직 아빠가 아니었을 때, 아빠의 절반은 할머니였고, 나머지 절반은 할아버지였단다. 그러니까 우리 다희의 반의반은 할머니인 셈이지.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고 없지만, 아빠의 몸속에도 다희의 몸속에도 여전히 할머니가 계셔. 다희의 동그란 눈썹은 할머니를 닮았지. 야무지고 고운 입술도 할머니를 닮았고. 이것이 우리 몸속에 할머니가 계신 증거란다. 우리가 할머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한, 할머니는 우리 기억 속에도 살아 계실 거야."

"그럼 내가 할머니의 열매야?"

"그래. 열매란다. 꽃님이의 꽃님이지."

아빠와 나는 마주 보며 웃었어. 그렇게 마흔아홉 번째 날이 지나가고 있었어. 가슴은 아팠지만, 무언가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 〈끝〉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긴급 모객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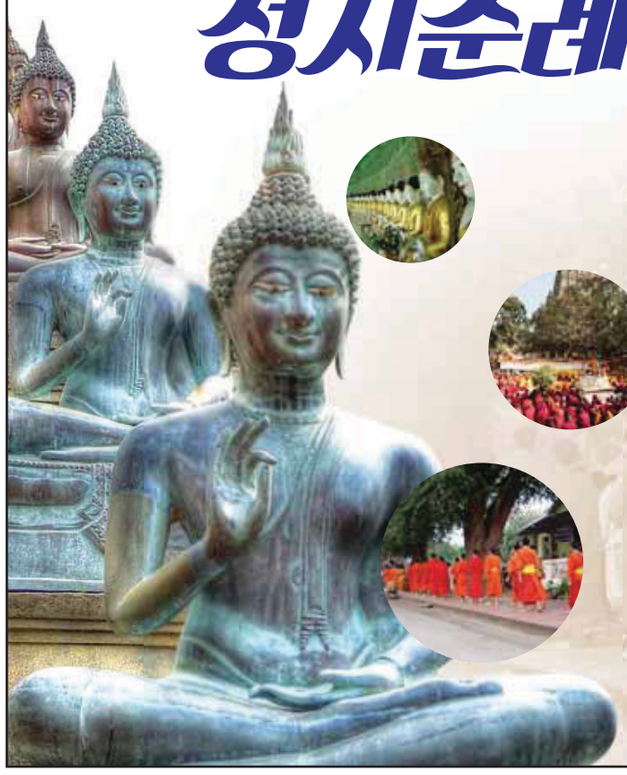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출발일 : 3월 30일, 동참비 : 209만원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천불 천탑의 신비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4대 불산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085호 현대불교
2016년 2월 24일(1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그대로 집어먹고, 그대로 맛을 알고, 그대로 행하라!



그림 · 최주현

현재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질문 제게 현재에 어떤 사건이 생긴다면 그것이 현생의 어떤 인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전생으로까지 넘어가서 전생의 업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요.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전생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답변 이렇게 밝고 밝은 세상에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은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유전공학이니 뭐니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지내면서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관념이 없고 고정된 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렇게 짤막짤막하게 한 토막씩 찰나찰나 넘어가니깐 그렇지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바로 일생, 칠십 평생 팔십 평생 넘어가는 이 때에 우리는 그 물에서 떴다가 그 물에 가라앉을 뿐입니다. 가라앉았다 뜨고 떴다가 가라앉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인생은 그런 거 밖에는 안 됩니다. 떴다 가라앉고 떴다 가라앉고 하는 동안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어저께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오늘까지 울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겠다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안돼 버리고 망했을 때, 그렇게 자기가 저질러 놨기 때문에, 엊그저께 저질러 놓은 일이 오늘에 닥치니까 막 울게 되죠. 또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는데 망했다고 남을 원망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업을 지어 놓고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업이라고 하죠. 진화를 해서 우리가 모습을 바꾼다고 하는 창조력은 우리가 금방…. 요거를 이해해 보십시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듭디까? 어머니 만났을 때는 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딸의 행동과 딸로서 말이 나갑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는 남편에 의해서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만날 때하고 남편 만날 때하고 찰나에, 내 마음은 전체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그 행까지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활 불교로서 이끌어 가려니까 이렇게 내가 말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 뛰어든 것입니다. 옛 선사들처럼 낚싯밥을 던져서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하고 뛰어들어서 죽을 쑤든지 밥을 쑤든지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칠십 평생 팔십 평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머니 만날 때의 그 모습하고 남편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은 변화가 돼 가는 것입니다. 찰나여서 자기 자신들은 변한 거를 모르지만 시계 초침 하나 똑똑똑똑 가는 대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금방 엄청나게 변화가 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된 걸 모르고 갈 뿐입니다. 찰나찰나 나투고 가는 것이죠. 화(化)해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만날 때에 말과 행과 마음이 동시에 융합이 돼서 무심으로, 그냥 무행을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한 자체와…. 칠십 평생이나 팔십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또다시 이 세상에 나는 것이 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칠십 평생, 팔십 평생, 백 살을 살다가 죽든지 애 적에 죽었든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인연 따라서 또 만났다 할지라도 그 순간, 어머니 만날 때에, 즉 말하자면은 그 삼합(三合)이 동시에 움죽거려서 자기가 행을 하는 거, 남편 만날 때에는 또다시 그것이 홀딱 바뀌어서 아내로서의 생각이 들고, 또 딸로서의 생각이 들고 며느리로서의 생각이 드는 거, 며느리로 살다가 금방 아내로 사는 거…. 이것을 바로 윤회라고도 하고 인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축소해서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세요, 모르시면은.

그런 게 존재하느냐고 하는데 진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은 자기가 받게 마련이니까요. 지혜가 있다면 다 놓을 수 있고 굴릴 수 있고, 지혜가 없다면 바늘구멍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좁은 마음은 그걸 능가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어머니 만날 때도 내가 만났다고 하고, 남편 만날 때도 내가 만났다고 합니다. 벌써 시계 초가 하나 하나 갈 때마다 내가 변화된 거를 모르고 있을 뿐 벌써 딸이 됐다가, 남의 집 며느리가 됐다가, 금방 남의 집 남편이 된 그 사이가 찰나인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축소를 하면은 그게 되고 대의적으로 따진다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또 한 번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사는, 죽고 또다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사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진화나 모습의 진화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니 만날 때의 마음과 아버지 만날 때의 마음, 동생 만날 때의 마음이 이렇게 아주 묘하게 자유스럽게 무심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소소영영한 마음자리에 들려면…

질문 『금강경(金剛經)』의 사구게 중에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이란 말이 있듯이 머무르는 바 없는,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이 소소영영한 마음자리인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생각 하기 이전의 마음이 한마음 주인공이 나투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항상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마음 내기 이전은 마음의 내 선장이고, 마음 내는 것은 바로 중생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스려서 몰락 놓을 수만 있다면…. 몰락 놓되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놓고, 돌려서 놓고, 구정물을 새 물로 만들어서 놓고. 그러니까 '그 구정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 이런 말도 경에 많이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르치면 더디니까 아예 '그 구정물을 맑은 물로 그냥 대치해서 써라!' 이겁니다. 그 과정을 다 새삼스럽게 거치고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먹고, 그대로 맛을 알고, 그대로 행하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생각 내기 이전이 자기 뿌리니까요. 그대로 믿고, 양면을 다 거기다 믿고 놓으면 그 가운데서 아주 샘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샘물이라는 것은 만법의 근본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며 또 생활인 것입니다.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질문 삼독이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인데, 이 삼독심에는 저절로 모든 악한 것이 갖추어져 있기에 이 삼독만 벗어난다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행자가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요. 그리고 삼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죽는다면 지금 이 시대가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무명을 쓰고, 어떤 모습을 쓰고 나오든지 간에 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 땐 미래이자 현실입니다. 그래서 삼세에 지은 모든 일이 유전성으로 또는 영계성으로 업보성으로 세균성으로, 내가 나쁜 일 또는 악한 일 모두

☞ 26면으로 계속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무료보시 안내!!

주지스님 전용마이크 구입시 → 고성능 다이나믹마이크 보시!
앰프설치 사전 예약만 해도 → 고급 무선마이크 1셋 보시!

(무료 보시 기간 : 2016년 2월 29일까지 구입 및 앰프설치 예약 사찰에 한함)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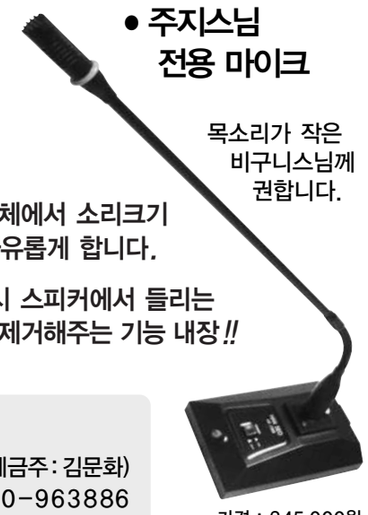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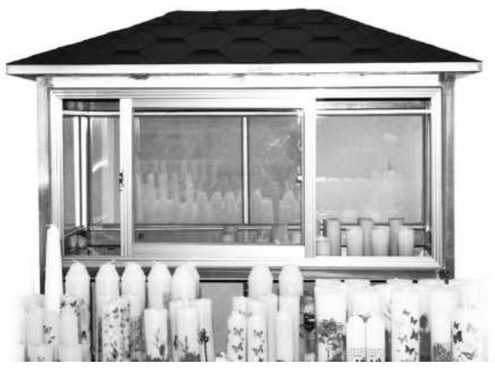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마음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어

☞ 25면에서 계속

를 행한 것이 바로 업보가 돼서 삼독이 된다는 얘깁니다. 삼독. 그래서 삼독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이자 오늘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교차로를 연방 들고 넘으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며 가는 사람도 역시 그 삼독을 면치 못한다 이런 소립니다.

이 삼독을 면치 못하는 원리는 내 마음이 툭 트이지 못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한계성을 느끼고 살아오면서 지닌 그 관습에 젖어 가지고 한 치도 나가지 못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어디를 가려면 꼭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고 문을 열고 나와야 하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고, 불에 들어가면 타 죽고 또 무서운 데 가면 전부 무서워서 죽고, 귀신에 말리면 그냥 무서워서 죽고, 이런 생각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를 잘못 가면 안 되고 삼재가 들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온통 안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간지옥고를 받는다 하는 거는 땅 끝에서 국내 밥내도 맡지 못하는 게 오간지옥입니다. 전체가 한데 합쳐진 게 오간지옥이에요. 그런데 오간지옥이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찰나찰나에 나한테 용도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살 만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기고, 살 만하면 또 일이 닥치고, 이게 해결되면 저게 터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지. 그러니 지옥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지옥을 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바로 승천해서 천당에서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삼독을 면하려면 그런 그 마음의 관습에서 떠나야 될 텐데, 삼독을 면하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얘깁니다. 한 치도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니 이거를 어떡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이거는 노예지 자유인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처럼 다 타고나서…. 부처님은 눈이 셋입니까, 코가 둘입니까? 여러분도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부처님도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인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과감하게 말입니다. 과감하게 뛰어넘어야죠.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입에 밥 들어가지 않을까 봐 걱정, 옷 헐벗을까 봐 걱정, 거리로 나앉아서 잘까 봐 걱정, 죽을까 봐 걱정.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과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옹졸한 마음이 돼서 항상 노예로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과감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몸뚱이를 이 자리에 두고 우주 탐사를 할 수도 있거니와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고, 내 집도 갔다 올 수 있고, 내 회사도 갔다 올 수 있고, 모두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발 한 짝도 어디 놓여 있는지, 맛있는 음식을 얻다 뒀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못 믿습니까?

한생각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삶이 순탄치를 않고 고통과 장애가 많습니다. 저에게 지워진 이러한 많은 장애를 한순간에 소멸시키고 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싶은데, 한생각의 능력에는 한계가 지어져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무한한 것인지요?

답변 우리는 90%가 부처라고 합니다. 왜 90%가 부처인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벌써 부처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자기 부처를 우습게 생각하고 남의 부처만 부처인 줄 알고, 위대한 것만 위대하게 보고 낮은 건 낮게 보고서 아상을 높이고 권세를 부리고 얕게 보고 이러는 까닭에 우리들에게 고가 많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그래서지요. 마음의 생동력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공해서 공심(共心)으로서 공생(共生)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때에 따라서 조그만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다양하게 능력을 쓸 때에, 항상 우주 천하 삼천대천세계의 생명들의 능력은 바로 내가 한생각 낼 때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와서 수많은 능력이 한데 한마음에 응시되니 한생각에 우주 천하가 들리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물건이 있고 여러분과 같이 드는 물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독불장군으로서 그냥 '내가 했고, 내가 살고, 내가 모든 걸 줬고, 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물건, 이 색(色)이, 내 몸 육신이 나라고 산다면 그렇게 나라고 했으니 수많은 생명의 능력은 한꺼번에 한마음에 들어 주지 않습니다. 무량한 발전소 즉, 비유해서 자동적으로 돼 있는 자가발전소가 있다면 자유스럽게 남에게도 전기를 넣어 줄 수가 있죠. 항상 들어오는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스럽게 스위치를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못 쓰게 되는 원인도 바로 무량한 자가발전소를 모르고 전기가 들어온 것만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전기를 내가 자유스럽게 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자가발전소가 바로 나라면 내가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널리 지혜 있게 써서, 내 육신이 생기고부터 이 세상이 모두 공한 거를 알고, 나로부터 전체가 공한 거를 알고, 내가 이 세상에 난 것이 태초요 내가 난 것이 바로 화두니까, 그 화두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있고 세상에 진리가 있고,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고 깨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제 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 그 자리에다가 믿고 일임해 놓지 않는다면 천차만별로 된 부처님의 그 광대무변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삼천 년 전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사람이라는 두 글자는 똑같겠죠. 삼천 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모습이 조금 다르게 돌아갈 뿐이죠. 그러나 내 마음을 내가 헤아릴 줄 모른다면 부처님은 아마 알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보지도 못할 겁니다.

천도재 지내는 도리에 대해서

질문 선원에 다닌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공부를 해 나가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조상님들께 감사의 천도재를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천도재 지내는 도리에 대해서 저와 같은 초심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저 최 씨라는 분이 천도를 시킨다고 절마다 다 다니면서 해도 천도가 안 되더랍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꿈에 조상들이 나타나서는 보따리를 들고 저길 나가다가 도로 들어오고 도로 들어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게 온 겁니다, 이제. 그래 지내고 싶으면 거기 깔고 앉았던 방석 있죠? 거기다가 놓고 절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 그 사람으로서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냥 차려 놓고 지내도 안 되는데 아니, 방석에 그냥 놓고 저 방석에 하고 가라고 하니 그거 믿겠습니까? 그러나 고개를 꺄우뚱하면서 거기다 놓고 갔습니다, 절을 하고.

그러더니 그 이튿날 오더니만 "아이고, 천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 고마운 사례로 얼마를 갖다가 거기 방석에 또 놓더군요. 그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 아니, 구름을 타고 선녀들이 내려와서 모시고선 그냥 구름을 타고 다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럭하고 난 뒤에 그 집이, 최 씨네 가문이 일어난 겁니다. 가발 공장을 했었죠. 그때 그게 그냥 아주 담뿍 일어나서 큰 부자가 됐죠.

그랬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스님네들이 절에서 보통 이렇게 차려 놓으면 스님네들이 얼마만큼 차려 놨다는 걸 영령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령들이 들어와서 뭐부터 보느냐 하면 스님네들 마음부터 보거든. 마음부터 읽는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상 차려 놓은 거하고, 돈 얼마 가져온 거하고, 돈 얼마 놓은 거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 알지, 뭐. 영명(靈明)하죠.

마음 내기 이전은 마음의 내 선장이고,
마음 내는 것은 바로 중생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스려서 몰락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탁 소리는 우주 법계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문이 탁 열렸으니깐 상을 안 차려 놨어도 그렇고 차려 놨어도 그렇죠. 모든 게 내 거 아님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아니, 그 영령들이 그 스님네들의 마음에 탁 가서 하나가 됐는데 뭐를 바라겠습니까? 바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 한데 합쳐져도 두드러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풀려서 제도가 돼도 줄지 않는다 이거죠.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재사 지낼 때, 여기서 천도재를 지낼 때 물건을 많이 사다가 상에 온통 쌓아 놓고 지내야만 잘 지내 주는 걸로 아니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안 사면 '아이, 물건도 안 사는데 뭐 돈 이것만 해도 되고, 안 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모습을, 아까 얘기했듯이 일차적으로 그렇게 독사의 무명을 타고났거나 또는 어떠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극매고 있는 그런 지옥고를 범했을 때, 이 공부 하면서 그것을 면해 주기를 바라고 모든 거를 합니다.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산 대로, 지은 대로 콩 나고 팥 나듯이,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모습을 쓰고 나오는 것이 지옥고입니다. 오간지옥고니 하는 그 오간지옥이란 것은 땅속에서 파먹고 땅속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 오간지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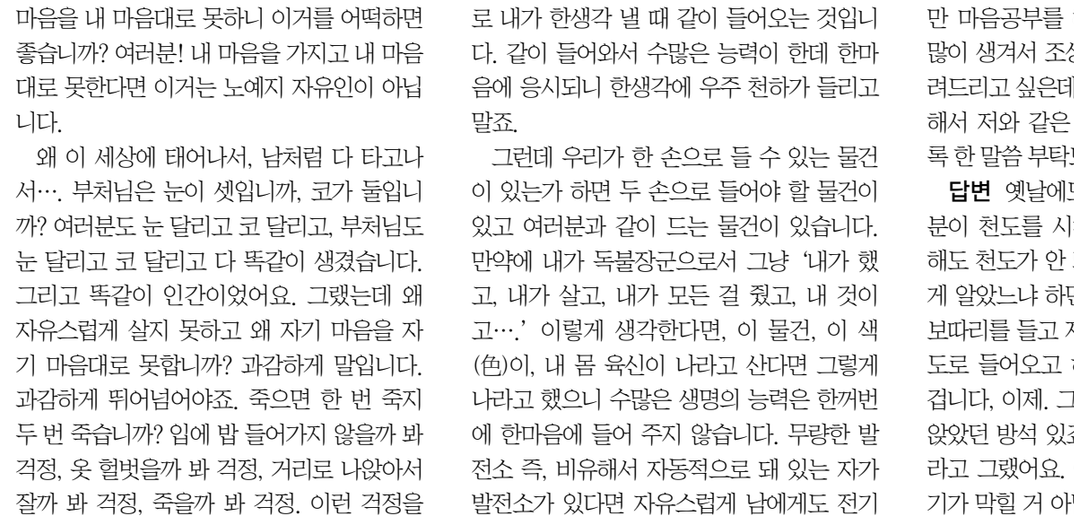
그러니 그 지옥고에서 벗어나려면 단 하나의 그 마음 즉, 영령을 탁 건져서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해 놓는다면 금세 제도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천도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게 되는데 어머니의 아버지의, 형제의 그 무명을 벗기기 위해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너가지 못하는 것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지내는가 하면, 한 발자국도 떼어 놓지 못하고 업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건지려고 지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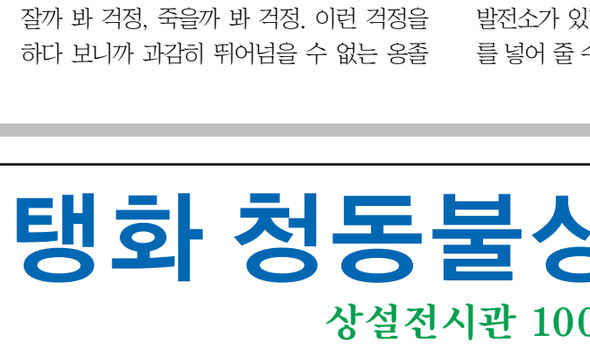
그런데 영령들의 의식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열도 되고 백도 되고 스물도 되고 이렵니다. 돌아가셔서 천도재를 했으면은 아이, 제사(祭祀)도 안 지내야지 왜 지내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 된 도리죠. 잘됐든 못됐든 자식이 된 도리예요. 묵은 빚 갚아야죠, 은혜를. 자기가 은혜를 못 갚으면 자기 대에서 또 자기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 허명무실하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제사 지내는 것도 여기 상을 차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뜻있게 해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떡 한 그릇이 되남도록 하라는 겁니다. 물과 초, 향 그거면 족하지 뭐가 더 필요하냐. 모든 빗방울이 바다로 들어간들 빗방울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다의 물이라고 하지. 수만 개의 영령들을 한마음에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럭하면 오히려 집안이 더 깨끗하고 더 청정합니다.

그러니까 천도를 스님네들한테 청하되 무엇을 많이 차려 놓는 걸 바라지 마십시오. 찹쌀가루를 해서 재사 지낼 때 뚱그렇게 그냥 부쳐서 아홉 조각 아니면 일곱 조각, 일곱 조각 아니면 세 조각 이렇게 해서 놓고, 초 향 물 이렇게만 해 놓고 지내신다면 그것으로써 족합니다. 환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나물 먹고 떡 먹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하는 의식들은 벌써 그건 아주 하의 중생들의 얘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상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떡, 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그 의식을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마음속으로 예배를 올리면, 그리고 절 삼정례(三頂禮)를 할 때 맨 끄트머리엔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내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 놓고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주 극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명상지도자 코스
'마인드힐링지도사'
6년 연속 동국대 평생교육원 최고 인기강좌
(국가등록 민간자격 2014-2980호)
개강일 3월 3일(목) 오후 14시, 19시 / 5일(토) 오전 10시
비 용 15주(1학기) 45만원 – 총30주 과정(워크샵 별도)
특 전 마인드힐링 국가등록 자격취득 / 한국명상지도사협회 교육인정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명상지도자 코스
'인성교육지도사'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인성교육지도사 자격취득반
(국가등록 민간자격 2015-003438호)
개강일 3월 5일(토) 오후 14시 / 8일(화) 오후 14시
비 용 12주 50만원 (실습, 워크샵 별도)
특 전 인성교육 국가등록 자격취득 / 포교원 인증 인성교육프로그램 제공 (EGG 깨뜨림)

【자비명상 주관 교육과정 안내】
▸자비명상지도사 스님과정 : 조계종 교육인정과정 / 개강일 3월 7일(월) 오후 7시
▸차명상지도사 자격과정 : 차를 통한 심신의 안정과 차를 통한 명상 지도사 과정 / 개강일 3월 7일(월) 오후 8시
▸승무, 북 특별과정 : 전통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직접 지도하는 한국무용 기초반 / 개강일 3월 2일(수) 오전 10시

【교육등록 안내】
▸개 강 일 : 2016년 첫째주 부터
▸접수문의 : 동국대 평생교육원 02)2260-3728~30 (http://edulife.dongguk.edu/)
▸상담문의 : (사)자비명상 02)2682-0260. 010-9722-2971 (문자상담 환영)

마인드힐링지도사, 인성교육지도사
무료공개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6년 2월 27일(토) 14~17시
•장소 : 동국대 문화관 1F 덕암세미나

사단법인 자비명상 Loving Kindness Meditation |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불자 세상보기

데이트 폭력의 예방법은 '正思惟'



선업 스님
몸행복치유센터 원장

매년 2월과 3월 한 달간은 연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많은 연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런데 동시에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간은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이기도 하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 매년 7천 건 정도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3년간 143명이나 된다. 소위 '사랑해서 때렸다'라는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그럼에도 연인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타인의 개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심각성이 인정돼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dating abuse)이란 서로 교제하는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으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을 말한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령, 경제 수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강박적으로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하며, 자신감이 지나치고, 감정기복이나 폭력적 전력 또는 성마른(참을성이 없고 성질이 조급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동반자를 그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서 분리시키려 하고,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남자 만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자존감이 낮아 남의 평가에 쉽게 화내는 남자, 소유욕과 집착이 심한 남자, 질투심이 높고 의심하는 남자, 충동조절을 못하고 음주 후 주사를 부리는 남자, 그리고 여자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는 남자"를 위험군으로 특정하고 있다.

불교적으로 보면 데이트 폭력은 바르지 못한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탐·진·치 삼독심의 발로이다. 대표적인 데이트 폭력의 징후 중에서 '통제 권력적 행동'이나 '성적·물리적 데이트 폭력'은 상대를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탐욕의 산물이며 '감정적 데이트 폭력'은 상대를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고 '정신적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을 폭력행사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은 생각의 소산이다.

일그러진 집착·소유욕이
데이트 폭력의 주요 원인
正見으로 연인과 소통해야

데이트 폭력에 대한 불교적 처방은 팔정도의 '정사유(正思惟)' 익히기이다. 정사유는 3가지 바른 의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해(無害)'이다. 존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를 반복하는 연민심 함양 훈련을 통해 상대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이다.

두 번째 바른 의도는 '무진에(無瞋愛)'이다. '무진애'는 "나는 당신에게 화내고 있지 않으며,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애심의 훈련을 통해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바른 의도는 '무탐(無貪)으로 연인들 사이의 윤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마음가짐이다. "나는 당신을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사유는 연인 관계를 통해 무소유의 공덕을 쌓고 본래면목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무탐' 훈련은 자신의 욕구를 상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현대병의 근원을 무력화시키고 그 파생인 데이트 폭력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론이다.

입춘이 지나면서 곳곳에 연인들 가득한 장이 펼쳐진다. 이 틈을 노려 데이트 폭력이라는 어둠의 세력도 자리를 잡으려 한다. 이 때 3가지 바른 의도인 정사유를 마음에 장착한다면, 연인들의 만남은 존중과 공감과 배려 속에서 핀 밝고 건강한 미소 꽃 가득한 데이트 축제가 될 것이다.

발언대

3·1절 불교계 항일인사 재조명

3·1절을 앞두고 일제시대 당시 항일운동을 펼친 불교계 인사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는 투옥 기록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관련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만공선사 독립운동 재평가 절실"



옹산 스님
경허만공선양회장

"총독부는 조선불교를 간섭치 말라. 우리 조선 승려에게 전부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진흥책이다."

일본 강점기 서슬 시퍼런 조선총독에게 마곡사 주지였던 만공 스님이 내린 불호령이다. 우리는 흔히 의승군이라고 하면 임진왜란 당시 거병한 스님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스님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상해임시정부 활동자금을 국내에서 모금할 수 있었던 것은 만공선사와 같은 스님들의 협조 덕분이었다. 조선총독부가 31개 본사 주지대회를 개최, 조선불교의 일본화를 도모하려 했을 때 만공선사께서 분연히 단상에 올라 외친 '할'은 사명대사가 "조선에서 보배로 삼을 것이 있다면 그 목에 현상금이 걸려있는 가토 기요마사 당신의 머리뿐"이라고 한 것보다도 더 격렬한 정신적 폭탄투척이었다.

당시 만공선사는 "데라우치 전임 총독은 조선불교를 망쳐놓은 장본인인데 감사할 일이 없다. 내선일체를 강요하지 말고 조선스님들에게 맡겨두는게 조선불교 진흥책이다"는 요지의 일장 연설을 했다. 가토 기요마사보다도 더 위세가 등등했던 식민지시절 총독과 치안감인 전임 데라우치 총독의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이 연설은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한 말이고,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는 점에서 사명대사의 일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국가의 처신은 너무나도 다르다. 선조는 사명대사를 비롯한 많은 스님들의 공로가 컸음을 인정하고 표충사를 지었다. 조선이 당시 유교국가였는데도 사명대사에게 비록 명예직이지만 영의정에 해당하는 가의(嘉義)의 직위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펼친 스님들을 푸대접하는 현실이다. 특히 만공선사에게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예우조차 하고 있지 않다.

만공 스님은 의친왕을 비롯해 지역 독립투사였던 김좌진 장군, 만해 스님

투옥 기록 없다고 서훈 거부
많은 스님들이 활동 폄하 당해

등과도 깊은 교류를 했다. 이는 만해 스님의 상좌인 춘성 스님 등의 증언으로도 남아있다.

나라가 망해 임금이 없어진 탓인가. 건국 후 여러 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국가유공자를 살피는 일에 무능했다. 선조임금만큼도 힘을 기울인 지도자가 없다.

정부 측에서는 업적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 투옥과 복역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서훈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독립운동가 서훈에 있어 투옥과 복역기록에 매달려서는 안 되며, 이러한 독립에 대한 기여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교계 내에서는 아직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은 많은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불교계 내에서도 독립에 기여한 스님들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기를 기원한다. 이번만은 역사 바로 잡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만공선사의 벽력같은 一喝
쏜살같이 날아
미나미 총독의 골통을 관통한다.
만세 함성이 지축을 뒤흔든다.
기미년 3·1 항일 독립만세
만공의 일할과 그 만세의 함성
먼 역사에도 길이 빛나리.

社說

불교계 독립운동가 재조명 돼야

3·1절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80년 전 오늘 태화관에 모인 33인의 민족 대표는 모두 종교단체를 통해 독립 선언에 참여했다. 일제의 단속을 피해 은밀한 조직 작업을 펼치기에는 비교적 탄압이 적던 종교 활동이 편했기 때문이다. 33인 중 불교계에서는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 등 2인이었다. 이외에도 비록 33인은 아니지만 그 저변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불교계 인사들은 더 많다. 세상에 활발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당시 불교계는 전반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자금 등 활동을 지원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다. 대표적 불교계 항일인사인 한용운·백용성 스님 이외에도 독립운동자금 모연에 앞장선 백초월, 항일 비밀결사체 만당(卍黨)을 조직한 김법린, 기관지를 발간하며 항일운동을 펼친 김성숙, 조선총독앞에서 일갈한 만공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은 원활치 않다. 비밀리에 긴박히 활동하느라 근거자료를 잘 남기지 않던 독립운동 성격으로 인해 사료 적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립운동가 스님의 경우 문도나 제자들이 선양사업을 통해 활동상을 연구하지만 문도가 없는 스님이나 재가불자들에 대한 조명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3년뒤면 3·1 독립운동이 일어난지 100년이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2019년까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을 편찬할 것이라고 밝혔다. 30권 규모의 인명사전에는 1만3000여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상 및 이념·독립운동의 가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잘 드러나지 않은 불교계 항일인사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반도 갈등, 원융·불이로 풀자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월 7일 북한은 미사일 로켓을 발사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뒀다. 남북 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에 접었고, 올해 예정됐던 불교 통일운동단체들의 사업 계획도 무산될 상황이다.

당장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올 상반기 예정됐던 금강산 신계사 보수작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교계 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불교계 대북 및 남북교류단체들이 입은 피해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반대로 현 상황을 엄준히 분석·인식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대북정책은 통일이 아닌 현상 유지와 분단 관리를 위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합의를 기반으로 한 '선(先) 평화, 후(後) 통일'이 어렵다면 북한 세습 체제를 변화시킨 후 '선 통일, 후 평화'로 정책 노선을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계가 등한시하고 있는 새터민에 대한 포교를 강화해 그들이 통일의 선봉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동포를 끌어안고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불교의 원융과 불이 사상이 필요하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고, 화합할 수 있는 불교 사상이 한반도 갈등의 해법이다. 이를 위해 불교계도 노력을 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불교실전의식 학인 모집
범음.범패.작법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수복불교대학에서는 포교활동 및 포교원.
사찰개원을 희망하는 분을 위하여 각 단 불공의식 및
기초교리와 교학등을 빠르게 습득하여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교육과정 (1년 과정)
◇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
◇ 천도재. 49재
◇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 등
◇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홍고 등)
◇ 기초교리 및 교학
개강일시 : 2016년 3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장 소 : 수복불교대학
※ 1년 수련 후 법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수복불교대학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77-49 (이수역 10번 출구 부근)
연락처 : 명선 010-8588-2616 / 묘련 010-2250-7499

기문둔갑 강의 안내
www.gimun.net
기문학의 제35대 전맥자 민강 손혜림 직강
1 강의과목 : 기문조식법과 원리론및 기문명리 해단
2 강의시간 : • 오전반 - 오전 10시 30분
• 저녁반 - 오후 7시 30분
인터넷 원격화상 강의 - 수시 (5명이상에 한함)
3 강의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쇼핑센터 411호
(강남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3. 7. 9호선)
4 수 강 료 : 매주 1회(월 4회) 기준
월 20만원 (원격:30만원)
5 개강일자 : 2016년 3월 첫째 주부터
6 기문둔갑이란?
기문둔갑은 天人地의 뜻을 파악하는 학문입니다.
- 전맥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조식을 배워야 정확한 해단을 할 수 있습니다.
- 기문의 제35대 전맥의 학당인 태청궁청구 태학당에서 올바른 기초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 전맥의 핵심을 풀이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 명리를 접해본 적이 없거나 오행을 모르는 분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문의 02)3476-3433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
강의 특징
7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중 5개월은 초보부터 고급, 비법까지 완벽하게 전수 2개월은 사주팔자를 뽑아 놓고, 운세나 운명을 정확하게 직접 통변 할 수 있는 통변술(추명술)을 가르쳐 드림.
명리학을 배우시고 통변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이 자신 없으신 스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배워보십시오.
대 상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 수 강 료 : 7개월 교육전기간 강의료 무료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책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 대금 20만원)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한국 불교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합시다

오래전에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 스님께서 한국불교를 접한 후 귀국길에 하신 말씀이 "한국에는 불교가 없다."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외국인 스님이 우리나라 큰 절에서 몇 년간 수행하다 산문을 나서면서 역시 "한국에는 불교가 없다." 라고 했다. 그 소리를 변방에 있는 소납도 알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크고 작은 절집을 지키는 큰 주인공들이 신문이나 방송 그 어디에서도 말이 없다. 오로지 수행 차원에서 아직도 벙어리 ○년, 귀머거리 ○년, 봉사 ○년 중이신가? 분명한 것은 곰팡이는 햇볕을 쏘여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기에 그런지 부처님 전에 고해성사라도 해 보자.



* 부처님 저희 절은 돈 액수에 따라 큰 등, 작은 등 .....등을 구분해서 달아 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월급쟁이 부전스님을 두고 공양주가 해 주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법당 바닥에 구멍이 있어 그곳을 통하여 밑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제 몸에서 광채 나는 사진을 찍어 그것을 나눠주고 간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인등, 108등, 사업성취의 등, 재수의 등, 합격의 등, 승진의 등 ..... 등을 달고 축원을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영가 천도 전문 도량으로 사주나 점을 보아 천도재를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49일로서는 안되어 1029일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신도들과 밥상을 같이 하지 않고 독상을 받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조상을 항시 모시는 뜻에서 고액을 받고 만년위패(평생위패)를 모시고 있고, 또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 신도들에게 신심을 고양시키고자 생년월일에 맞게 달마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가피법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줄을 서게 한 다음 사례비를 받고 이마와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신도들에게 제 생일을 알려주고 해마다 찾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부처님 몸속 법당이 있어 그 곳에서 극락발원 티켓을 팔고 있고, 소지자에 한해 극락발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만 염주가 있어 그것을 일일이 잡고 도량을 돌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사주, 철학, 점, 관상, 수상, 명리..... 등등을 전문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사부정진을 천일동안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띠삼재(들삼재, 묵은삼재, 날삼재)를 풀이 및 기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삼재 해당되는 이들에게 남녀 속옷을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그에 해당하는 부적을 방편으로 팔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생전예수재시 전생의 빚을 계산해서 재물과 돈을 부처님전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큰 행사시 부처님 말씀인 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도량을 돌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어쩔 수 없이 기부금확인서를 떼어주고 그에 대한 성의 표시로 등도 달고 보시를 받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신도가 많아서 품위유지상 그에 맞게 최소 00급 이상 고급 차를 타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000 다라니 기도를 00만 번을 했고,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집터 및 묏자리..... 등등을 봐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해마다 산신제와 산신기도, 용왕제와 용왕기도를 꼭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옛 조사 00스님이 창건한 절로써 한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도량입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바위구멍과 탑 속에 금개구리가 있는데 보통 인연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 부처님 저는 치매 예방차원에서 화엄경(화투)공부 및 카드놀이를 꾸준히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종단내 중책 소임과 관장, 원장 등등의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기업식으로 조직(총신도회, 관음회, 지장회, 반야회,보현회, 정진회.... 등등)이 잘 되어 있어 행사시 걱정이 없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우리 절 큰 스님, 우리 절 스님들 가르침만 따르게 합니다.
* 부처님 저는 선방 수좌로서 몇 십 안거째 정진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간화선이 최고라 평생 앉아서 화두 탐구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위빠사나 수행을 평생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경내에 신비한 바위가 있어 그 곳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경내에 돌덩어리가 있어 소원을 빌고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 부처님 저희 경내에 우담바라가 피어 그것을 친견케 하여 신심을 증장시키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경내에 목탁 소리를 내는 소가 있어 불자들로 하여금 친견케 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스님이었다나.....)
* 부처님 저는 재를 지낼시 저승길에 노자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놓게 하고 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제가 쓴 시를 고급스럽게 제작하여 절 입구에서부터 진열해 놓고 그것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부처님을 뵙기 위해 정기적으로 신도들과(○○암, 해외○○성지.... 등등) 바깥으로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산과 들, 강을 찾아 물고기, 조류방생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경이란 경은 모두 염송하는 염불만 하고 있고, 제 염불소리에 노보살님들이 흥얼대기도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신심을 돋우기 위해 철야정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00 문중에 00 상좌입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절 수행으로 108배, 1000배, 3000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사부대중으로부터 큰 스님이란 칭호를 듣고 〈금모자 및 금색 옷〉을 입습니다.
* 부처님 저는 부처님 덕에 법사로서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고비를 받는데 그 단위가 꽤나 큽니다.
* 부처님 저희 절 신도들은 일제히 유니폼을 갖추어 입고 법회에 참석토록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신도 카드 작성시 입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신도들과 더불어 술과 향도 합니다.
* 부처님 저는 평생 도량 불사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1년에 100일씩 수험생 합격 발원 기도 (사진 부착)를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새해엔 꼭 운맞이기도(운수대통기도), 재수대통기도를 하고 있고 매일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주지 진산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성대히 치르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제가 대중 앞에 입장시 00 스님 입장 하십니다 하며 전부 일어서게 하고, 그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합창단과 음악도 함께 합니다.
* 부처님 제가 수하고 있는 가사, 장삼을 비롯해 모든 승복이 꽤 값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불보살님의 가피 받은 손이 있어 그 손으로 기 치료도 해 주며 침도 놓고, 피도 빼고, 전신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큰 행사시 해신 굿과 살풀이굿도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소원을 빌고 동전을 바위에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에는 신비한 솥이 있어 손으로 힘껏 문지르며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죽비로 내방객들에게 등짝을 쳐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선방이 최고다 하여 앉아 있음을 즐기다 보니 육신이 원활하지 못하고 잦은 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 부처님 저는 불학에 매진한 결과 석,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부처님 저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세속인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 고급 스포츠인 골프나 스키..... 등등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세계 최대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성할 겁니다.
* 부처님 저희 절에 계신 부처님께 제일 화려한 금으로 도금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경내에 납골당과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부처님 옆에 은사 또는 창건주 영정을 모시고 조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전각을 많이 지어 노전에 불전함을 두어 보시케 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경전, 조사어록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사꾼과 무당들이 보는 잡귀 책에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운과 명복을 비는 기복 불교, 소비성 불교와 비생산적인 불교는 샤머니즘에 준하는 것이므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예 불교의 존립 자체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당연히 법사가 입으로 〈중생은 재보시, 출가자는 법보시〉를 강조했으면, 누구보다 먼저 출가자는 무주상보시가 되어야 마땅하고, 또한 비구는 걸사라 했는데 걸사는 걸식으로 살아가며, 누더기를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으로서 출가자는 청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중의 벼슬은 닭 벼슬보다도 못하다고 했거늘 왜 명예와 권력을 버리지 못하는가? 버리라고 법문은 많이 하면서..... 놓고 비우면 편안하고 고요해진다.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 4조이신 도신스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백장회해로 이어진 그 유명한 스님의 일화가 있지 않는가?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 이 말을 잊었는가? 이른바 수행자는 농사를 짓는 농선쌍수(農禪雙修)로서 이는 도신으로부터 비롯됐음을 바른 길을 가는 납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산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어 수행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데....

굳이 골프, 스키..... 등 고급스포츠를 해야 하는가? 백장스님의 선화(禪話)중에는 노동을 근본으로 하는 공안이 많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교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깨달음의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또 엄청난 돈을 들여 국내외로 부처를 찾으러 밖으로 밖으로 쫓아다니지 말고 내 안으로 살펴서 찾는데 주력하며, 그 막대한 차 기름 값과 경비로 오늘도 병원이나 달동네에서 수술비가 없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것은 인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인간방생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태석 신부, 테레사 수녀처럼)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부터 배신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물고기나 동물 그 어떠한 미물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일부 사찰에서 정법을 내세우며, 불교대학까지 운영하며 하는 행위는 인등, 성지순례, 평생위패, 만년위패, 방생, 삼재풀이, 삼재기도, 사주, 부적, 신비, 영험 등은 잡상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어느 경전에 나와 있는가? 다만 부처님 말씀인 경전과 조사어록 말씀 여러 곳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어도 이와 같은것을 하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다.

과연 불교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불보살이 무섭지 아니한가?

제발 앉아서, 말 장난으로 대중을 호령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행동하는 양심있는 지도자가 됩시다.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19-3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